

연구보고서(수시) 2021-06

# 코로나19의 확산과 청년노동시장 변화

함선유  
이원진·김지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연구진

연구책임자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06

### 코로나19의 확산과 청년노동시장 변화

발행일	2021년 5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kihasa.re.kr">http://www.kihasa.re.kr</a>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정인애드

---

## 발|간|사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 국제적 이동은 여전히 어렵고, 백신의 보급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아직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같은 감염병의 유행은 항공, 여행업, 그리고 대면서비스업의 위기에서 시작하여 모든 산업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이나 제조업 등 특정 부문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촉발된 경제적 위기가 아닌 순수하게 외생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은 이번 경제위기는 다른 경제위기들과는 그 원인과 양상, 그리고 장기화 추세 등 여러 측면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물론 어느 경제위기 때와 다름없이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도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청년들을 주목한다. 경제위기 시 기업은 신규 고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경제위기는 청년층의 주로 종사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여가서비스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은 코로나19의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위기에 노출되어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여타 연령층에 대비한 청년층의 경험뿐만 아니라 청년층 내에서도 성별, 학생 여부, 졸업 이후 경과 기간, 전공 등에 따라 이질적인 경험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함선유 부연구위원이 책임을 맡고 이원진 부연구위원과 김지원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이 연구의 자문위원으로 귀중한 자문의견을 주신 본원의 김현경 연구위원과 서울대학교 권현지 교수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더불어 한국노동연구원의 홍민기 선임연구위원, 이병희 선임

---

---

연구위원, 김유빈 연구위원, 성재민 본부장, 이화여자대학교 이종관 교수, 직업능력연구원의 남재욱 부연구위원, 서울연구원의 변금선 부연구위원, 서울시복지재단의 문혜진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홍백의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은석 교수 등 이 분야 여러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토대로 본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보고서를 꼼꼼하게 살펴주신 두 분의 익명 평가자 들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2021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Abstract .....	1
요 약 .....	3
<b>제1장 서론 .....</b>	<b>9</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1
<b>제2장 코로나19와 청년노동시장 논의 .....</b>	<b>19</b>
제1절 경제위기와 청년노동시장 .....	19
제2절 우리나라 청년노동시장의 특성 .....	24
제3절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	31
제4절 소결 .....	37
<b>제3장 연구 설계와 분석대상의 주요 특성 .....</b>	<b>43</b>
제1절 연구 설계 .....	43
제2절 분석대상의 주요 특성 .....	51
<b>제4장 코로나19로 일하는 청년은 줄었는가? .....</b>	<b>73</b>
제1절 고용률 .....	73
제2절 일시휴직 .....	89
제3절 소결 .....	99

---

<b>제5장 코로나19 시기, 일하는 청년은 왜 줄어들었는가?</b> .....	<b>105</b>
제1절 최근 실직 경험 .....	106
제2절 최근 입직 경험 .....	121
제3절 소결 .....	137
<b>제6장 코로나19로 일하지 않는 청년은 무엇을 하나?</b> .....	<b>141</b>
제1절 적극적 구직자 .....	142
제2절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 .....	154
제3절 비경제활동인구의 평소 활동상태 .....	165
제4절 소결 .....	178
<b>제7장 결론</b> .....	<b>183</b>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	183
제2절 정책적 함의 .....	187
제3절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언 .....	191
<b>참고문헌</b> .....	<b>193</b>
<b>부록</b> .....	<b>199</b>
부록 1 주요 기술 통계 및 분석 결과 .....	199

# 표 목차



〈표 3-1〉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	49
〈표 3-2〉 세부 집단의 조작적 정의 .....	50
〈표 3-3〉 분석대상 청년의 인구사회적 특성 .....	53
〈표 3-4〉 2017~2020년 연령집단별 인구사회적 특성 일자리 특성 .....	54
〈표 3-5〉 2017~2020년 연령집단별·성별 일자리 특성 .....	57
〈표 3-6〉 분석대상 청년의 일자리 특성 .....	59
〈표 3-7〉 분석대상 청년의 전공별 일자리 특성 .....	66
〈표 4-1〉 청년 일시휴직자의 사유별 빈도 .....	96

## 부표 목차

---

〈부표 3-1〉 정규교육기관 졸업 청년의 전공계열 분포 .....	199
〈부표 3-2〉 정규교육기관 졸업 청년의 졸업 후 경과 기간 분포 .....	199
〈부표 3-3〉 분석대상 근로 청년의 일자리 특성 .....	200
〈부표 4-1〉 고용 여부에 대한 연령집단별·모델별 회귀분석 결과 .....	203

#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	14
[그림 2-1] 2000~2020년 주요 고용지표 동향 .....	29
[그림 2-2] 본 연구의 틀 .....	38
[그림 3-1] 일일 확진자 수 추세 .....	45
[그림 3-2] 졸업 후 경과 기간에 따른 학력별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비율 .....	63
[그림 3-3] 졸업 후 경과 기간에 따른 학력별 임시직 비율 .....	64
[그림 3-4] 졸업 후 경과 기간에 따른 학력별 파트타임 종사자 비율 .....	65
[그림 4-1] 연령집단별 고용률 .....	74
[그림 4-2] 고용 여부에 대한 연령집단별·모델별 회귀분석 계수 .....	76
[그림 4-3] 연령집단별 2017~2019년 고용률 .....	77
[그림 4-4] 청년층의 2017~2019년 평균연령 .....	79
[그림 4-5] 노년층의 2017~2019년 평균연령 .....	80
[그림 4-6] 성·학생 여부별 고용률 .....	82
[그림 4-7] 고용 여부에 대한 성·학생 여부별 회귀분석 계수 .....	84
[그림 4-8] 졸업 후 경과 기간별 고용률 .....	85
[그림 4-9] 고용 여부에 대한 졸업 후 경과 기간별 회귀분석 계수 .....	87
[그림 4-10] 교육계열별 고용률 .....	88
[그림 4-11] 고용 여부에 대한 교육계열별 회귀분석 계수 .....	89
[그림 4-12] 성·졸업 여부별 일시휴직자 비율 .....	91
[그림 4-13] 일시휴직에 대한 성·졸업 여부별 회귀분석 계수 .....	92
[그림 4-14] 졸업 후 경과 기간별 일시휴직자 비율 .....	93
[그림 4-15] 일시휴직에 대한 졸업 후 경과 기간별 회귀분석 계수 .....	94
[그림 4-16] 교육계열별 일시휴직자 비율 .....	97
[그림 4-17] 일시휴직에 대한 교육계열별 회귀분석 계수 .....	98
[그림 5-1] 전직 직업별 최근 실직 청년의 수 .....	107
[그림 5-2] 전직 직업별 최근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청년의 수 .....	108
[그림 5-3] 전직 산업별 최근 실직한 청년의 수 .....	110

[그림 5-4] 전직 종사상 지위별 최근 실직 청년의 수 .....	111
[그림 5-5] 전직 사업장 규모별 최근 실직 청년의 수 .....	112
[그림 5-6] 성·졸업 여부별 최근 실직자 비율 .....	113
[그림 5-7] 최근 실직 경험에 대한 성·졸업 여부별 회귀분석 계수 .....	114
[그림 5-8] 최근 비자발적 실직 경험에 대한 성·졸업 여부별 회귀분석 계수 .....	115
[그림 5-9] 남녀 청년의 졸업 후 경과 연수별 최근 실직 경험률 .....	116
[그림 5-10] 최근 실직 경험에 대한 성별, 졸업 후 경과 연수별 회귀분석 계수 .....	117
[그림 5-11] 최근 비자발적 실직 경험에 대한 성별, 졸업 후 경과 연수별 회귀분석 계수 .....	118
[그림 5-12] 교육계열별 최근 실직 경험률 .....	119
[그림 5-13] 최근 실직 경험에 대한 교육계열별 회귀분석 계수 .....	120
[그림 5-14] 직업별 최근 입직자 수 .....	122
[그림 5-15] 산업별 최근 입직자 수 .....	123
[그림 5-16] 종사상 지위별 최근 입직자 수 .....	124
[그림 5-17] 사업장 규모별 최근 입직자 수 .....	125
[그림 5-18] 전일제 여부별 최근 입직자 수 .....	126
[그림 5-1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의 최근 입직자 수 .....	127
[그림 5-2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의 직종별 최근 입직자 수 .....	128
[그림 5-2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의 종사상 지위별 최근 입직자 수 .....	129
[그림 5-2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의 전일제 여부별 최근 입직자 수 .....	130
[그림 5-23] 성·졸업 여부별 최근 입직 경험률 .....	131
[그림 5-24] 최근 입직 경험에 대한 성·졸업 여부별 회귀분석 계수 .....	132
[그림 5-25] 졸업 후 경과 기간별 최근 입직 경험률 .....	133
[그림 5-26] 최근 입직 경험에 대한 졸업 후 경과 기간별 회귀분석 계수 .....	134
[그림 5-27] 교육계열별 최근 입직 경험률 .....	135
[그림 5-28] 최근 입직 경험에 대한 교육계열별 회귀분석 계수 .....	136
[그림 6-1] 연령집단별 적극적 구직자 비율 .....	143
[그림 6-2] 적극적 구직에 대한 연령집단별 회귀분석 계수 .....	144



[그림 6-3] 성·졸업 여부별 적극적 구직자 비율 .....	145
[그림 6-4] 적극적 구직에 대한 성·졸업 여부별 회귀분석 계수 (경제활동인구 대상) ...	146
[그림 6-5] 졸업 후 경과 기간별 적극적 구직자 비율 .....	148
[그림 6-6] 적극적 구직에 대한 졸업 후 경과 기간별 회귀분석 계수 .....	149
[그림 6-7] 교육계열별 적극적 구직자 비율 .....	150
[그림 6-8] 적극적 구직에 대한 교육계열별 회귀분석 계수 .....	151
[그림 6-9] 노동 경험 여부별 실업자 비율 .....	152
[그림 6-10] 실업에 대한 노동 경험 여부별 회귀분석 계수 (경제활동인구 대상) .....	153
[그림 6-11] 연령집단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	155
[그림 6-12] 비경제활동 여부에 대한 연령집단별 회귀분석 계수 .....	156
[그림 6-13] 성·졸업 여부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	158
[그림 6-14] 비경제활동 여부에 대한 성·졸업 여부별 회귀분석 계수 .....	159
[그림 6-15] 졸업 후 경과 기간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	160
[그림 6-16] 비경제활동 여부에 대한 졸업 후 경과 기간별 회귀분석 계수 .....	161
[그림 6-17] 교육계열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	162
[그림 6-18] 비경제활동 여부에 대한 교육계열별 회귀분석 계수 .....	163
[그림 6-19] 노동 경험 여부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	164
[그림 6-20] 비경제활동 여부에 대한 노동 경험 여부별 회귀분석 계수 .....	165
[그림 6-21] 성·졸업 여부별 취업교육 및 취업준비 중인 비율 .....	167
[그림 6-22] 취업교육 및 취업준비에 대한 성·졸업 여부별 회귀분석 계수 .....	168
[그림 6-23] 졸업 후 경과 기간별 취업교육 및 취업준비 중인 비율 .....	169
[그림 6-24] 취업교육 및 취업준비에 대한 졸업 후 경과 기간별 회귀분석 계수 .....	170
[그림 6-25] 교육계열별 취업교육 및 취업준비 중인 비율 .....	171
[그림 6-26] 취업교육 및 취업준비에 대한 교육계열별 회귀분석 계수 .....	172
[그림 6-27] 성·졸업 여부별 유휴 인구 비율 .....	173
[그림 6-28] “쉬었음”에 대한 성·졸업 여부별 회귀분석 계수 .....	174
[그림 6-29] 졸업 후 경과 기간별 유휴 인구 비율 .....	175



[그림 6-30] “쉬었음”에 대한 졸업 후 경과 기간별 회귀분석 계수 .....	176
[그림 6-31] 청년층 교육계열별 쉬고 있는 인구 비율 .....	177
[그림 6-32] “쉬었음”에 대한 교육계열별 회귀분석 계수 .....	178

# 부도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도 4-1] 연령집단별 일시휴직자 비율 .....	205
[부도 4-2] 일시휴직에 대한 연령집단별 회귀분석 계수 .....	206
[부도 5-1] 전직 산업별 최근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청년의 수 .....	207
[부도 5-2] 전직 종사상 지위별 최근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청년의 수 .....	208
[부도 5-3] 전직 기업 규모별 최근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청년의 수 .....	209





## Abstract

### The Youth Labor Marke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roject Head: Ham, Sunyu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working life of the youth popul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youth labor market is known as vulnerable to economic downturns and less resilient than any other age group in previous recessions.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s framework applied to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microdata,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youth population is more affected by the Covid-19 pandemic than other working-age groups. The employment rates of youth decreased both in the first and the third waves of the pandemic. During the first wave (March to April 2020), face-to-face service sectors, where young workers were widely employed, contributed to decreased youth employment. However, by the third wave (December 2020), the hiring freeze on regular positions led young graduates seeking decent jobs to stay out of the labor market. Among the youth population, mal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graduates who left school 2 to 4 years earlier showed the highest decrease in employment. This study also found that gender differences in reacting to th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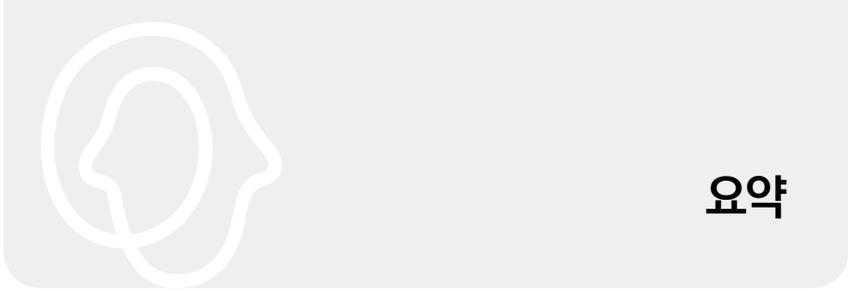
---

Co-Researchers: Lee, Wonjin · Kim, Jiwon

## 2 코로나19의 확산과 청년노동시장 변화

recession. During the pandemic, while the male youth stayed out of the labor market and invested in human capital such as preparing for employment and hiring exams, the female youth returned to the labor market, actively seeking jobs. This report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youth labor market and policy based on these findings.

**Keyword :** COVID-19, Youth, Labor market, Recession,  
School-to-work Transition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전의 경제위기 당시 노동시장이 겪은 충격은 주로 주변적인 일자리에 있는 청년과 여성에게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는 이러한 기존 경제위기의 특성과 더불어 청년층이 생계를 위하여 주로 종사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청년층이 입는 고용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2020년 월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전의 고용추세를 기반으로 코로나19가 청년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3~4월의 효과만을 다루는 것과 달리 본 연구는 2020년 12월까지 보다 장기화한 영향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청년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청년층 내에서도 이행과정과 성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고, 청년층 내 이질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 2. 주요 연구결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하여 더 큰 고용률 감소를 겪었으며, 코로나19 1차 유행 때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한 하반기에 고용률 감소폭이 더 커졌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시기는 3차 유행기에 해당하는 12월로 2.5%포인트가량이 감소하였다.

청년층 내에서도 가장 큰 고용률 감소폭을 나타낸 집단은 여성인 학생

#### 4 코로나19의 확산과 청년노동시장 변화

들과 학교를 마친 남성 졸업자였다. 여성 학생들은 1차 유행(3~4월) 당시 고용률이 3.3% 감소하였으나 이후에는 유의한 고용률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남성 졸업자들은 1차 유행 시에는 유의한 고용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후 고용이 감소하면서 3차 유행(12월) 시 고용률이 2.7%포인트 감소하였다. 학교를 졸업한 남성 청년 중에서도 졸업 후 2~4년이 경과한 청년들은 2020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률이 5.9%포인트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으며, 전공별로는 본래 고용률이 낮았던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고용률 감소폭이 컸다. 특히 사회과학의 경우 12월경 고용률이 15.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용률 감소가 실직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고용 축소에 기인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코로나19의 주요 유행기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직, 소규모 사업체의 실직 증가가 두드러져,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자리에서 실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에서 이러한 실직의 영향을 받는 집단은 주로 여성 청년들이었다. 남성 청년들은 최근 실직의 유의한 증가가 관측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입직 양상을 살펴보면, 역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서비스 판매 종사자와 전문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입직자 감소가 컸다. 청년층 내에서도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자리에 주로 분포한 여성 청년들과 학생인 남성 청년들이 주로 코로나19 주요 확산기에 입직이 감소하였다. 한편, 2020년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상용직과 30~99인 기업의 고용 감소 역시 관측되며, 졸업 후 2~4년 경과한 청년 남성들의 경우 하반기인 12월경 신규 고용이 2.2%포인트 감소하여, 주로 상용직과 중견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 감소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시기

고용이 오히려 늘어난 일자리도 있는데, 파트타임과 단순노무직, 그리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분야였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줄어든 일자리가 주변적 일자리로 대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공공일자리로 보이는데, 이들 일자리 역시 단순노무직과 파트타임의 비율이 높았다.

청년의 평소 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내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중인 미취업자의 비중은 크게 늘지 않아, 많은 수가 경제위기 시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졸업 후 1년 이내인 남성 청년들은 오히려 적극적 구직자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반면, 학교를 졸업한 여성 청년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구직자 비율이 유의하게 늘어났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늘어난 미취업 청년의 대다수는 비경제활동인구, 그중에서도 취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12월 고용률이 5.9%포인트 감소한 집단인 졸업 후 2~4년이 지난 남성 청년들은 취업준비 중인 비율이 4.9%포인트 늘어나, 대부분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으나, 구직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결론 및 시사점

코로나19가 청년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대면서비스 관련 일자리 감소에 따른 실직자 증가와 신규 입직자 감소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들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학생인 청년들과 여성 청년들의 고용 감소가 코로나19의 1차와 3차 확산기에 관측되었다. 다만, 이들 집단은

다시 노동시장 밖으로 나오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기보다는 구직 활동을 이어가거나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인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둘째,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하반기 신규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졸업 후 2~4년 경과한 남성 청년들의 고용 감소가 확인되었다. 이들 집단은 미취업자 비율이 높아졌음에도 적극적 구직자의 비율은 높아지지 않고 대부분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 준비 중이었다. 그 결과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신규 입직자가 누적되면서 향후 한정된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되며, 관련한 문제가 점차 크게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청년층에게 괜찮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공공부문에서 신규 채용을 확대하였으나, 대부분 단순노무직, 임시직, 파트타임으로 주변적 일자리였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으며 기다리는 청년층이 주된 일자리로 가기까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괜찮은 공공일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둘째, 코로나19로 주로 타격을 입은 학생 청년들과 여성 청년들의 주변부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로 예술, 서비스 분야를 전공한 청년들 중에서 일시휴직자가 증가하였는데 이들 대다수가 임시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현재 고용보험의 체계하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위기에 취약한 이들을 고용보험 같은 사회적 안전망에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 코로나19, 청년, 노동시장, 경제위기, 이행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마스크 없던 일상이 쉽사리 떠올려지지 않는다. 2020년 1월 20일 첫 번째 국내 감염 사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예측 불가능하게 강력하고도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 2021년 4월 9일 현재까지 총 108,269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 중 1,764명이 사망에 이르렀다<sup>1)</sup>. 우리나라에서는 4월과 8월, 12월 3번의 유행기를 겪었으며, 12월 3차 유행 시 하루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을 정도로 확산된 바 있다.

이 같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봉쇄정책과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시행되었다. 학교를 비롯한 주요 시설들이 운영을 중단하고,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등 이동을 자제하고 대면 접촉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지난 1년간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20년 한 해 동안 서울지역 초등학생의 평균 등교 일수는 42일에 불과하였으며<sup>2)</sup>, 수도권외의 경우 주요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무려 두 달 넘도록 지속되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이 같은 노력은 불가피하게 경제위기로 이어졌다. 지난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3.5%를 기록하였으며(World Bank,

1) 김정아. (2021.4.9.). 671명 추가, 총 108,269명! 4월 9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디지털조선일보.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1/04/09/2021040980023.html](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1/04/09/2021040980023.html)에서 인출

2) 김수현. (2021.3.16.). 작년 서울 초등학생 42일만 학교 갔다... 전남의 1/3 수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5158700530?input=1195m>에서 인출

2021, p. 4), 인구규모 대비 유행 수준이 높지 않았던 우리나라 역시 마이너스 성장 국면을 피하지 못하였다. 유행 초기에는 감염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여행 및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았으나 장기화 하면서 무역 둔화 등의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가 전 산업에 걸쳐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다른 어느 침체에 비해서도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IMF, 2020).

코로나19 위기는 모든 이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쳤으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공평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다룬 여러 선행연구는 부정적인 노동시장 성과가 특히 취약 집단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힌다. 여성과 교육수준이 낮은 노동자,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번 코로나19의 위기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Beland, Brodeur, & Wright, 2020; Cho & Winters, 2020; Collins, Landivar, Ruppner, & Scarborough, 2021; Cowan, 2020; Lemieux, Milligan, Schirle, & Skuterud, 2020; Montenegro et al., 2020). 청년층은 이번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 계층 중 하나로 꼽힌다(OECD, 2020).

이처럼 청년층이 위기에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은 이전의 여러 경제 위기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황수경 외, 2010; Bell & Blanchflower, 2011). 경제위기 시 기업은 현재 재직 중인 사람들을 내보내기보다는 신규 고용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학교 졸업 이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청년층은 적절한 시기에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직 기간이 길어지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진입할 경우 이후 상충효과로 남아 부정적 영향을 장기적으로 경험하게 될 수 있다(안주엽, 홍서연, 2002; Raaum & Røed, 2006; Schmillen & Umkehrer, 2017).

더불어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이미 안착한 중장년에 비하여 임시직, 비정규직 등 애초에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불안정 노동자들은 이전의 경제위기에서도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집단이었다(황수경 외, 2010). 더불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청년층이 생계를 위하여 주로 종사하는 대면서비스 업종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도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가 청년층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 예상됨에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청년층의 고용을 다룬 일부 연구들이 있었으나(김종진 외, 2020; 남재욱, 서복경, 김영빈, 황효진, 2020), 대부분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에 의존하고 있어서, 전체 고용위기에서 청년의 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회고적인 응답에 기반하므로, 실제 노동시장 내에서 얼마나 큰 규모로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세부 집단별 차이는 어떠한지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일 경험이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규모와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를 모수로 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전부터 반복해서 조사되어온 객관적 자료로 관측한 이전의 추세를 기반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노동시장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코로나19 이전부터 매월 반복해서 조사해온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가능한 한 상세히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래 두 가지 맥락을 염두에 두었다.

먼저, 코로나19 1차 유행기의 영향과 더불어 유행이 장기화함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3~4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시 고용 감소와 일시 휴직자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후 그 고용 충격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에서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다룬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서 1차 충격과 회복, 그리고 장기화 양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노동시장 내의 이질성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하였다. 최근 청년기본법 제정 등 정책 대상으로서 청년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19~34세로 정의되는 청년층은 다양한 이행과정을 포괄하는 만큼, 하나의 집단으로 묶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령, 정규교육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시장과 정규교육을 마친 상태에서 참여하는 첫 일자리의 의미와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행과정의 특성상 단일한 연령기준을 적용할 경우 군복무로 인한 남성과 여성 청년의 다른 이행 단계와 경험을 포괄하지 못하게 된다. 청년층 내에서도 남녀 간 노동시장 이행과정의 이질성이 크다는 점은 선행연구들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안주엽, 홍서연, 2002; 오유진, 김교성, 2019; 이상직, 김이선, 권현지,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을 정규교육을 마친 이들과 마치지 않은 이들로 나누어보고, 성별, 교육계열 등에 따라서 노동시장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맥락에 대해서는 제3장 문헌고찰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아래 세 가지 틀로 코로나19 이후 청년노동시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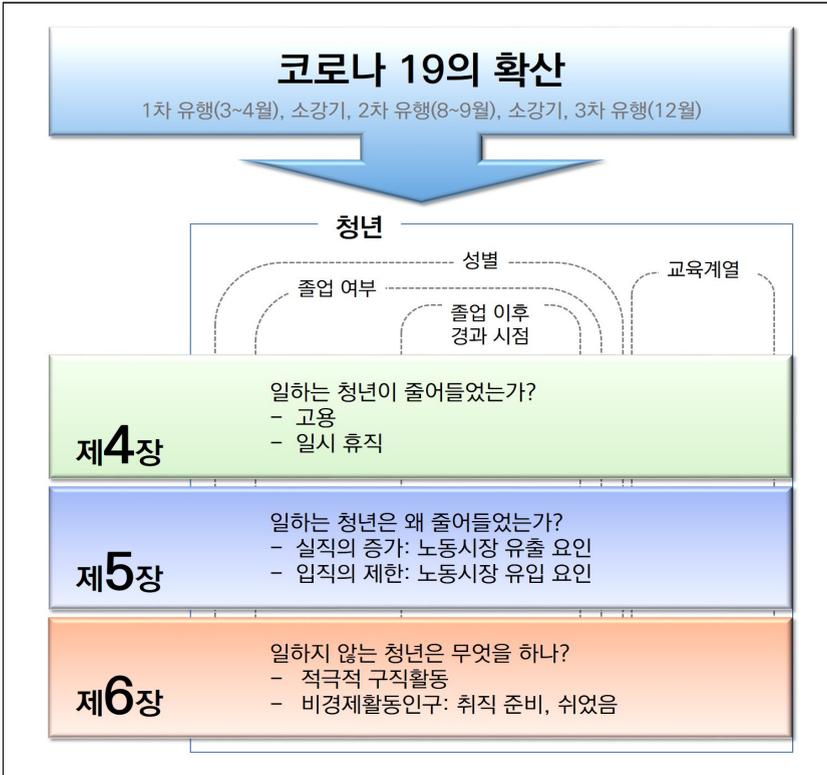
양상을 검토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청년노동시장의 고용률과 일시휴직자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고용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 증인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노동시장 영향을 가장 명료하게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률 감소폭이 여타 연령계층에 비하여 청년층에서 더 컸는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청년층 내에서도 어떠한 집단에서 고용률 감소가 두드러졌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부진이나 일감 부족에 따른 일시휴직자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Ham, 2021; Montenovio et al., 2020). 이들은 고용된 것으로 분류되나, 실제로는 일을 하지 못한 이들이다. 이러한 일시휴직자의 양상 역시 제4장에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따른 청년층의 고용률 감소가 실직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신규 채용의 감소에 기인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청년 노동시장과 관련한 논의들은 대부분 청년층의 실직보다는 입직의 제약에 주목한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는 입직 제약뿐만 아니라 실직 역시 고용률 감소의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고 있다(남재량, 이철인, 2012). 고용률 감소가 주로 실직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입직의 제약에 기인하는지, 두 요인의 집단 간 이질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정책 대응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만약 고용률 감소가 주로 실직의 증가에 기인한다면, 실업 자체를 막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입직 기회의 제약으로 발생한다면,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경제 활동인구 조사의 입직 시점과 실직 시점 정보를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최근 입직과 최근 실직의 양상을 검토하였다.

## 14 코로나19의 확산과 청년노동시장 변화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출처: 저자 직접 작성.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들이 어떠한 활동상태를 나타내는지를 제6장에서 확인하였다. 교육, 훈련을 받거나 고용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니트(NEET)로의 이행은 전 세계적으로 최근 10여 년간 청년노동시장의 주요한 정책 과제가 되었다(Carcillo et al, 2015). 청년 니트의 규모는 특히 경제위기를 계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니트 중에서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활동 니트(inactive NEET)의 비중이 두드러진다(김종욱,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의 규모와 더불어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와 이들의 평소 활동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변화한 청년의 일과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매월 15일 이후 일주일간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최근 1년 이내에 일어났으며, 월별로 극적인 양상을 나타냈기에, 대부분의 연구는 월별, 주별, 때로는 일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주로 월별로 조사되는 자료를 활용한다. 미국에서는 CPS가, 한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많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2017년 이래로 매월 노동시장이 변화해온 양상에 비추어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 직후인 2020년 3~4월 이외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청년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를 확인해보고자, 2020년 12월 자료까지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청년은 만 15~34세를 의미한다. 청년을 정의하는 연령은 제도마다, 연구마다 상이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만 15세 이상부터,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비롯한 대부분의 청년 정책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 34세 이하의 이들을 청년으로 보았다. 다만 실제 분석에서는 청년층 전체를 하나의 집단을 묶은 분석은 제한적으로만 하였다. 대신 청년층 내에서 이질적인 특성을 띠는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자세한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은 제3장에 수록하였다.





## 제2장

### 코로나19와 청년노동시장 논의

제1절 경제위기와 청년노동시장

제2절 우리나라 청년노동시장의 특성

제3절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제4절 소결



## 제 2 장    코로나19와 청년노동시장 논의

본 장에서는 코로나19가 청년층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제1절에서는 주요 경제위기 시에 청년노동시장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제2절에서는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최근 청년노동시장 관련 논의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코로나19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본다. 코로나19가 주로 어떠한 집단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지난 1년간 선행연구들이 어떠한 식별전략을 통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확인하였는지를 살펴본다.

### 제1절 경제위기와 청년노동시장

경제위기는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시장 내에서도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중에서도 본 연구가 청년층에 주목하는 까닭은 경제위기 시 이들이 경험하는 일자리 상실의 규모가 크며, 회복이 더디고,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느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러하듯,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들의 일자리는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캐나다에서 2월 대비 5월의 청년 일자리는 33% 줄어들었으며, 미국에서 10대 실업률은 2월에서 5월 사이 7.7%에서 25.2%로 급증하였다(OECD, 2020, p.43).

경제위기가 청년층에게 미치는 즉각적이면서 장기적인 영향은 이미 여러 번의 경제위기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된 바 있다. Bell and Blanchflower

(2011)은 미국과 영국의 마이크로데이터로 청년 실업을 분석한 결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6~24세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실업확률은 25세 미만 청년은 12.29%, 25~34세는 3.89%로 나타나, 장년층과 중년층의 0.71%와 1.57%에 비하여 상당히 높았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중장년층과는 달리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에 비하여 2009년과 2010년에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경제위기의 장기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Bell & Blanchflower, p.250). OECD(2020, p.43)는 세계 금융위기 당시 OECD 국가들에서 30세 미만의 일자리가 10분의 1가량 줄어들었으며, 2017년에 이르러서야 2008년 이전 수준의 청년 실업률로 복귀하였다고 보고한다. 위기 회복에 10년이 걸린 셈이다.

## 1. 경제위기가 청년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와 결과

위기 시 청년 일자리가 더 많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까닭은 기업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고하며 채용을 제한하는 이들이 청년이기 때문이다. 가령, 내부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은 일반적으로 인적자본의 수준이 낮을 것이며, 일반적인 숙련 수준도 낮다. 기업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이들이 먼저 나가는 정책(last-in first-out, LIFO)이 없더라도 경제위기 시에는 젊은 노동자들에 대한 숙련 투자비용을 더 높게 측정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유동성 제약으로 젊은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일시 해고(laid-off)할 가능성 역시 커지게 된다(Bell & Blanchflower, 2011, p.242). 외부 노동시장에서도 젊은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본 경험이 적어서 성인 노동자들에 비하여 구직활동이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위기 시 기업에서는 경력자들을 위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초직

자는 계속 고용되지 못하는 경력의 덫(experience trap)에 빠지게 된다 (ibid, p.242). 이처럼 여러 차원에서 경제위기 시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쉽사리 진입하지 못하고, 쉽게 유출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노동시장 진입과 유출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경기침체 시 어떠한 영향이 우세한지에 대한 논의도 정리되지 않아 보인다. 실업과 경기변동의 특성에 관해서는 실업으로의 유입이 경기와 무관하며, 실업으로부터의 유출, 즉 입직이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업률의 변동은 입직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논의가 있다. 반면, 경기침체 시 해고(firing)나 일시해고(layoffs) 같은 실업으로의 유입이 늘어나고, 경기가 호전될 시에는 그 유입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실업으로의 유입이 실업률과 주요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남재량, 이철인, 2012). 이처럼 입직과 실직이라는 노동시장 유입과 유출은 모두 고용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만, 둘 중 어떠한 방향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재량과 이철인(2012)이 구직확률뿐만 아니라 실직확률의 경기변동에 따른 움직임이 청년실업률을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통상 청년노동시장 정책이 노동시장의 진입, 즉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으나, 실제 위기 시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되는 요인 역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제위기 시 청년노동시장을 주목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청년기의 실업 경험이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청년층의 실업 스펠(spell)은 취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실업이 될 확률을 높인다. 안주엽과 홍서연(2002)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년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정규교육 이수 이후 미취업 상태가 경과할 수록 미취업 상태를 탈출할 가능성이 작아지는 경과 의존성을 확인한 바 있다. Raaum and Røed(2006) 역시 노르웨이의 1993~2020년

노동시장 행정데이터에서 추출한 1961~1974년생의 25~38세 사이의 노동 이력 및 개인 특성에 관한 마이크로데이터와 각 지방 노동시장의 거시 데이터를 결합하여 생애 초기 지역 노동시장의 상황이 해당 코호트의 장기 고용 가능성(prospect)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16~19세 당시 나쁜 경기 상황은 이후 성인기 핵심 생산연령(prime-age)이 되었을 때 실업률을 1~2%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 실업이 이후 노동시장 성과에서 상처효과로 남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Raaum and Røed, 2006, p. 206). Schmillen and Umkehrer (2017)도 노동시장 내에서 첫 8년 사이 실업 일수가 하루 증가할 때마다 뒤따른 16년 동안 실업 일수가 0.5일씩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청년기 실업 경험으로 인한 상처효과(scarring effect)는 고령 노동자들에 비하여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Bell & Blanchflower, 2011, p.260).

## 2. 이전의 경제위기와 코로나19의 위기

그렇다면 코로나19의 영향은 이전의 다른 경제위기와 어떻게 같고, 다를까?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 증감 양상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률 감소가 1998년 IMF 구제금융 당시의 경제위기 정도는 아니나, 2003년 카드사태와 2009년 세계 금융위기와 유사한 수준의 고용률 감소가 나타났다(성재민, 2020). 이처럼 고용률 감소폭만 볼 경우 이전의 경제 위기들과 비견되지만,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특정 부문의 구조적 문제에서 시작된 다른 경제위기와는 달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특히

대면서비스 관련 직종과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며, 교육서비스업의 상당수가 전문가라는 점에서 이들의 고용 감소도 눈에 띈다(성재민, 2020, p.41). 이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취업자 수 감소가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난 부문이 건설업, 제조업 등이었던 점과는 대조적이다(김문정, 2021, p. 10).

이처럼 코로나19의 위기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지만, 이로 인한 고용 감소를 경험하는 집단이 주로 여성과 임시직이라는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하다. IMF 구제금융 당시 고용률 감소는 임금근로자, 그중에서도 상용직 일자리에 가장 크게 나타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용 감소는 주로 비임금근로자와 임시·일용직에서 현저하였다(황수경 외, 2010).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고용 구조를 핵심인력 위주로 축소하고 아웃소싱과 비정규직 채용을 통하여 상시로 고용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이후 경제위기는 주로 주변적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 임시·일용직, 청년층에 집중된 것이다(황수경 외, 2010, p. 20). 코로나19의 경우 여성과 청년들이 주로 대면 서비스업이라는 감염병에 취약한 업종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로 주변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고를 겪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이전의 경제위기와 달리 비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장기화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특정 부문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촉발된 이전의 경제위기들과 달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는 비경제적이며 순수하게 외생적인 영향으로 발생했다. (Borio, 2020). 즉,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백신 보급이 확대되어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점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위기다. 경기의 변동이

코로나19의 확산 속도와 백신 공급 등에 달린 만큼 불확실성이 높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높은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보면, 처음 전염병이 확산하기 시작한 초기와 10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은 각기 다르게 작동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여전히 진행 중인 위기를 다루고 있으므로, 상처효과처럼 개인의 생애를 장기간 추적하는 영향을 분석할 수는 없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고용 충격의 양상이 청년층에서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직후인 3~4월의 고용 충격과 더불어 전염병의 영향이 10개월가량 유지되고 있는 연말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는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노동시장의 역동이 다른 연령 집단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 청년층에게 상처효과로 남을 만한 이벤트가 있었는지를 가늠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경제위기 시 줄어든 고용률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실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입직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제2절 우리나라 청년노동시장의 특성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청년노동시장의 주요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청년 노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들이 학교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로 진입하는 이행기에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청년층의 이행기적 특성과 청년층 내 이질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1. 노동시장 이행 경험

청년노동시장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 논의는 학교를 졸업한 뒤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경험이다. 관련 연구들은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얻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첫 일자리의 질과 구직 기간이 향후 노동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문혜진(2013)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998~2008년 자료를 활용하여 정규교육기관을 졸업 혹은 중퇴한 시점을 노동시장 진입시점으로 판단하고, 노동시장 진입 이후 첫 일자리로 이행하는 기간이 1990년대 코호트와 2000년대 코호트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에 첫 일자리로 이행하는 기간이 이전보다 장기화되었으며, 첫 일자리의 질 역시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 면에서 악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첫 일자리를 찾는 데 드는 평균적인 시간은 최근 들어 계속해서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김유빈과 최충(2017)은 그 기간이 12개월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첫 일자리 진입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토록 길어지는 까닭은 첫 일자리가 생애 노동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졸자의 경우 경력 초기 기업의 규모와 고용형태가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이중 노동시장 구조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한요셉, 2017). OECD 주요 국가에서 임시직 일자리는 이후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일자리로 가는 징검다리로 작동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첫 일자리를 임시직으로 시작할 경우 외부 노동시장에 지속해서 머무르게 된다(남재량, 2008; OECD, 2015, p.164). 이처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양질의 첫 일자리 기회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청년층이 추가로 취업준비 활동을 하면서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것이다(김유빈, 최충, 2017).

이처럼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한다는 맥락에서 청년 니트가 주목받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청년 니트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실업 니트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비구직 니트, 즉 비경제활동인구인 니트의 규모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Carcillo et al, 2015, p.16). 비경제활동 니트의 경우 건강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 내에서 직장을 찾는 것을 포기한 실망 실업자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청년 비구직 니트가 점차 장기화하는 양상으로, 장기 비구직 니트가 전체 니트의 70%를 웃돌 정도이다(김종욱, 2017, 103). 한편, 구직 니트 역시 점차 고학력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 평균 고학력자 니트 비율은 16.5%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42.5%에 이른다(OECD, 2016, p.49). 특히 인문사회 계열 대졸자들이 청년 니트화하고 있으며, 이들은 계열별로 가장 낮은 취업률을 나타내기도 한다(김종욱, 2017, p.105).

## 2. 청년층 내 이질성

최근에는 청년기의 노동시장 이행과정과 일자리의 양상이 청년층 내에서도 이질적이라는 점 역시 주목받고 있다. 이상직, 김이선, 권현지(2018)는 4년제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이행 연구에서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 사이에 이질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성 청년은 단기 지연 진입 이력에 속할 가능성이 컸고, 남성의 경우 장기 지연 진입에 속할 가능성이 컸다. 저자들은 이러한 양상이 남성의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압력과 이전 세대의 경험에 근거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더 오래 기다리는 반면, 여성은 괜찮은

일자리나 장기근속에 대한 기대가 낮거나 실업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빨리 들어가거나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이상직 외, 2018, p. 172). 이러한 남녀 간 이질성은 안주엽과 홍서연(2002)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청년층 남성에 비하여 청년층 여성에게서 미취업 상태로부터의 탈출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년층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취업준비 활동에 따른 노동시장 지연 진입보다는 빠른 진입 전략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일자리 진입 이후 일자리의 유지 기간에서도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난다. 청년패널을 활용하여 고졸과 대졸 청년들의 졸업 후 7년 동안의 이행 기간을 관찰한 오유진과 김교성(2019)의 연구에서 여성은 동일한 배열 내에서 유지되는 기간이 더 짧았다. 특히 고졸 여성 청년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더 빈번한 상태이동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 청년들은 남성에 비하여 첫 일자리로의 진입 기간은 짧으나 들어간 일자리를 유지하기보다는 노동시장을 드나드는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청년층 내 남녀 간 이행과정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이 노동시장 내에서 서로 다른 일자리와 조건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김창환과 오병돈(2019)은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인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이미 19.8%가량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남녀 차이는 세부 전공이나 졸업 대학의 순위 같은 인적자본과 관련한 요소로 설명되지 않았다. 즉, 같은 학교의 같은 학과를 졸업한 청년층이라도 남성과 여성은 다른 일자리에 배치되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불평등한 할당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임금격차에 관한 논의들이 대부분 출산과 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시장 내 진입 시점부터 남녀 간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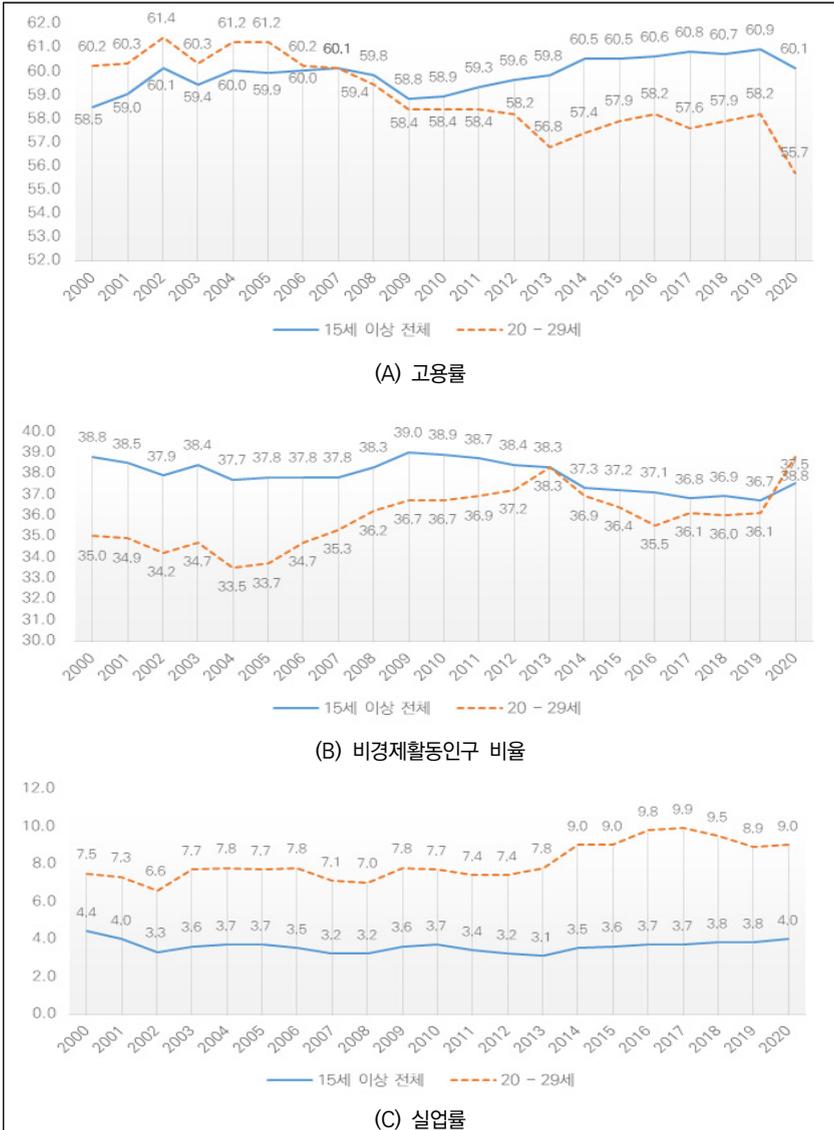
유정미(2017)의 연구 역시 대학을 졸업한 지 24개월 미만의 신규 대졸자에게서 성별 임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차이의 7.1%만이 인적자본으로 설명되었다. 즉, 남녀의 자질 차이보다는 동일한 조건에 대한 다른 보상으로 남녀 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난주(2017)의 연구에서도 남녀 간 임금격차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큰 것으로 관측되는데, 고령층의 경우 대부분의 임금격차가 경력과 같은 인적자본으로 설명되었으나, 15~29세 청년들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임금격차의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단계에 있는 청년층 내에서도 남녀 간에 일자리 분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 3. 청년노동시장 연구의 함의

이 같은 우리나라 청년노동시장 관련 연구들은 본 연구에 몇 가지 함의를 준다. 첫째, 고용률 지표만으로는 청년노동시장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교 졸업 이후 첫 일자리를 찾기까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이들도 있으나,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취업준비를 위하여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실업률 지표는 소극적인 구직활동 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을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자리를 탐색하고 있는 청년층의 상당수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다(안주엽, 홍서연, 2002).

[그림 2-1] 2000~2020년 주요 고용지표 동향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12) 에서 2021.4.12. 인출.

가령 [그림 2-1]을 보면, 2013년 금융위기를 비롯하여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이 있는 고용률(패널 A), 비경제활동인구 비율(패널 B)과는 달리, 실업률(패널 C)은 경기변동의 영향이 거의 관측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률 이외에도 노동시장 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이들의 양상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연령집단으로서 청년보다는 이행과정으로서 청년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청년(youth)노동시장 연구들은 대부분 25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Bell & Blanchflower, 2011; Montenegro et al., 2020), 경우에 따라서는 16~19세 청년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기도 한다(Raam & Røed, 2006). 이처럼 해외 연구는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청년노동시장에 주목하는 맥락은 정규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행기에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대 초반 군복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정규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나오는 시점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다는 점에서 25세 미만으로 제한할 경우 이행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더불어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 청년들의 경우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24세 이하의 연령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일한 연령 구분으로는 청년노동시장 내 남성과 여성의 이행을 고루 살펴보기 어렵다(김창환, 오병돈, 2019; 유정미,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34세 이하의 청년을 살펴보되, 정규교육기관에 재학 중인지, 아니면 졸업했는지를 기준으로 청년층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처럼 청년층 내에서도 학교에 재학 중인지, 아니면 졸업하였는지를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청년노동시장 내에 상당한 이질성이 있음을 확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재학 중인 청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노동시장에 참여

하고 있어, 경제위기 시에 실직을 경험하더라도, 실직자로 분류되기보다는 정규교육에 참여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면서 실직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Bell & Blanchflower, 2011, p.257). 또한 학교 졸업 이후 생애 주된 일자리의 구직 및 실직 양상과 재학 중인 상황에서 경험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의 의미와 양상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함께 묶어서 분석하면 청년들이 경험하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청년층 내 성별 이질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의 양상은 지금껏 자녀 출산, 양육과 관련한 모성 불이익과 견주어 논의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이상직 외(2018)와 안주엽, 홍서연(2002)의 연구 이외에도 여러 연구(김난주, 2017; 김창환, 오병돈, 2019)에서 학교 졸업 직후부터 노동시장 내 남녀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일반적인 담론처럼 자녀 출산이나 양육 같은 가족 내 역할 수행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내 남녀 차이가 나타나기보다는, 노동시장 진입 시기부터 발생하는 남녀 격차로 인하여 결혼 또는 자녀 출산 이후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선택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김창환, 오병돈, 2019). 이러한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의 남녀 차이에 관한 논의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노동시장의 영향이 남녀 간에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였다.

### 제3절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국가별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 두기와 봉쇄정책이 시행되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이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대거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연구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코로나 이전부터 매달 생산되어온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거나 지역별 코로나 감염률의 차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CPS의 월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있다. Beland et al.(2020)는 미국 CPS의 2016년 1월부터 2020년 4월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성, 연령, 결혼상태, 인종, 교육수준과 응답방식(전화응답 또는 대면응답)을 통제하고 주와 시기, 그리고 지역과 시기의 교차항을 고정효과로 포함한 뒤, 코로나 이후 시기에 해당하는 2020년 3월과 4월의 계수를 코로나의 효과로 보았다(Beland et al., 2020, p.10). 이에 더하여 외출제한명령(stay-at-home order)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주의 합계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수 대비 코로나 확진자 수를 통제된 상황에서 외출제한명령이 유의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Beland et al., 2020, p11). 여기서 종속변수는 실업률, 노동시장 참가율, 노동시간, 임금률이다. 분석 결과, 코로나19는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노동시간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줄였다. 특히 젊고(16~34세), 유색인종이며,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노동자 중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경우 그 영향이 작았으며, 동일한 확진자 수를 기록하더라도 외출제한명령이 내려진 주에서 실업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Beland et al., 2020).

Montenovo et al.(2020)의 연구에서도 CPS의 2020년 2월부터 4월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월에 대비하여 20~24세, 히스패닉,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졸업자인 노동자의 3~4월 최근 실업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최근 실업은 주로 대면 업종과 원격 근무가 불가능한 업종에 집중되었다. 더불어 분해분석을 통하여 인종 간, 출신지역 간, 교육수준 간,

성별 간 차이의 설명 요인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대부분의 차이가 코로나 이전에 원격 근무가 더 원활한 업종에 분리되어 종사하고 있다는 점으로 설명되었다(Montenovo et al., 2020). 다만, 남성과 여성의 코로나19 이후 실업 경험의 차이는 이러한 직업적 분절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Cowan(2020)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CPS 자료를 활용하되, CPS 자료가 같은 대상자에게 4번 연속된 달을 조사하고, 다음 8개월 동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2월과 4월 모두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노동상태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30세 미만 청년과 60세 이상 노년층은 2월에 일을 했었다는 조건하에서 4월에 일할 가능성이 작았다. 이처럼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낮아진 고용률은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분포된 직업과 산업에 의하여 대부분 설명되었다. 노년층의 특히 낮은 고용률이 주로 노동력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저자들은 고령자들이 바이러스에 따라 높아진 위험으로 인하여 노동 공급을 줄였을 것으로 짐작하였다(Cowan, 2020, p.2).

그 외에도 동일한 자료원과 유사한 연구 설계(전년 동월 대비 차이에서 1~2월의 차이를 빼는 이중차분형태의 연구)에서도 역시 젊은 연령층, 저학력과 가족의 소득이 낮은 이들(Cho & Winters, 2020)과 라틴계(Fairlie, Couch, & Xu, 2020)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감소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성, 특히 엄마들의 노동시간(Collins et al., 2021)과 고용률(Landivar, Ruppner, Scarborough, & Collins, 2020)이 유의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밝혔다. 미국의 CPS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캐나다의 노동력조사를 활용한 Lemieux et al.(2020)의 연구 역시 저소득, 대면 일자리, 젊은 노동자, 시간제 근로자, 비노조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주로 받았다.

대부분의 연구가 2020년 4월의 초기 효과에 집중하는 반면, Lee, Park, and Shin(2021)의 연구는 CPS 자료를 활용하여 2020년 11월 코로나19가 장기화한 상황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20년 4월의 영향은 집단별로 상당히 불공평하였으나, 2020년 11월에 이르러서는 인구사회적 집단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Lee et al., 2021, p.14). 가령 2020년 4월경 여성의 영향이 남성에 비하여 유의하게 컸으나, 11월경에는 남녀 간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인종별로는 4월 당시 히스패닉과 아시안이 주로 영향을 받았으나 이들은 빠르게 회복했으며, 흑인의 경우 회복세가 느리다는 점은 확인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산업과 직업, 지역의 감염률과 정책을 통제하고도 유의하였다. 연령 역시 4월에는 젊은층에서 가장 불공평한 영향을 받았던 반면, 11월에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관측되지 않았다(Lee et al., 2021, p.14).

이탈리아에서 기업들은 관련 공공기관과 이탈리아 노동, 사회정책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olicy)에 의무적으로 신고(CICO, Compilazione Integrata delle Comunicazioni Obbligatorie)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 사항에는 각 고용 계약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 그리고 종료 이유(주로 해고, 계약기간 종료, 자발적 퇴사)와 계약의 종류(무기계약, 계약, 전일제, 파트타임), 상세 직업 코드와 개인의 성별, 출생 연도, 지역, 교육수준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러한 행정데이터를 활용하면, 매주 고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Casarico and Lattanzio(2020)는 이 행정자료의 2009년부터 2020년 1분기 표본의 활동상태와 직업 종료 내역을 살펴보았다. 이때 코로나19의 영향은 2020년 고용에서 2017~2019년 평균 고용의 값을 빼고 2017~2019년의 값으로 나누어 변화율을 구하였다. 이러한 변화율을 성, 연령, 지역, 그리고 계약의 종류, 교육수준, 부문(필수 또는 비필수 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Casarico & Lattanziop, pp.160-161). 연구 결과, 코로나 19가 시작된 2020년 9주째부터 고용이 줄어든다. 반면, 해고와 사직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12주 차부터 2017~2019년 대비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이탈리아 정부에서 실시한 해고 유예(firing freeze)와 단시간 일자리 지원금(Short-time work compensation schemes)의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에 따른 영향이었다. 단시간 일자리 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으나, 단시간 근로로 인하여 전일제 고용보다 적게 일하게 된 이들에 대한 지원금이다. 이러한 정책적 개입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면서 해고와 사직은 감소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동안 직업을 잃을 위험이 있는 이들은 이전의 경제위기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젊고, 임시직이며, 낮은 숙련 수준을 나타내는 이들이었다(Casarico & Lattanzio, 2020).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직업별 특성 차이나 지역 간 감염률 차이 등으로 확인하는 연구들도 있다. Coates, Cowgill, Chen, and Mackey(2020)는 호주에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직업, 산업별로 얼마나 신체적으로 대면해야 하는지를 지수화한 정보를 활용하여,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친 영향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O\*Net의 직업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물리적 근접성(physical proximity) 점수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가령 미술가(fine artist)의 경우 0점에 가까운 점수를, 물리치료사(physical therapists)의 경우 100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물리적 근접성 점수를 활용하여 가장 타격을 입은 산업과 직업군을 구분하고 해당 직업군에 2020년 2월 코로나 직전 종사자 규모를 토대로 코로나 충격의 규모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폐쇄(shutdown)와 거리 두기로 인하여 14~26%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비스업(hospitality industry)

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젊은 근로자와 저소득층, 여성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Coates et al., 2020, p.19).

우리나라에서는 Aum, Lee, and Shin(2020)이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2020년 1~3월 자료를 활용하여 2월 18일 이후 시작된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다. 신천지 집단 감염 이전 우리나라에서 확진자의 숫자는 30명에 불과하였으나, 31번 환자 이후 2월 29일까지 무려 3,150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났으며, 이 중 86.4%가 대구 경북의 확진자였다(Aum et al., 2020, p.2). 저자들은 이처럼 1차 대유행이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된 사실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1월 대비 2월 중순 이후 고용률의 차이가 이의 지역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가 없었음에도 인구 천 명당 확진자 수가 한 명 늘어날 때 지역 고용이 2~3%가량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국과 영국의 5~6%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고용 감소가 주로 소규모 사업체, 숙박, 식음료, 교육, 부동산, 운수업 등에서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집단별로는 학력수준이 낮으며, 젊고, 낮은 임금을 받는 직종에 종사하며, 임시직 등에서 더 높은 고용률 감소를 나타냈다. 이처럼 취약 계층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은 여러 국외 연구와 일치하는 양상이다(Aum et al., 2020).

최근까지의 대략적인 실증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2020년 4월 코로나19 발생 당시 초기 효과에 집중하는데, 이 시기 주로 젊은 연령층, 즉 청년층과 여성,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저학력, 낮은 숙련 수준을 나타내는 이들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의 특성별로는 대면서비스를 하는 재택 근무 가능성이 낮은 산업과 직업,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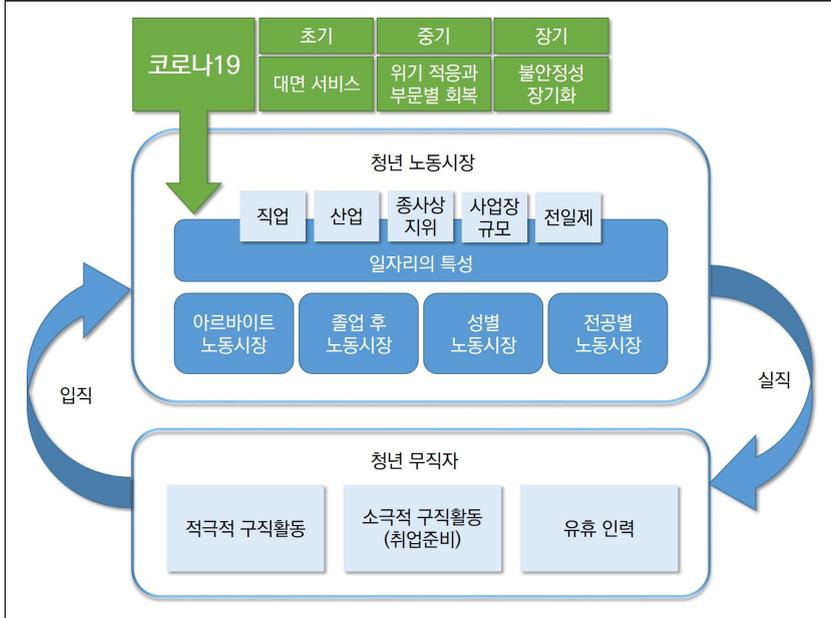
임시직에서 고용률이 유의하게 줄어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나 분석 자료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되었다. 한편, 코로나19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효과의 집단별 차이는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장기 효과의 양상과 비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경제위기 시 청년노동시장에 관한 논의와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직후 수행된 코로나19가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청년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해볼 수 있었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그림 2-2]와 같다.

첫째로 경제위기 시 청년층이 경험하는 노동시장의 부정적인 성과는 통상 여타 연령계층에 비하여 더 큰 규모였으며, 노동시장이 회복된 이후에도 청년층의 실업은 장기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의 영향 역시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기적인 실태를 가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가 2020년 3~4월의 초기 영향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허용하는 한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한 상황의 청년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본다.

[그림 2-2] 본 연구의 틀



출처: 저자 직접 작성.

둘째로 경제위기 시 청년의 부정적인 고용지표는 노동시장의 이탈(실직)과 노동시장 진입(입직)의 제한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 기인한다. 두 방향은 향후 정책 설정에서도 고용의 유지인지, 아니면 일자리의 창출인지와 같은 서로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통상 경제위기 시 청년노동시장은 입직의 제한에 따른 위기로 인식되나, 실증 연구는 입직 제한뿐만 아니라 실직의 확산에 따른 미취업 인구가 늘어나는 양상도 관측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률 감소가 청년층의 입직 제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실직 확대에 따른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청년노동시장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라는 특성에 입각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통상 19~34세로 구분

되는 청년층 내에서도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지, 졸업을 했는지에 따라 노동시장의 의미가 상당히 다르며, 코로나19의 영향 역시 이질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순히 연령에 따라 청년층과 청년층 내 세부 집단을 나눌 경우 군입대와 같은 남녀 간 이질적인 경험을 누락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을 재학 중인 이들과 졸업한 이들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행과정으로써 청년노동시장은 취업 여부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구직 상태라 할 수 있는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아예 쉬는 유희인력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다양한 측면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 훈련을 받거나 고용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청년 니트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실업자의 양상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의 일과 삶의 영향을 더보다 폭넓게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노동시장 내 이질성에 주의해야 한다. 청년층 내에서도 성별에 따라, 정규교육을 마쳤는지에 따라, 그리고 전공에 따라 상당히 다른 노동시장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질성을 누락하고 청년을 단일한 집단으로 볼 경우 실제 청년들의 경험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과 여타 연령층을 비교하는데 주력하기보다는 청년층 내 이질성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층의 경험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 집중한다.





## 제3장

### 연구 설계와 분석대상의 주요 특성

제1절 연구 설계

제2절 분석대상의 주요 특성



## 제3장 연구 설계와 분석대상의 주요 특성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설계와 분석대상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앞선 제2장의 선행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대상기간, 분석모형, 그리고 분석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청년층의 규모와 청년층이 주로 어떠한 일에 종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 제1절 연구 설계

앞서 제2장에서 검토하였던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선행연구들의 연구 설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코로나19 발생 시점의 전후 차이를 비교하거나, 코로나19 확산 직전과 직후의 차이를 전년도 동일 시기의 차이로 빼는 이중차분 방법을 사용한다. 또 다른 연구군은 지역별 감염률과 지역정부의 폐쇄 또는 거리 두기 정책을 활용하거나 직업별로 재택근무가 얼마나 가능한지 같은 일자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매월 노동력의 고용상태와 평소 활동상태를 조사해온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다. 이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CPS 조사, 노동력조사 등과 같은 구조라 할 수 있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지역 변수를 공개하지 않으며, 직업도 대분류 수준에서만 공개하므로 세부 직업 정보나 지역별 감염률 정보를 활용하기는 어렵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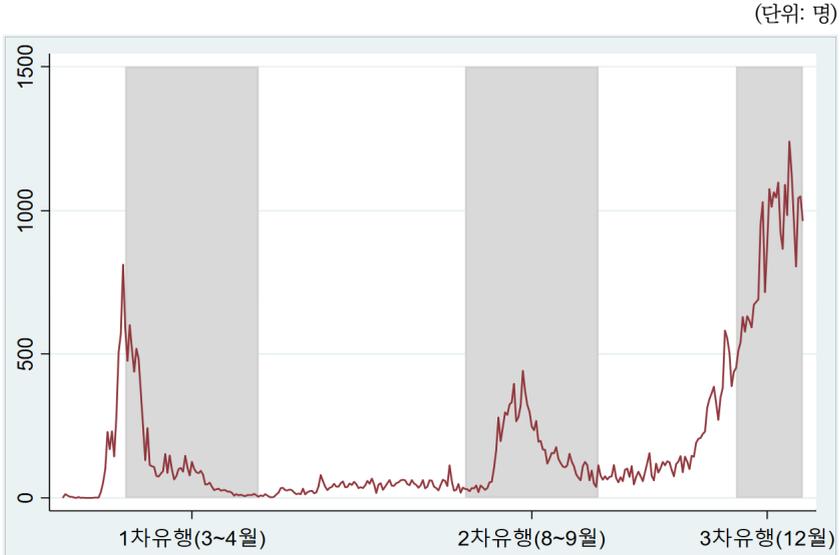
고용조사의 경우 세부 직업 정보와 지역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반기마다 조사를 수행하여 코로나19 이후 역동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실시한 2021년 3월 당시에는 2020년 10월 조사 자료가 공표되지 않아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 1. 분석자료와 시점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이들을 대상으로 매달 실시하는 조사로, 우리나라의 고용률과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통계청, 2020, p.1). 경제활동인구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년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조사 날짜에 따라서 매월 9일부터 21일에 조사대상기간이 걸쳐져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기간은 코로나19의 확진자 추세와 더불어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정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3일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2월 18일 31번째 확진자를 기점으로 신천지 집단 감염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월 23일경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으며, 28일에 의협에서 거리 두기를 권고하였다. 이러한 2월 상황에 비추어 2월 조사기간에 해당하는 2월 9일부터 21일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심각한 위기 단계로 보기 전으로, 3월 조사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대상기간을 염두에 두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기를 유행기로, 확진자 수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일 때를 소강기로 보았다. 본 기준에 따라 1차 유행기는 2020년 3~4월이 해당하며,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이 해당한다.

[그림 3-1] 일일 확진자 수 추세



자료: 공공데이터 포털.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감염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43376/openapi.do> 에서 2021.4.7. 추출.

##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년과 대비하여 올해 주요 경제지표가 인구집단에 따라 어떠한 변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때  $Y$ 는 고용, 일시휴직, 최근 실직, 최근 입직, 적극적 구직, 비경제활동인구, 평소 활동상태 등이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식 1과 같다.

$$\text{식1: } \tau = E[Y_m | t = 2020] - E[Y_m | t = 2019], \text{ where } m = \{3, \dots, 12\}$$

그런데 이러한 전년 대비 이달 평균치의 변동을 코로나19의 효과로 보기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우선,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전년 대비 올해에 평균 수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등 특정한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따라서 전년 동월 대비 올해의 단순 차분은 코로나19 이후 변화의 수준을 과소 추정하거나, 과대 추정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전년 동월 대비한 사전 차이(pre-existing difference)를 전년 동월 대비 차이에서 빼는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이는 아래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xt{식2: } \tau^{did} = \{E[Y(\text{month} \geq 3)|t = 2020] - E[Y(\text{month} \geq 3)|t \leq 2019]\} \\ - \{E[Y(\text{month} < 3)|t = 2020] - E[Y(\text{month} < 3)|t \leq 2019]\}$$

통상적으로 이중차분은 처치집단에 해당하는 이들과 통제집단에 해당하는 이들의 처치 이후 값의 차이에서 처치 이전부터 존재했던 값의 차이를 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차분법은 두 집단이 처치가 없었다면 평행하게 변화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따라서 사전 추세의 평행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이를 기반으로 처치집단에 처치가 없었을 경우의 변화 수준을 가늠하여 처치의 효과를 추정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은 특정한 집단을 처치집단이나 통제집단으로 배정할 수 없고, 모든 대상자가 영향을 받았으므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해당하는 집단을 구분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Blend et al. (2020), Cho and Winters(2020), Faïrelie et al.(2020) 등 여러 연구는 2020년 이전의 연도를 통제집단으로, 2020년을 처치집단으로 가정하고 위와 같은 모델을 확인하였다. 즉, 처치 이전 시점을 각 연도의 1, 2월로, 처치 이후 시점을 각 년의 3월 이후 시점으로 설정하여 개념적으로 이중차이를 코로나19의 효과로 보는 것이다. 또한 고용효과 이외에도 가구의 매출과 소득 등을 확인하는 이승호(2020), 홍민기(2020), 문혜진 외(2020)의 연구들 역시 이러한 설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현재 가용한 자료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의 모델을 따랐다.

이러한 모델은 연도별로 기본 차이가 있을 뿐 각 연도 안에서는 월별로 평행한 추세(parallel trend)를 그린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한 해 내에도 점진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모든 연도에서 월별로 동일한 추세를 그릴 것이라는 가정 역시 강한 가정이라 할 수 있다. 각 연도를 하나의 집단으로 가정해서 사전 시점이 1월과 2월 두 달밖에 없다 보니 사전 추세가 평행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 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로 2019년이라는 특정 한 해만을대조 연도로 보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고 보고, 2020년 이전 최근접 3개년을 기본 모델로 하였다. 또한 이후 제4장 고용률 지표에서 대조집단을 다르게 설정하면서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고용지표는 집단별 평균 이외에도 계절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상당 부분 작용한다. 더불어 한요셉(2020)이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 내에서 연령분포가 변화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 특성에 관한 일부 통제변수를 포함한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식3의 계량 모형으로 이중차분의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text{식3: } Y_{i,t,m} = \beta_0 + \beta_1 X_{i,t,m} + \delta_1 T_{i,t,m} \cdot t_{i,t,m} + \lambda_m + \lambda_t + e_{i,t,m}$$

이 식에서 우선  $t$ 는 년도,  $m$ 은 월이다. 즉, 연도별, 월별 개인의 주요 노동지표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이다.  $X$ 는 개인의 연령, 성별, 교육 수준 등의 속성이 해당하고,  $T$ 는 2020년일 경우 1이고, 2020년 이전일 경우 0인 더미이며,  $t$ 는 3월 이후일 경우 1인 값, 3월 이전일 경우 0인 값을 갖는 더미변수가 된다. 여기에 월 고정효과에 해당하는  $\lambda_m$ 와 연도별

고정효과에 해당하는  $\lambda_i$ 을 통제하였다. 코로나의 효과로 해석되는 이중차분의 결과는 2020년과 3월 이후의 교차항의 계수인  $\delta_1$ 가 된다. 본 연구에서 실제 분석은 각 유행기와 소강기에 해당하는 시점 변수를 투입하여 1차, 2차, 3차의 각 유행기 효과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모두 특정 상태 여부를 나타내는 이분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확률모형으로, 특정 상태의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선형확률모형의 계수, 즉,  $\delta_1$ 의 값은 확률 변화로, 100을 곱하면 %포인트 변화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sup>3)</sup>.

### 3.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34세 이하 청년층의 노동시장 경험을 살펴본다. 특히 취업 여부뿐만 아니라, 일시휴직자의 양상을 확인하고, 노동시장 내 최근 실직과 최근 입직의 양상을 확인한다. 더불어 현재 취업 중이거나 구직 중이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양상도 함께 살펴본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이들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물론 이분변수를 OLS로 추정하는 방식은 예측치가 음수나 1을 초과하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값이 나올 수 있으며, 오차의 이분산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로짓이나 프로빗 모델을 사용한다(Hill & Griffiths, 2018).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중차분법에 착안한 효과가 교차항의 계수라는 점에서 선형확률모형에 이점이 있었다. 비선형모형에서 교차항의 계수는 선형모형과 같이 한계효과로 해석할 수 없으며, 평균이나 특정 값에서의 한계효과를 추가로 계산해야 한다(Hill & Griffiths, 2018). 따라서 교차항의 계수의 값이 0이라 하더라도 상호작용의 효과는 0이 아닐 수 있다(Ai & Norton, 2003). 이러한 맥락에서 이분변수에 대하여 상호작용항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들은 해석의 간명성과 용이성을 위해 선형확률모형을 활용하고 있다(박미희, 2017).

〈표 3-1〉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분류	조작적 정의	비고	
4장	취업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 종사자, 일시휴직자	
	일시휴직자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았으나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응답자	
5장	최근 실직자	일을 그만둔 시점이 조사 당월이나 직전 월이라는 응답자	“일을 그만둔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항 활용
	최근 입직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조사 당월이나 직전 월부터 시작하였다는 응답자	[임금근로자 대상] “지난주의 일(직장)은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문항 활용
6장	적극적 구직자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취업준비	지난주에 주로 취업을 위해 학원, 기관 통학과 취업준비를 한 응답자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문항 활용
	유휴인력	지난주에 주로 “쉬었다”라고 응답한 자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문항 활용

출처: 저자 직접 작성.

주의해야 할 점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최근 실직 경험과 최근 입직 경험 관련 문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한 문항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가공한 변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입직 경험의 경우 무급 가족 종사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임금근로자만을 확인하고 있어서 무급 가족 종사자나 자영업으로의 입직은 누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청년층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4% 내외로 작다는 점에서 자영업 또는 무급 종사자로의 입직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과 여타 연령계층 간, 청년층 내의 다양한 집단 간 이질성을 포착하기 위하여 세부 집단별로 분석한다. 우선 연령집단

별로는 청년, 장년, 중년, 노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연령집단별 분석은 제4장 제1절에 해당하는 고용률 지표에서만 확인한다. 성별은 모든 분석에서 다루는 분류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기에 있는 청년노동시장의 특성에 주목하는 만큼, 정규교육기관을 졸업(또는 중퇴)하고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인력인지를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정규교육기관 졸업자의 학력과 전공별로 분석하여, 이들 사이의 이질성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졸업 후 경과 연도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분석하고, 생애 노동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표 3-2〉 세부 집단의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	비고
연령집단	① 청년: 15~34세 ② 장년: 35~49세 ③ 중년: 50~64세 ④ 노년: 65세 이상	제4장 제1절 고용률에 한해 연령집단별 분석을 실시함.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정규교육기관 졸업 여부	① 교육 수학 여부에서 재학, 휴학, 수료인 경우는 학생 ② 수학 여부가 졸업 또는 중퇴인 경우는 학생이 아님.	
학력과 교육 계열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① 교육, ② 예술, ③ 인문학, ④ 사회과학, 인문 및 정보학, ⑤ 경영, 행정 및 법학, ⑥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⑦ 정보통신기술, ⑧ 공학, 제조 및 건설, ⑨ 농업어업 및 수의학, ⑩ 보건, ⑪ 복지, ⑫ 서비스로 나뉨. ⑬ 고졸의 경우 계열을 나누지 않고 따로 분류함.	학생이 아닌 경우만 해당하며, 2019년부터 분석 가능함.
졸업 후 경과 기간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졸업 이후 경과 연수를 계산함.	학생이 아닌 경우만 해당함.
생애 노동 경험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문항에 ① 있었던 경우와 ② 없었던 경우로 구분함.	6장 비경제활동상태만 해당함.

출처: 저자 직접 작성.

위와 같은 분류 외에도 동부와 읍부, 농가와 비농가, 5세 집단별 분석을 고려하였는데, 이들 분석 결과, 읍부와 농가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모든 지표에서 일관되게 관측되지 않았으며, 5세별 집단분석은 정규교육기관

졸업 여부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므로 본문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장별로 일시휴직자의 경우 일시휴직 사유를, 최근 실직자와 최근 입직자의 경우 일자리의 특성(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기업규모)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실직자는 실직 사유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 제2절 분석대상의 주요 특성

### 1. 분석대상 청년의 인구사회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하려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경제활동인구조사 응답자의 분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연도별로 만 34세 이하 청년층 응답자는 대략 1만 5천 명에서 1만 7천 명 정도로 나타난다(표 3-3). 월별로 따지면 대략 천 명 이상이 매월 응답한 셈이다. 취업자의 비율이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며, 현재 구직 중인 실업자의 비율은 4% 내외로 나타난다. 이러한 고용률은 장년과 중년층에 비하여 낮고, 노년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표 3-4). 청년층 내에서 여성 청년과 남성 청년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남성 청년이 54.1%, 여성 청년이 49.4%로 남성이 다소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였다.

청년층 중에서 취업했거나 구직활동 중이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44% 정도이며, 비경제활동상태이지만 취직준비 중인 비율은 5% 내외로, 최근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표3-4). 성별로는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으며,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중장년의 2배가량이다.

〈표 3-3〉을 살펴보면 최근 한 달 이내에 실직을 경험한 청년은 전체의 2% 내외로 나타나며, 최근 그 비율이 늘어났다. 최근 한 달 이내에 임금

근로자로 입직한 청년의 비율은 5% 내외로 나타난다. 이 같은 최근 입직과 실직의 비율은 <표 3-4>에서 알 수 있듯,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청년층이 여타 연령층에 비하여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이 잦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관측되지는 않았다.

일자리는 있지만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은 이들을 뜻하는 일시휴직자는 2020년 이전에 1% 이내로 나타나는데, 2020년에 들어 그 비율이 1.5% 정도로 높아졌다(표 3-3). 성별로는 여성 청년이 남성 청년에 비하여 일시휴직자의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았다(표 3-4).

34세 이하 청년 중에서 현재 재학, 휴학, 또는 수료 상태여서 학생으로 분류된 이들의 비율은 35% 내외이며, 이전에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은 27% 정도이다. 한편, 무학인 응답자도 전체 청년의 0.03% 내외로 확인되었는데(표 3-3), 이들은 세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성별에 따른 집단별 특성을 보면(표 3-4), 학생인 비율은 남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 청년들은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수료 중인 이들의 비율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납득할 만하다.

한편, 여성 청년 중 일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1%가 넘어 남성 청년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장년층과 중년층에서는 현재 학생인 경우, 일한 경험이 없는 경우, 졸업 후 경과 연수가 짧은 경우 모두 청년층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표 3-3) 분석대상 청년의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	성별	기초지표를 적용한 연평균 비율					비가중 빈도				
		2017	2018	2019	2020	2020	2017	2018	2019	2020	
		남자	50.52	50.51	50.67	50.71	50.71	82,352	80,306	77,137	76,816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50.96	51.42	52.20	51.33	51.33	81,292	79,176	76,190	73,435	
	- 일시휴직자	0.95	0.96	0.98	1.52	1.52	1,690	1,599	1,564	2,242	
	최근 실직자	1.98	1.98	2.14	2.34	2.34	3,200	3,112	3,247	3,447	
	최근 임직자	4.67	4.93	5.31	5.18	5.18	7,680	7,880	7,981	7,675	
	실직자	4.20	4.20	4.01	3.90	3.90	6,235	6,278	5,783	5,601	
	비경제활동인구	44.83	44.38	43.80	44.77	44.77	82,588	79,746	75,900	76,219	
노동 경험	- 취업중비 중	4.59	4.76	5.02	5.52	5.52	7,138	7,420	7,559	8,540	
	- 유희인력	0.25	0.31	0.31	0.25	0.25	395	481	452	373	
	학생	36.72	36.06	35.38	35.29	35.29	67,584	65,287	62,502	61,776	
정규교육 기관 졸업 여부	졸업 또는 중퇴	63.23	63.91	64.60	64.68	64.68	102,466	99,872	95,325	93,412	
	- 졸업	58.70	58.89	59.55	59.37	59.37	95,193	91,940	87,610	85,445	
	- 중퇴	4.53	5.02	5.04	5.32	5.32	7,273	7,932	7,715	7,967	
	무학	0.05	0.03	0.02	0.03	0.03	65	41	46	67	
노동 경험	이전에 일한 경험 없음	27.95	27.66	27.02	26.90	26.90	53,703	52,131	49,660	49,044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70,115	165,200	157,873	155,255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단위: %, 명)

54 코로나19의 확산과 청년노동시장 변화

〈표 3-4〉 2017~2020년 연령집단별 인구사회적 특성 일자리 특성

(단위: %)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비율					
		청년	남성	여성	장년	중년	노년
활동 상태	취업자	51.77	54.11	49.36	76.92	70.40	33.49
	- 일시휴직자	1.25	0.70	1.82	1.76	1.36	1.33
	최근 실직	2.24	2.24	2.24	1.37	1.91	1.63
	최근 입직	5.25	5.74	4.74	3.81	5.91	3.12
	실업자	3.95	4.28	3.62	2.00	2.14	1.19
	비경제활동인구	44.28	41.61	47.03	21.08	27.46	65.31
	- 취업준비	5.27	5.72	4.81	0.78	0.21	0.03
	- 유희인력	0.28	0.35	0.22	0.35	0.61	0.79
학생		35.34	36.23	34.43	0.97	0.34	0.11
일한 경험 없음		27.39	8.65	11.12	1.49	2.35	6.87
교육	고졸 이하	26.85	29.92	23.78	36.96	69.01	86.72
	교육	4.59	1.76	7.42	4.44	3.02	1.60
	예술	7.78	4.70	10.86	5.33	1.76	0.52
	인문학	6.19	4.17	8.22	6.76	4.03	2.34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3.26	2.93	3.58	2.89	1.53	1.09
	경영, 행정 및 법학	11.35	10.89	11.81	9.95	6.03	2.89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2.92	2.86	2.99	2.82	1.36	0.45
	정보통신기술	2.36	3.43	1.29	3.08	0.57	0.03
	공학, 제조 및 건설	16.59	26.08	7.10	17.41	7.49	2.42
	농림어업 및 수의학	0.57	0.60	0.54	0.66	0.78	0.47
	보건	6.75	3.10	10.41	3.99	1.69	0.67
	복지	3.00	2.04	3.97	1.96	1.26	0.23
	서비스	7.78	7.53	8.02	3.75	1.45	0.58
졸업 후 경과 기간	1년 이내	15.14	16.05	14.30	0.14	0.00	0.00
	3~4년	26.26	27.93	24.71	0.45	0.00	0.00
	5년 이상	58.59	56.02	60.99	99.41	100.00	100.00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정규교육기관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이들을 대상으로 전공 분야와 졸업 후 경과 기간을 살펴보았다. 고졸자의 경우 전공 분야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전문대 중퇴 이상 학력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세부 전공별 분포를 살펴보았다(표 3-4). 청년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전공은 공학, 제조 및 건설업이었으며, 그다음으로 경영, 행정 및 법학 전공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졸업자 또는 중퇴자 중에서 고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27% 정도로 나타났다(연도별 빈도는 부록의 부표 3-2). 청년층 내에서 남녀 간 전공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남성의 경우 공학, 제조 및 건설 분야 전공자가 많았고, 여성의 경우 보건, 예술, 교육, 인문학 분야 전공자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크게 높았다(표 3-4).

정규교육기관을 졸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졸업으로부터 경과한 기간을 살펴보면(표 3-4), 1년 이내가 15.1%, 3~4년이 26.3%,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도 58.6%나 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졸업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이들 중 여성 청년이 남성 청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역시 군복무에 따른 남녀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연도별 빈도는 부록의 부표 3-3).

## 2. 청년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

이제 <표 3-5>에 수록한 청년들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자. 청년층 근로자의 29%가량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였으며, 그다음으로 사무 종사자(24% 내외), 서비스 종사자(12% 내외)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문가 및 관리자의 비율은 특히 청년 여성이 35.5%로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종사자 역시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았으며, 판매 종사자는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남성 청년의 경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단순노무자의 비율이 여성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성별 직업분리 양상은 노동시장 진입기라 할 수 있는 청년층에서부터 관측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중장년층의 직업 분포와 대비해보면, 청년층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일자리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3-5). 업종에서도 남녀 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여성 청년은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 청년은 제조업, 건설업의 비중이 높았다. 여타 연령층과 비교해보면 청년층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여타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년층 종사자의 계약 형태는 상용직이 대략 65%를 차지하여, 여타 연령층에 비하여 상용직의 비율이 높았다(표 3-5). 이처럼 청년층의 상용직 비율이 높은 까닭은 중장년층에 비하여 자영업자의 비율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은 6% 이내로 작았다. 다만, 2017년 이후 추세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부표 3-3). 성별로는 남성 청년의 상용근로자 비율이 여성 청년에 비하여 다소 높았다. 반대로 임시직 비율은 여성 청년이 더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1~4인 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체 청년 근로자 중 60%가량이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표 3-5). 여타 연령층과 비교해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남녀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하여 여성 청년들이 더 작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부표 3-4>와 함께 살펴보면, 일부 직업과 산업의 경우 사례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경우가

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이나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본 분석에서는 유사한 분류를 합쳐서 분석하였다.

〈표 3-5〉 2017~2020년 연령집단별·성별 일자리 특성

(단위: %)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비율					
		청년	남성	여성	장년	중년	노년
직업	관리자	0.24	0.40	0.07	1.24	2.50	1.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9.15	23.47	35.53	25.78	12.42	4.15
	사무 종사자	24.11	18.02	30.95	22.46	11.18	3.01
	서비스 종사자	12.89	12.08	13.81	8.83	13.30	9.08
	판매 종사자	11.39	11.40	11.39	11.37	11.73	8.26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0.64	0.95	0.28	1.42	5.94	25.1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65	9.61	1.20	9.41	11.53	4.95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1	13.44	2.12	11.62	14.51	8.29
	단순노무 종사자	7.82	10.64	4.66	7.87	16.89	36.09
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0.82	1.10	0.52	1.58	6.12	26.29
	광업	0.04	0.04	0.04	0.05	0.10	0.06
	제조업	17.41	23.47	10.60	19.52	15.71	6.3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26	0.41	0.09	0.35	0.23	0.0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37	0.62	0.10	0.51	0.61	0.33
	건설업	4.10	6.60	1.30	7.95	10.64	3.64
	도매 및 소매업	14.74	15.03	14.40	14.35	13.02	10.27
	운수 및 창고업	3.03	4.14	1.79	4.74	7.51	6.01
	숙박 및 음식점업	11.55	10.85	12.33	6.15	9.46	4.70
	정보통신업	5.38	5.88	4.81	3.90	1.27	0.24
	금융 및 보험업	3.34	2.76	3.99	3.87	2.33	0.84
	부동산업	0.73	0.82	0.63	1.66	2.79	3.7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33	5.72	7.01	5.11	2.37	1.3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15	4.86	3.36	4.00	5.54	8.9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37	3.48	3.25	4.24	3.66	6.43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비율					
		청년	남성	여성	장년	중년	노년
	교육 서비스업	8.27	4.67	12.32	8.75	5.23	1.9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65	3.44	16.60	7.07	6.44	11.7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87	2.82	2.93	1.60	1.30	0.7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54	3.27	3.85	4.51	5.12	5.21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01	0.00	0.01	0.04	0.49	1.00
	국제 및 외국기관	0.03	0.01	0.05	0.05	0.06	0.02
고용 형태	상용근로자	64.96	65.17	64.73	61.52	42.03	15.25
	임시근로자	22.38	20.69	24.28	12.79	16.33	30.21
	일용근로자	4.46	5.02	3.82	3.50	7.53	7.1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8	2.74	1.12	6.81	7.76	4.3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62	4.78	4.44	12.47	20.54	34.47
	무급 가족 종사자	1.60	1.59	1.61	2.91	5.81	8.57
사업장 규모	1-4명	23.14	22.41	23.97	31.54	44.68	62.81
	5-9명	17.07	15.34	19.01	14.36	13.89	12.22
	10-29명	20.22	20.61	19.78	17.12	16.06	14.46
	30-99명	16.92	17.68	16.07	16.14	13.23	6.98
	100-299명	9.47	10.16	8.69	8.60	6.00	2.30
	300명 이상	13.17	13.81	12.47	12.23	6.14	1.24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3. 세부 집단별 청년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

마지막으로 청년층 내에서 졸업 여부별, 졸업 이후 경과한 기간별로 직업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학생과 정규교육을 마친 청년들의 일자리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 임시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파트타임이 대다수였다(표 3-6).

(표 3-6) 분석대상 청년의 일자리 특성

(단위: %)

	남성		여성		남성 졸업자			여성 졸업자				
	학생	졸업자	학생	졸업자	졸업 후 1년 이내	졸업 후 2~4년	졸업 후 5년 이상	졸업 후 1년 이내	졸업 후 2~4년	졸업 후 5년 이상		
직업		관리자	0.09	0.43	0.02	0.07	0.28	0.40	0.46	0.09	0.05	0.0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23	24.02	22.73	37.30	35.78	30.97	21.93	42.26	41.89	35.44
		사무 종사자	12.25	18.77	13.91	33.30	20.84	22.37	18.39	29.27	33.95	34.16
		서비스 종사자	26.80	10.18	31.54	11.37	11.04	9.32	9.31	14.62	10.32	10.41
		판매 종사자	16.00	10.80	24.60	9.57	8.23	9.52	10.65	8.91	9.45	9.26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0.53	1.01	0.09	0.31	0.77	0.75	1.13	0.09	0.06	0.4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71	10.50	0.47	1.30	4.94	8.08	12.15	0.66	0.88	1.62
		장기,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19	14.50	0.67	2.31	9.67	11.14	16.25	1.08	1.20	2.94
		단순노무 종사자	17.21	9.79	5.96	4.47	8.44	7.45	9.72	3.01	2.20	5.62
	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0.60	1.16	0.09	0.56	0.85	0.87	1.32	0.15	0.22
		광업	0.00	0.04	0.00	0.05	0.05	0.02	0.03	0.00	0.05	0.06
		제조업	10.15	25.18	2.47	11.72	20.21	23.53	27.42	7.44	9.54	13.70
		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11	0.45	0.06	0.10	0.47	0.64	0.42	0.08	0.11	0.0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08	0.69	0.08	0.10	0.31	0.62	0.87	0.00	0.07	0.14
	건설업	3.51	7.00	0.57	1.40	5.08	5.57	7.73	1.71	1.11	1.47	

	남성		여성		남성 졸업자			여성 졸업자		
	학생	졸업자	학생	졸업자	졸업 후 1년 이내	졸업 후 2~4년	졸업 후 5년 이상	졸업 후 1년 이내	졸업 후 2~4년	졸업 후 5년 이상
산업	17.30	14.74	15.99	14.19	11.32	12.99	14.76	10.51	13.93	14.66
	2.20	4.39	0.80	1.93	2.69	3.38	4.80	1.86	1.94	1.94
	26.91	8.77	36.37	9.03	9.66	8.18	8.05	13.08	8.83	7.47
	3.61	6.18	2.20	5.17	8.97	7.26	5.72	4.32	5.54	5.21
	1.62	2.91	1.08	4.40	2.86	2.87	3.15	3.61	4.34	4.73
	0.88	0.81	0.34	0.67	0.84	0.59	0.85	0.45	0.45	0.83
	3.75	5.98	3.67	7.47	8.35	8.66	5.24	8.50	8.06	7.18
	3.79	5.00	1.87	3.56	3.82	4.76	4.74	3.92	2.88	3.60
	2.98	3.54	1.69	3.47	4.26	4.20	3.05	2.42	3.11	3.91
	11.72	3.76	18.03	11.54	6.20	4.73	3.40	13.97	12.51	10.95
	1.93	3.64	5.53	18.13	7.40	5.27	2.85	21.06	21.34	16.64
	6.19	2.39	6.84	2.39	3.31	2.92	2.00	3.30	2.50	2.15
	2.64	3.35	2.19	4.08	3.36	2.92	3.58	3.63	3.44	4.44
	0.03	0.00	0.03	0.01	0.00	0.00	0.00	0.00	0.00	0.02
	0.00	0.01	0.09	0.04	0.00	0.01	0.02	0.00	0.02	0.07

	남성		여성		남성 졸업자			여성 졸업자		
	학생	졸업자	학생	졸업자	졸업 후 1년 이내	졸업 후 2~4년	졸업 후 5년 이상	졸업 후 1년 이내	졸업 후 2~4년	졸업 후 5년 이상
고용 형태	상용근로자	70.15	16.23	71.40	66.43	75.21	70.89	65.26	75.50	72.08
	임시근로자	51.29	16.73	60.60	19.29	24.32	14.37	28.46	18.71	16.67
	일용근로자	16.08	3.59	17.50	1.94	4.40	2.61	3.58	3.49	1.6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55	3.03	0.34	1.23	0.86	1.72	3.79	0.05	0.48
사업장 규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89	5.03	4.06	4.49	2.34	2.67	6.06	1.79	5.77
	무급 가족 종사자	2.54	1.47	1.27	1.65	1.65	1.39	1.30	0.95	2.09
	1~4명	34.32	20.87	42.77	21.39	16.84	16.79	21.27	18.04	22.61
	5~9명	21.83	14.49	23.48	18.39	14.46	13.70	14.20	18.80	18.10
파트타임	10~29명	17.12	21.05	14.06	20.57	20.52	21.00	21.53	21.61	20.53
	30~99명	11.34	18.50	8.82	17.07	18.68	20.59	18.46	15.06	17.06
	100~299명	6.31	10.66	4.07	9.33	13.52	11.41	10.10	10.59	8.90
	300명 이상	9.08	14.42	6.81	13.25	15.99	16.50	14.44	15.90	12.80
	51.54	10.49	73.62	20.85	17.51	11.28	8.67	24.76	16.92	21.58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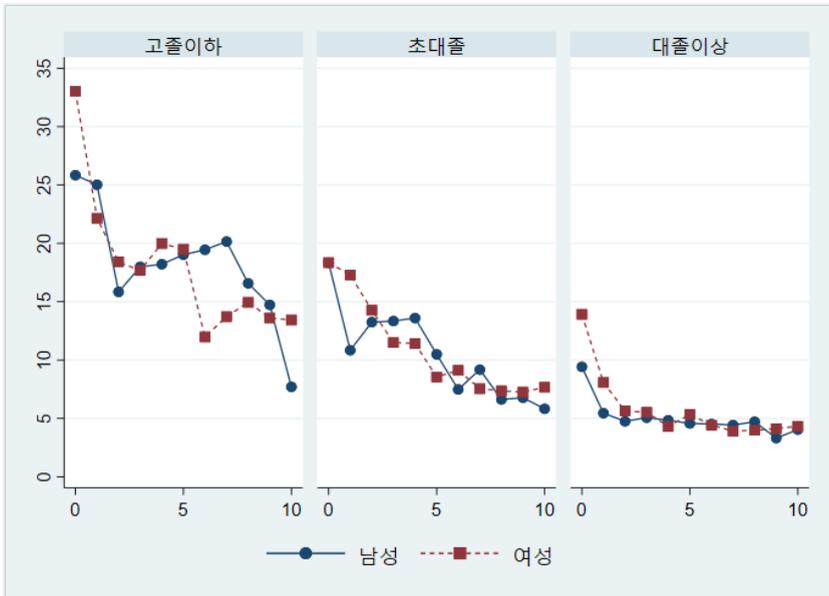
한편, 학생 집단 내에서도 성별에 따라 직업적 특성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표 3-6). 가령, 서비스 종사자 중 여학생은 31.54%이고, 남학생은 26.80%이다. 남학생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은 여학생보다 낮았지만,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은 여학생보다 높았다. 한편, 여학생들은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비율이 남학생에 비하여 10%포인트가량 높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서비스업의 비율도 18.03%로 남학생에 비하여 7%포인트가량 높았다. 이는 여학생 취업자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대면서비스업종 종사자 비중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취업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경우(파트타임)도 남녀 학생 모두 그 비율이 높았으나, 남학생은 51.54%, 여학생은 73.6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과 졸업생 간 차이와 더불어 학생 내에서도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졸업생들은 서비스 종사자의 수가 남녀 모두 10% 내외로 학생의 절반 또는 3분의 1에 불과하였다(표 3-6). 반면, 이들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여성 청년 졸업자의 37.3%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였다. 여성 졸업자는 사무직의 비율 역시 33.3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성 졸업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10.5%,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비율이 14.5%로 나타나 제조업 관련 업종의 종사자 수 비율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비율이 10% 이내로 줄어들었다. 남성 졸업자는 제조업이 25.18%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여성 졸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율이 18.13%로 높았다. 남녀 모두 졸업자의 70% 이상이 상용직이었으며, 임시직의 비중은 작았다. 전일제 비중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남성 졸업자 10.49%, 여성 졸업자의 20.85%가 파트타임으로, 여성의 파트타임 비율이 높았다.

한편 졸업 후 경과 기간별 직업 양상을 살펴보면(표 3-6), 졸업 후 1년 이내에 청년들은 서비스 종사자와 전문직의 비율이 졸업 후 시간이 경과한 이들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와 임시근로자, 파트타임의 비율 역시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반면, 제조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용근로자 비율은 졸업 후 시점에 경과함에 따라 차차 높아졌다. 이는 학력별로 보아도 동일한 양상이었다. [그림 3-2]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는 학력에 따라 초기값의 차이는 있었지만, 졸업 1년 이내에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는 졸업 후 1년 이내인 청년들은 정식 노동시장이 아닌 학생들이 주로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림 3-2] 졸업 후 경과 기간에 따른 학력별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비율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임시직의 비율 역시 마찬가지다. [그림 3-3]을 살펴보면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졸업자들의 임시직 비율은 남성과 여성, 학력과 관계없이 높으나, 이후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낸다. 물론 학력이 낮을수록 졸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임시직 감소폭은 다소 낮았다. 대졸 이상 졸업자의 경우 특히 임시직이 1년 이내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여성의 경우 졸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임시직의 비율이 다소 올라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 졸업 후 경과 기간에 따른 학력별 임시직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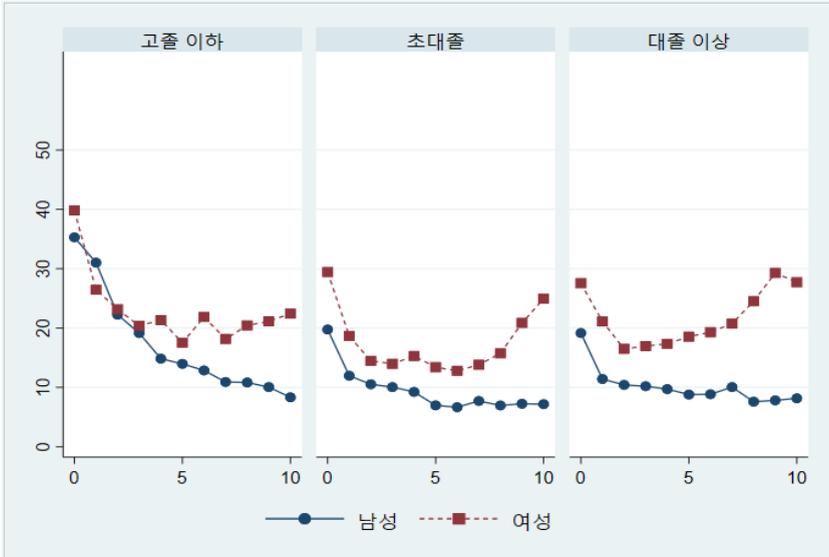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파트타임의 비율 역시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다만,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두드러진다(그림 3-4). 졸업 후 1~2년에서 파트타임의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하나, 여성 졸업자들의 경우 졸업 후 7년 이상이 경과하면 다시 파트타임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림 3-4] 졸업 후 경과 기간에 따른 학력별 파트타임 종사자 비율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마지막으로 졸업자들의 졸업 계열별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표 3-7), 교육과 예술 전공자들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높았으며, 인문, 사회과학, 경영, 행정, 법 등 인문사회과학계열 전공자들에서 사무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다. 고졸 이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고,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의 비율도 높았다. 한편, 교육 전공자들의 경우 교육서비스업(51.6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93%)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한편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예술, 복지, 서비스 전공자들의 상용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들은 임시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전공에 비하여 높았으며, 특히 예술과 서비스 부문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자 비율이 여타 전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3-7〉 분석대상 청년의 전공별 일자리 특성

		고졸 이하	교육	예술	인문학	사회 과학, 언론 및 정보학	경영, 행정, 법학	지연 과학, 수학 및 통계학	정보통신기술	공학, 제조 및 건설	보건	복지	서비스
직업	관리자	0.09	0.04	0.09	0.30	0.18	0.44	1.40	0.00	0.44	0.10	0.32	0.3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70	69.58	48.54	24.58	28.60	16.05	37.28	40.79	33.60	78.24	41.30	16.17
	사무 종사자	13.52	15.55	16.79	45.55	45.04	53.36	29.21	22.02	22.02	11.13	25.80	23.56
	서비스 종사자	16.31	6.86	10.45	8.94	5.94	8.68	8.46	3.85	5.83	4.36	9.31	27.85
	판매 종사자	13.37	4.20	12.58	10.60	11.35	12.22	9.00	11.37	6.83	2.91	9.24	12.98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1.16	0.25	0.47	0.16	0.02	0.19	2.81	0.64	0.47	0.13	1.86	0.2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89	1.17	4.10	3.42	1.62	2.31	4.93	8.55	9.98	0.74	3.49	5.43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6.59	1.25	3.30	2.61	4.28	3.29	3.55	9.92	15.46	1.45	4.26	5.80
	단순노무 종사자	20.37	1.10	3.68	3.82	2.98	3.46	3.36	2.86	5.37	0.94	4.42	7.58
	농업, 임업 및 어업	1.99	0.25	0.48	0.31	0.13	0.27	2.45	0.64	0.52	0.24	2.19	0.39
산업	광고	0.06	0.00	0.00	0.00	0.15	0.00	0.00	0.00	0.07	0.00	0.10	0.00
	제조업	25.27	3.75	11.72	11.64	12.38	13.13	18.37	15.55	31.33	5.14	7.80	13.8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17	0.00	0.16	0.08	0.19	0.14	0.23	0.42	1.19	0.00	0.00	0.0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32	0.00	0.13	0.54	0.01	0.40	0.27	0.43	1.24	0.24	0.44	0.25
	건설업	7.74	0.29	2.67	2.56	0.96	3.23	4.42	2.95	7.91	0.87	1.64	3.00

(단위: %)

	고졸 이하	교육	예술	인문학	사회 과학, 언론 및 정보학	경영, 행정, 법학	자연 과학, 수학 및 통계학	정보통신기술	공학, 제조 및 건설	보건	복지	서비스
도매 및 소매업	16.72	5.21	16.98	15.19	14.08	18.48	13.07	18.98	11.18	7.29	12.13	16.00
운수 및 창고업	5.21	1.77	1.21	6.11	4.65	4.24	1.89	2.85	3.53	0.51	0.79	3.02
숙박 및 음식점업	14.48	3.44	8.42	8.85	5.19	7.64	8.19	3.04	5.66	4.99	5.76	17.65
정보통신업	2.38	2.65	10.82	6.46	9.78	5.48	5.72	29.90	8.94	0.55	3.74	2.70
금융 및 보험업	1.52	1.88	1.15	4.01	10.96	10.43	5.20	4.94	1.77	1.81	2.81	1.83
부동산업	0.39	0.26	0.83	1.11	0.75	1.40	1.06	0.59	1.15	0.05	0.62	0.4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4	1.71	12.54	9.04	10.39	9.72	15.19	5.11	10.61	2.23	2.61	3.64
숙박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61	1.57	3.65	4.18	5.20	4.88	1.18	5.19	4.19	1.10	2.74	6.0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4	3.88	1.07	5.94	7.98	7.05	4.12	2.37	3.60	1.69	7.40	4.40
교육 서비스업	1.17	51.62	15.03	12.25	7.54	5.13	10.23	1.45	2.30	2.57	6.68	5.8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33	18.93	2.91	4.21	3.21	4.50	3.28	2.66	1.44	69.27	39.15	5.8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94	1.51	7.78	2.08	3.82	1.40	2.77	0.35	0.94	0.83	2.25	4.2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20	1.17	2.46	5.39	2.63	2.49	2.36	2.59	2.43	0.61	1.16	10.34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02	0.1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국제 및 외국기관	0.00	0.00	0.00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2

산업

	고졸 이하	교육	예술	인문학	사회 과학, 언론 및 정보학	경영, 행정, 법학	자연 과학, 수학 및 통계학	정보통신 기술	공학, 제조 및 건설	보건	복지	서비스
고용 형태	상용근로자	80.84	56.41	73.63	77.05	79.65	76.41	85.50	82.12	88.99	74.03	65.37
	임시근로자	27.64	23.23	16.99	14.73	11.39	11.66	8.19	9.60	6.26	17.09	20.63
	일용근로자	7.70	0.65	2.63	1.73	1.34	1.07	1.76	1.68	0.54	2.38	2.3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87	1.55	1.97	1.66	2.65	2.46	2.56	2.07	2.74	0.71	3.16
사업장 규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76	2.59	13.89	4.71	3.64	4.17	2.20	3.53	1.02	3.01	7.03
	무급가족종사자	2.73	0.39	1.88	0.68	0.20	0.98	2.11	1.00	0.46	2.77	1.52
	1~4명	31.11	12.47	34.38	19.36	13.52	15.92	18.75	14.31	12.98	20.47	28.13
	5~9명	19.69	16.47	16.66	17.20	11.23	15.00	14.21	10.39	14.75	17.89	20.39
사업장 규모	10~29명	21.04	27.84	19.29	20.18	20.60	21.98	18.16	19.42	15.04	30.42	16.69
	30~99명	14.88	31.74	14.70	18.89	20.34	18.87	18.39	22.04	16.35	16.32	16.08
	100~299명	7.02	6.13	7.00	8.53	13.74	10.72	10.53	13.13	15.52	7.71	9.50
	300명 이상	6.25	5.35	7.96	15.84	20.57	17.51	19.95	18.60	25.36	7.19	9.21
	파트타임	18.73	20.73	26.16	20.37	18.30	15.06	14.16	11.16	11.52	18.07	16.17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이처럼 청년층 내에서도 성별, 졸업 여부별, 졸업 후 경과 시점별로 일자리 분포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세부 집단별로 이질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진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비율이 청년층에서 높으며, 그중에서도 학생, 여성, 특정 전공을 한 청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4장

### 코로나19로 일하는 청년은 줄었는가?

제1절 고용률

제2절 일시휴직

제3절 소결



## 제 4 장

# 코로나19로 일하는 청년은 줄었는가?

본 장에서는 대표적인 고용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고용률과 실업률이 코로나19 기간에 인구집단별로 어떻게 다른 양상을 나타냈는지를 살펴본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취업과 실업 이외에도 일시휴직자의 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직장을 잃지는 않았으나,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일시휴직 상태로 있던 취업자의 비중이 상당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제2절에서는 취업자들 중 일시휴직자들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모든 지표를 분석할 때는 청년층이 여타 연령층과 비교해 코로나19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년층 이외에 중장년과 노년층의 양상도 함께 살펴보고, 그 후 청년층 내에서 어떠한 집단이 주로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다.

### 제1절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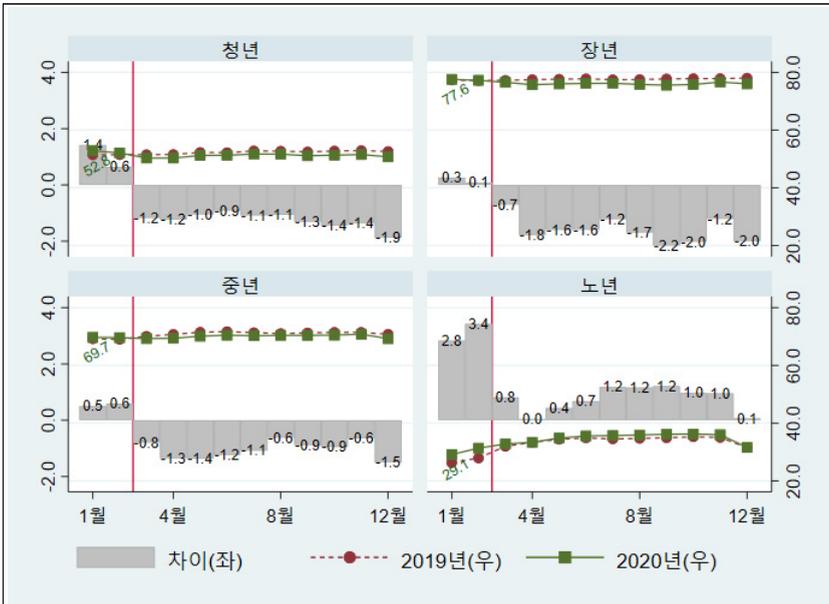
고용률이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통계청, 2020, p.2). 여기서 취업자란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거나, 동일 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 종사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한다(ibid, p.2). 즉, 고용률은 자영업과 무급 가족 종사자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라도 일을 하고 있었던 이들과 일시휴직 중이던 이들을 포함한다.

### 1. 연령집단별 고용률 변화

고용률은 코로나19로 상당한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 우선, 2019년과 2020년의 월별 고용률, 그리고 2019년 대비 2020년의 고용률 변화를 나타낸 [그림 4-1]을 살펴보자.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월경 고용률은 청년은 52.8%, 장년은 77.6%, 중년은 69.7%, 노년은 29.1%로, 장년, 중년, 청년, 노년 순으로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전년인 2019년과 비교하여 1~2월 사이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증가하는 양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과 노년은 여타 연령계층에 비하여 고용률 개선 폭이 컸다.

[그림 4-1] 연령집단별 고용률

(단위: %포인트, %)



주: 고용률은 전체 인구 대비 현재 취업 중인 이들의 비율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코로나19의 본격적인 영향이 시작된 3월경 청년층은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이 1.2%포인트 줄어들었다(그림 4-1).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3차 유행 국면에 이르렀던 12월에는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1.9%포인트 가량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 변화로만 보았을 때 청년층이 가장 큰 감소를 겪은 집단은 아니었다. 장년층의 경우 12월경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이 2%포인트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노년층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 하락이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고용률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4월과 12월에 그 폭이 다소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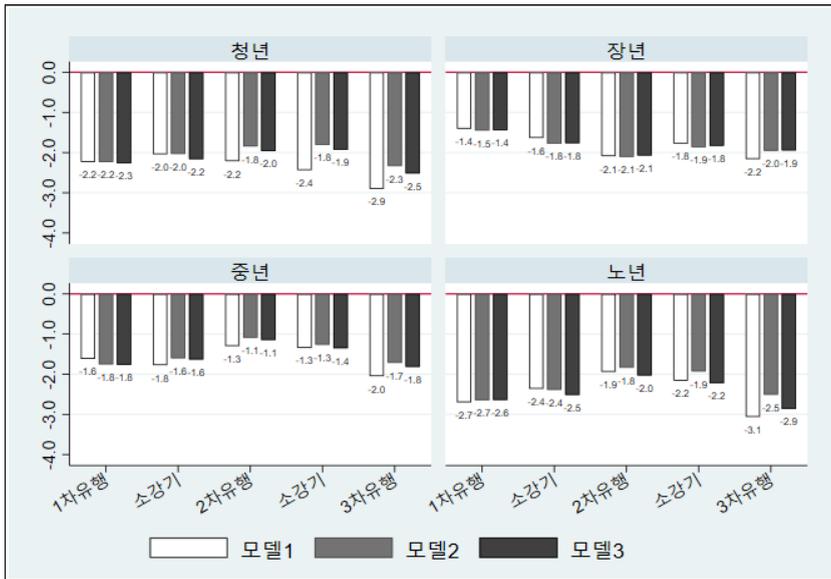
그러나 이 같은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의 변화는 코로나 이전에도 상승 또는 하락하던 고용률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 청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1월과 2월에 2019년에 대비하여 2020년 고용률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하여 증가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따라서 전년 동월 대비 차이에 사전 차이(pre-existing difference)인 1~2월의 고용률 변화를 뺀 값이 코로나 19의 영향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2]는 이 같은 사전 추세를 고려하여 식3의 계량모형을 적용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확인한 결과다. 전체 결과는 <부표 4-1>에 수록하였다. 우선, 모델1은 2019년과 2020년만 분석대상에 포함한 결과다. 즉, 2019년만 대조 연도로 보는 것이다. 이는 [그림 4-1]에서 3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차이에서 1~2월의 차이를 뺀 값과 동일하다. 청년층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1~2월에 평균 고용률이 1%포인트가량 증가하였으므로, 3~4월경 1.2%포인트 감소에서 1%포인트를 뺀 2.2%포인트가 코로나19의 효과로 나타난다. 반면, 장년층의 경우 1~2월에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이 대략 0.2%포인트 다소 작게 증가하면서, 이를 고려한 3~4월 코로나의 효과는 1.4%포인트가량으로 나타난다. 가장 극명한 차이는

고령층인데, 고령층의 경우 2020년 1~2월 당시 전년 동월 대비 3.2% 포인트가량 고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므로, 3~4월 전년 동월 대비 차이는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다소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사전 추세를 고려한 [그림 4-2]에서 2.7%포인트가량 고용률이 줄어들어 네 연령집단 중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 고용 여부에 대한 연령집단별·모델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주1: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주2: 모델1은 2019년을 대조 연도로, 모델 2는 2017~2019년을 대조 연도로 분석한 모형이며, 모델3은 모델2와 동일한 대조 연도에 개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통제한 결과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한편, 모델2는 2017년부터 202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대조 연도를 2019년에 더하여 2018년과 2017년으로 확장한 결과이다(그림 4-2). 모델2의 추정치는 모델1의 추정치와 대체로 유사한 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하반기에 두 번째 소강기인 10~11월과 3차 유행 시기에 해당하는 12월의 경우 모델1의 추정치에 비하여 모델2의 추정치가 대체로 작게 나타난다.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은 모델1과 모델2의 차이가 약 0.6%포인트가량 나타난다. 이는 모델1에서 대조 연도로 사용한 2019년에 청년층과 노년층의 고용률이 하반기 들어 상당히 개선된 추세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을 살펴보면, 1월 대비 12월의 고용률 변화가 2019년 특히 청년과 노년층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은 평년에 비하여 1~2월 대비 하반기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2020년 하반기의 감소폭을 더 크게 추정하는 것이다. 즉, 2019년만 대조 연도로 사용할 경우 하반기 코로나19의 효과를 크게 추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추정치라 할 수 있는 최근 3개년과의 비교를 기본 모델로 하였다.

[그림 4-3] 연령집단별 2017~2019년 고용률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마지막으로 [그림 4-2]에서 모델3은 모델2와 같이 2017~2020년 자료를 분석하되, 개인의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을 통제한 결과다. 개인의 특성을 통제한다는 의미는 분석 기간에 개인 특성의 분포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용률의 차이를 통제한다는 뜻이다. 가령, 청년층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청년층 내 10대의 구성이 줄어들어 평균연령이 점차 늘어나는데(한요셉, 2020), 이러한 연령 구성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는 식이다. 물론, 연령 구성의 변화가 매년 점진적이고 단조적(monotonous)일 경우 각 연도와 각 월의 고정효과만으로도 연령 구성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가정이지만, 만약 이러한 연령 구성의 변화가 단조적이지 않고 특히 특정 연도에 변동이 클 경우 모델의 추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모델2와 모델3의 값이 동일한 것이 가장 신뢰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4-2]에서 모델2와 모델3의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장년과 중년층은 계수의 값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거나 차이가 나더라도 0.1%포인트 이내로 작은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각 시기에 연령, 성, 학력의 분포가 변화하지 않거나, 변화하더라도 점진적이며 단조적으로 변화하면서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모델2와 3이 크지는 않으나 다소간 차이가 있다. 청년층은 최대 0.3%포인트가량 차이가 있으며, 노년층도 최대 0.4%포인트가량 코로나 19가 고용률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값에 차이가 있다.

이처럼 청년층과 노년층의 결과값에서 작게나마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연령분포 변화와 관련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4-4], [그림 4-5]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월별 평균연령을 나타낸다. 청년층의 평균연령 변화는 2017년과 2020년 사이 0.3세가량이 차이 나며, 노년층의 경우도 0.2세가량 변동이 있었다. 그런데 다른 연령집단과 달리, 청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분석대상 시점 사이에 연령의 변화가 단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청년층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사이 비교적 단조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4-4] 청년층의 2017~2019년 평균연령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노년층의 경우 2017~2019년 사이 단조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지만, 2020년에는 이전 연도의 추세와는 달리 평균연령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동이 발생하는 뚜렷한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2020년 4월 미국 CPS 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0, p.4), 통계청 담당자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응답 거부 비율은 전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으며, 2017년과 2020년 사이 표본 구성 방식과 절차가 달라진 적은 없었다. 다만, 연령 표본을 5세 단위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세별 분포는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림 4-5] 노년층의 2017~2019년 평균연령

(단위: 세)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같은 연령의 변동으로 인하여 청년층과 노년층의 추정치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장년층 역시 연령변동에 있어서 2020년에 패턴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청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장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령에 따른 고용 참여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연령 구성의 영향에 따라 계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 이외 변수의 양상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뺀 모델을 추가 분석해보았는데, 계수의 값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따라서 모델2와 모델3의 차이는 대부분 연령 분포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인구 또는 표본의 변동에 따른 고용률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개인의 연령과 성별, 학력을 통제한 모델을 최종 모델로 정하였다.

최종 모델을 기준으로 정리해보면(그림 4-2), 청년층은 1차 유행기 당시 고용률이 2.3%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이는 장년층(1.4%포인트),

중년층(1.8%포인트)에 비하여 높은 수치이며, 노년층(2.6%포인트)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청년층은 1차 유행 이후 코로나 19의 영향이 다소 줄어들어 2차 소강기에 해당하는 10~11월경 코로나 19의 고용률 감소 효과가 1.9%포인트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3차 유행 기인 12월경에는 다시 2.5%포인트로 고용률 감소폭이 커졌다. 이는 장년층과 중년층에 비하여 노동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청년층과 노년층이 코로나19에 더 큰 타격을 입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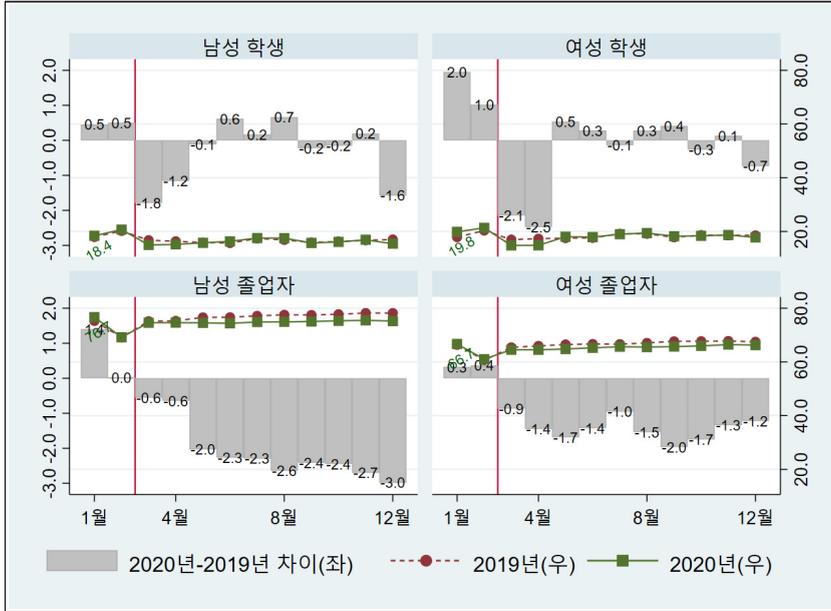
## 2. 청년층 내 세부 집단별 고용률 분석

다음으로 청년층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집단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아래 수록된 모든 그림은 최종 모델에 해당하는 모델3을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각 그림의 값은 식3에서  $\delta_1$ 에 해당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추정한 값이며, 95% 수준의 신뢰구간을 함께 표시하였다. 각 값과 신뢰구간이 0을 벗어나는 지점에 있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학생 여부와 성별 양상을 살펴보자(그림 4-6). 현재 정규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수료 상태인 학생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2020년 1월 고용률이 남성은 18.4%, 여성은 19.8%로 나타났다. 정규교육기관을 졸업하거나 중퇴하여 노동시장에 나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졸업자는 같은 달 고용률이 남성 76.7%, 여성 66.7%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 내에서도 현재 학생인 집단과 노동시장에 나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하는 청년층 사이에 상당한 이질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4-6] 성·학생 여부별 고용률

(단위: %포인트, %)



주: 고용률은 전체 인구 대비 현재 취업 중인 이들의 비율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양상을 살펴보면, 학생과 졸업자의 양상은 상이하다. 학생의 경우 코로나19 1차 확산기에 해당하는 3~4월경 고용률이 급감하나, 이후에는 전년 동월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교육기관을 졸업한 청년들은 코로나19 직후 고용률 감소의 양상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 반면, 2020년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률 감소가 더 큰 폭으로 두드러진다. 특히 남성 졸업자의 경우 2020년 12월에 이르러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이 3%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이는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노동에 종사하기에 경제위기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아 단기적인 하락 폭은 크게 나타나나, 장기적인 영향은 없는 반면, 졸업자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 축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4-6).

실제 고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계량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그림 4-7), 청년층 중에서도 학생인 이들은 1차 유행기와 3차 유행기에 고용률 영향이 있어 보이며, 여성인 학생에게서만 1차 유행 당시 고용률이 유의한 수준에서 3.3%포인트 줄어들었다. 반면, 졸업자들의 경우 1차 유행의 영향 보다는 이후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남성과 여성 졸업자 모두 1차 유행 당시에는 유의한 고용률 감소가 관측되지 않았으나, 그 직후인 소강기부터 고용률이 유의하게 줄어든다. 남성 졸업자의 경우 특히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반면, 여성 졸업자는 1차 유행 뒤 5~7월에 해당하는 소강기에만 고용률이 1.8%포인트가량 유의하게 줄어들었다가 이후에는 다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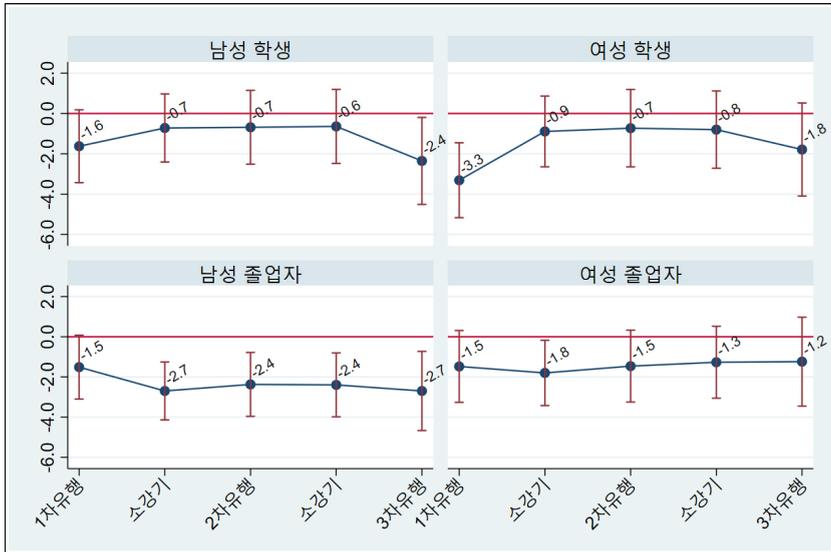
이는 3~4월경의 단기적인 영향이 젊은 연령층에서 컸다는 Aum et al. (2021) 등의 결과가 사실 청년층 내에서도 아르바이트와 같은 부가적 노동시장에 있는 이들의 고용 감소를 반영한 결과였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코로나19 1차 유행 이후 장기화 양상에서 고용률이 줄어드는 모습은 청년층 내에서도 주로 정규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들에게서 확인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청년층 전체의 1차 유행기와 3차 유행기의 고용률 감소 폭은 각 시기에 따라 청년층 내 다른 집단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한편, 청년노동시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청년층 내에서도 여성은 노동시장에 남아 괜찮은 일자리를 기다리기보다는, 노동시장에 바로 진입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한다(안주엽, 홍서연, 2002; 오유진, 김교성, 2019; 이상직 외, 2019).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청년층 여성의 영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1차 유행 당시 학생인 청년 여성의 감소폭은 상당히

켰는데, 이처럼 남녀 간 차이가 두드러지는 까닭은 학생일지라도 여성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서비스직(31.5%, 남: 26.8%)과 판매직(24.6%, 남: 16.0%),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37.4%, 남: 26.9%), 교육 서비스업(18.0%, 남: 11.7%)에 종사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았다는 점과 관련 있어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 그리고 학생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가 상당히 분절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여성 청년들이 더 크게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7] 고용 여부에 대한 성·학생 여부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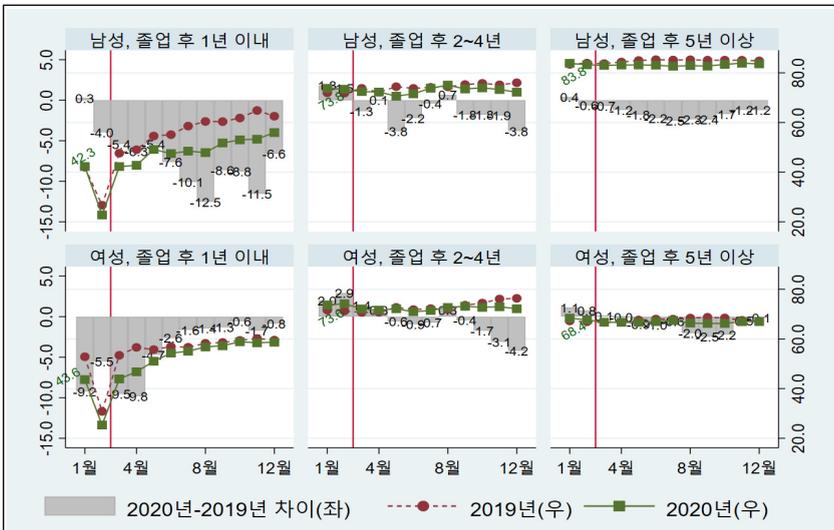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그렇다면 학교를 마친 청년들에서 졸업 경과 기간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이 다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졸업 후 1년 이내인 집단과 졸업 후 2~4년이 경과한 집단, 졸업 후 5년이 경과한 집단으로 나누고 이를 성별로 다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그림 4-8]을 살펴보면 졸업 후 1년 이내인 집단은 평균 고용률이 남성 42.3%, 여성 43.6%로, 절반이 안 되는 이들이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청년들이 졸업 후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데 드는 시간이 평균 12개월이라는 연구 결과(김유빈, 최충, 2017)와 일치하는 양상으로 보인다. 통상 졸업 후 1년 이내인 청년들은 졸업 시점에 해당하는 2월경 신규 졸업자들이 유입되면서 고용률이 급격하게 낮아졌다가 이후 연간 내내 고용률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인다. 2020년 역시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지만, 2019년 같은 달에 비하여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그림 4-8] 졸업 후 경과 기간별 고용률

(단위: %포인트, %)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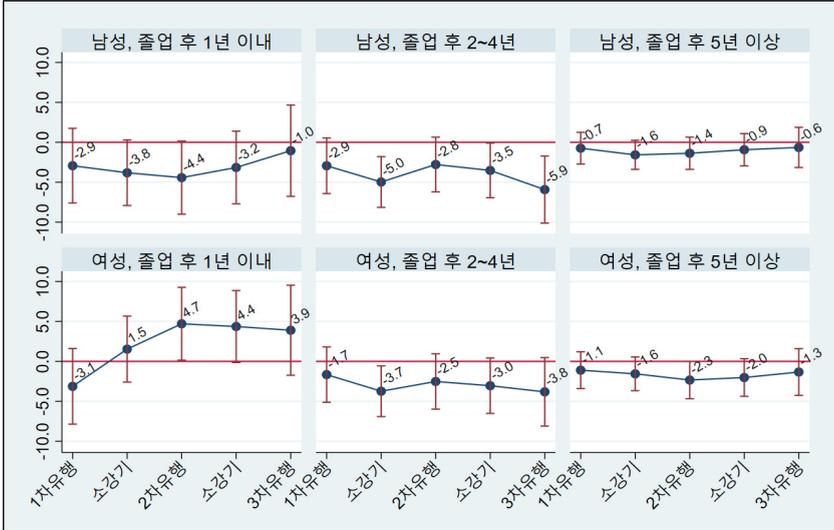
물론 이러한 양상은 남성과 여성 청년이 다소 다르다. 남성 청년들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 감소가 주로 2020년 하반기에서 관측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주로 상반기에 관측되었다. 남성 청년들은 하반기에 이르러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이 12.5%포인트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 졸업자들은 4월에 9.8%를 기록하였으나, 이들은 1~2월 경에도 큰 고용률 하락을 보였다.

졸업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집단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한 이후 고용률 하락이 두드러져 보인다(그림 4-8). 가령 졸업 후 2~4년 경과한 이들은 12월에 이르러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이 남성 3.8%포인트, 여성 4%포인트 하락하였다. 졸업 후 5년 이상 경과한 이들의 경우 8~9월경 고용률 하락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졸업 후 1년 이내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1차 유행의 즉각적인 영향을 받은 반면에, 졸업 후 1년 이내 남성과 2~4년 사이 남녀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그림4-9]를 살펴보면 졸업 후 1년 이내인 이들의 고용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는다.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 감소폭이 높은 것과 달리 코로나19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까닭은 졸업 후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찾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0년 관측된 고용률 감소폭은 코로나19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추세 결과인 것이다. 실제로 졸업 후 1년 이내 청년의 고용률은 2017년 55.9%, 2018년 55.7%, 2019년 53.6%, 2020년 48.0%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림 4-9] 고용 여부에 대한 졸업 후 경과 기간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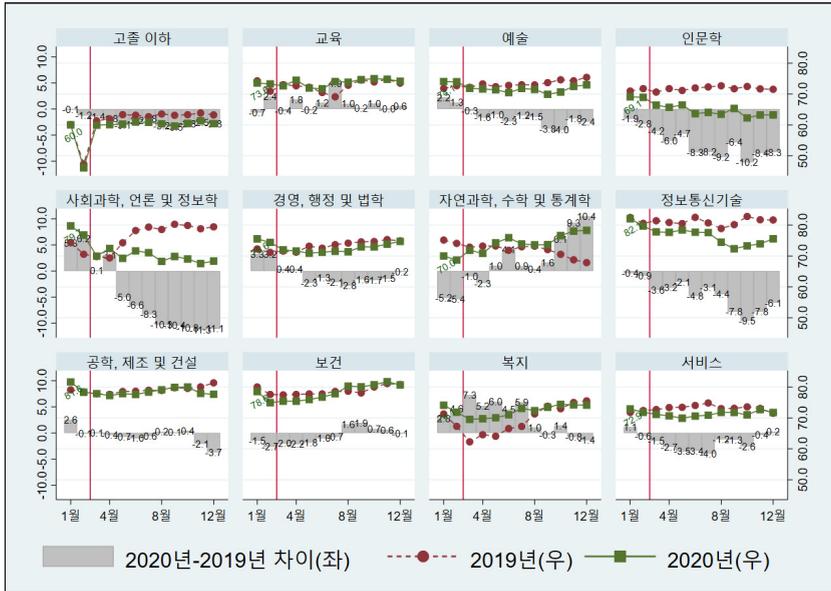
다음으로 청년층 중에서도 정규교육기관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나온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계열별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달랐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그림 4-10]을 살펴보면, 교육계열에 따라서 고용률 수준과 월별 동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고졸 이하 청년의 경우 통상 2월 고용률이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에는 연간 내내 전년 동월 대비 2.5%포인트 낮은 고용률을 기록하였다.

전문대 중퇴나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청년들의 경우 2020년 3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큰 폭의 고용률 감소를 보이는 전공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분야였다(그림 4-10). 이들의 감소폭은 3~4월 보다 연말로 갈수록 그 폭이 더욱 커져서, 사회과학 전공자는 12월경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이 11.1%포인트 줄어들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기술 전공과 서비스 전공, 예술 전공도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 감소가 눈에 띈다. 복지 분야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이 감소하지는 않았으나, 1~2월경에도 고용률이 오르고 있었던 추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 증가는 아닐 수 있어 보인다.

[그림 4-10] 교육계열별 고용률

(단위: %포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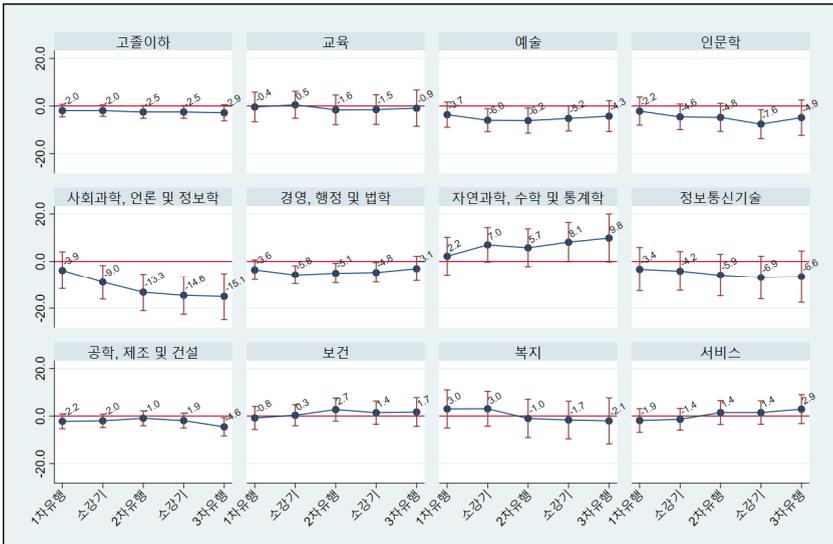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그림 4-11),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률이 유의하게 줄어든 집단은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경영, 행정 및 법학 전공이었다. 정보통신기술의 경우 계수는 음수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는 아니었다. 이처럼 코로나 19의 영향이 감염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예술이나 서비스 분야가

아닌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들 전공 졸업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월 당시에도 고용률이 인문학 69.1%, 사회과학 79.7%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코로나 19 이후 더 큰 폭으로 고용률이 줄어든 셈이다.

[그림 4-11] 고용 여부에 대한 교육계열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제2절 일시휴직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직후 일자리를 갖고 있어서 노동 시장을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았으나, 일시휴직 중인 이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Ham, 2021; Montenovo et al., 2020). 이러한 일시휴직은

노동시장에서 취업 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용률만으로는 실제로 지난 주에 일을 쉰 이들의 비율을 가늠하기 어렵다. 본 절에서는 청년층 내 일시 휴직의 규모에 대하여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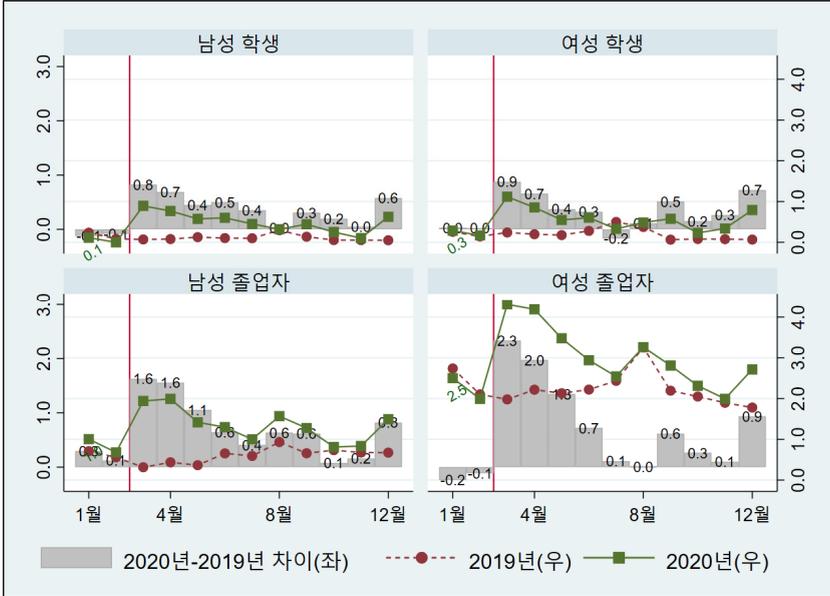
우선 청년층의 일시휴직 규모는 여타 연령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략 1차 유행기 당시 1.5%포인트, 3차 유행 당시 0.8%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는 장년층(2.7%포인트)이나 중년층(2.3%포인트), 노년층(4.8%포인트)의 1차 유행 당시 규모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청년층의 고용률 자체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휴직을 경험한 비율은 여타 연령층에 비하여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sup>4)</sup>.

청년층 내에서도 어떠한 집단에서 주로 일시휴직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자 (그림 4-12). 우선 일시휴직은 성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보육시설과 학교가 폐쇄되어 가족 내 돌봄 욕구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일시휴직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2020년 1월 당시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일시휴직 비율을 보였다. 졸업한 청년 여성의 경우 2.5%가 일시휴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 졸업자의 1.0%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았다. 그러다 3월에 이르러서는 졸업한 청년 여성의 일시휴직 비율이 4%를 넘겨, 전년 동월 대비 2.3%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졸업한 남성 청년과 학생인 남녀 청년들 역시 이 시기에 일시휴직자의 비율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각각 1.6%포인트와 0.8%포인트, 0.9%포인트로 여성 졸업자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폭을 그렸다 (부록, 부도4-1 참고).

4) 연령집단별 자세한 결과는 부록의 부도4-1에 수록하였다.

[그림 4-12] 성·졸업 여부별 일시휴직자 비율

(단위: %포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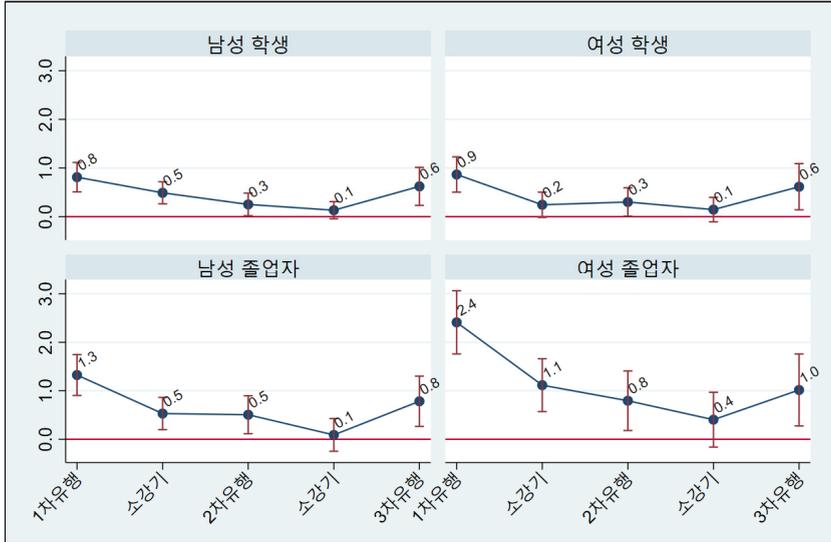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회귀분석 결과 역시 동일한 양상을 나타낸다(그림 4-13). 모든 청년층에서 일시휴직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특히 졸업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졸업자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 졸업자들은 1차 유행기 당시 일시휴직자 비율이 2.4%포인트가량 증가하였으며, 그 후 다소 낮아지다가 3차 유행기에 다시 1.0%포인트가량 일시휴직자 비율이 높아진다. 남성 역시 패턴은 동일했다. 다만, 남성 졸업자는 1차 유행기와 3차 유행기에 각각 1.3%포인트와 0.8%포인트를 기록하여 여성보다 그 비율이 낮았다.

[그림 4-13] 일시휴직에 대한 성·졸업 여부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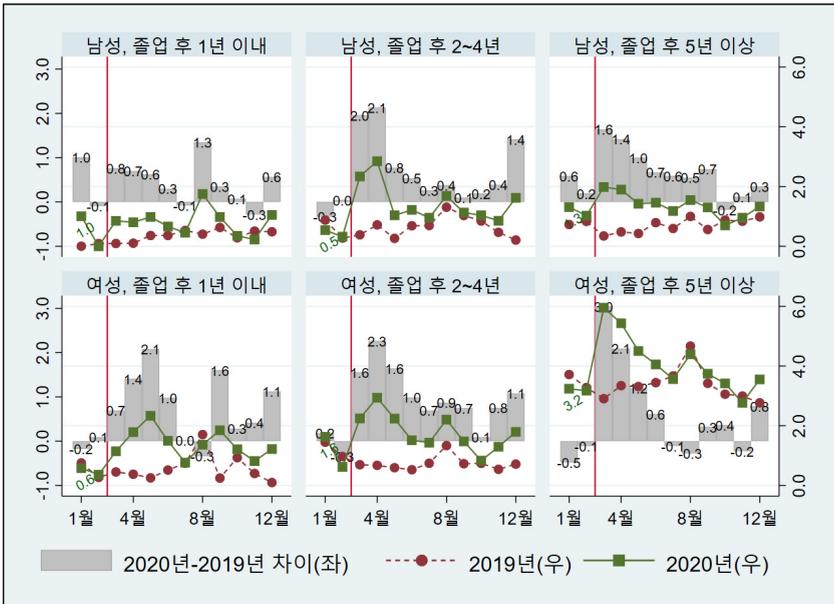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졸업 이후 경과 연수에 따른 일시휴직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림 4-14). 우선 졸업 후 5년 미만이 경과한 집단은 노동시장 내에서 기본적으로 일시휴직자의 비율이 낮았다. 이는 졸업 후 1년 이내인 청년들의 고용률이 50% 이하에 머무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차이를 살펴보면, 졸업한 지 오래된 청년들의 전년 동월 대비 일시휴직자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1년 이내인 이들은 남성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최대 0.8%포인트, 여성은 1.4%포인트가량이 증가하였다. 졸업 후 2~4년이 경과한 청년은 남성과 여성 모두 2%포인트 내외로 일시휴직자 비율이 높아졌다. 졸업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남성은 1.6%포인트, 여성은 3.0%포인트 일시휴직자

비율이 높아졌다. 대체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게서 일시휴직자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졸업 후 5년 이상 경과한 여성들의 비율이 높았다.

[그림 4-14] 졸업 후 경과 기간별 일시휴직자 비율

(단위: %포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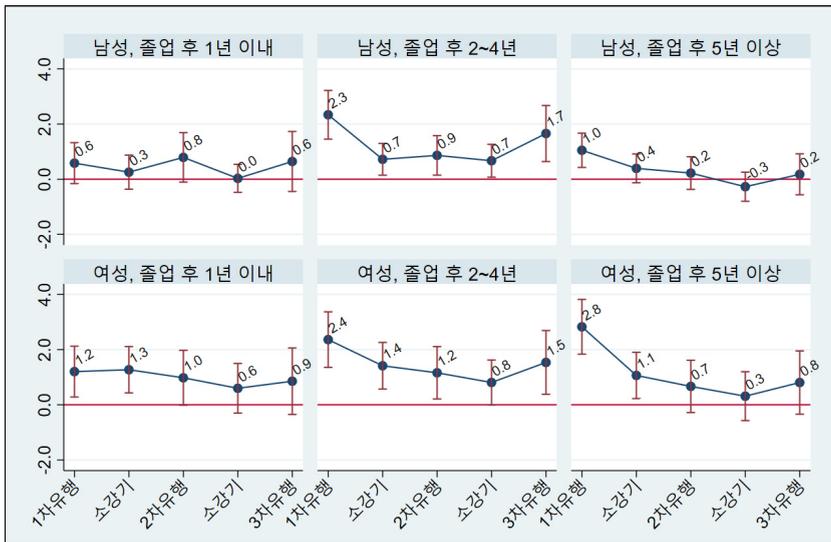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을 대조집단으로 이중차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그림 4-15), 졸업 후 2~3년 경과한 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차 유행기에 일시휴직자 비율이 2.4%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이후 2020년 전반에 걸쳐 일시휴직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12월 3차 유행 당시에는 그 크기가 더 커져 1.6%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졸업 후 2~4년 사이의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큰 고용률 감소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일시휴직

자의 비율도 가장 높아 취약한 처지임을 보여준다. 한편, 졸업 후 5년 이상 지난 청년들의 경우 남녀 간 차이가 두드러져 보인다. 여성 청년들의 경우 1차 유행기 당시 일시휴직자 비율이 2.8%포인트가량 늘어나, 남성의 1.0%포인트에 비하여 세 배 가까운 증가폭을 그렸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노동시장에 이미 안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들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일시휴직률이 상당히 높았음을 나타낸다.

[그림 4-15] 일시휴직에 대한 졸업 후 경과 기간별 회귀분석 계수

(%포인트, 청년 대상)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이처럼 여성의 높은 일시휴직률이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같이 코로나 19로 인한 육아 부담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시기 일시휴직자의 일시휴직 사유를 확인하였다(표4-1). 우선, 일시휴직의 사유를 육아

및 가족적 이유라고 응답한 이들의 수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성별 차이를 보더라도, 졸업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육아 및 가족적 사유로 일시휴직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남녀 차이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있던 것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육아 및 가족적 사유로 일시휴직한 이들의 수는 크게 늘지 않았다.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을 보더라도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도 전년 동월 대비 육아 및 가족적 사유에 따른 실직자 수가 감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시 휴직 비율에 따른 성별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예상처럼 이러한 차이가 여성의 돌봄 역할로 인하여 발생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인하여 일시휴직 중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코로나19 이후 확연히 증가하는 추세를 그린다. 즉, 코로나 이후 일시휴직자의 증가가 대부분 사업부진이나 조업 중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증가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코로나19 1차 유행기인 2020년 3~4월경 사업부진과 조업 중단을 이유로 일시휴직한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남성은 31배, 여성은 60배 증가하였다. 여성 청년 졸업자 중 육아 및 가족적 이유로 일시 휴직한 수가 6만 7천여 명이었던 반면, 사업부진으로 인해 휴직한 수는 12만 8천여 명으로 그 규모가 훨씬 컸다. 남성 청년 졸업자 중 사업부진으로 인한 일시휴직자가 10만 5천여 명이었던 점에 견주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일시휴직을 경험한 이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다. 이는 여성, 특히 청년 여성의 높은 일시휴직율이 청년 남성에 비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더 취약한 일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 청년 일시휴직자의 사유별 빈도

(단위: %, 천 명)

	2019년 대비 2020년 증감률(%)					2020년(천 명)						
	코로나 이전	1차 유행	소강기	2차 유행	소강기	3차 유행	코로나 이전	1차 유행	소강기	2차 유행	소강기	3차 유행
육아 및 가족적 사유	남성 학생	-	-	-85.3	-	-	0.0	0.0	0.0	0.2	0.0	0.0
	여성 학생	-53.0	-14.4	100.6	-	-5.5	1.1	2.2	5.6	2.2	1.1	0.6
	남성 졸업자	-35.3	-13.1	-43.1	-56.1	-41.2	8.9	5.8	6.7	5.0	8.4	4.8
	여성 졸업자	-23.1	-22.2	-32.3	-33.5	-23.7	-25.8	68.3	67.7	95.0	57.2	59.5
사업 부진, 취업 중단	남성 학생	-	-	-	-	-	0.0	26.3	16.6	6.6	5.2	7.6
	여성 학생	-	1418.0	-	1339.7	-	0.0	22.3	11.4	8.2	3.7	8.2
	남성 졸업자	1040.3	3108.8	1403.4	689.9	341.9	8.7	105.7	63.0	27.3	20.4	30.8
	여성 졸업자	114.1	6009.0	3414.7	1685.3	255.2	4.6	128.1	92.4	46.3	15.3	25.4

주1: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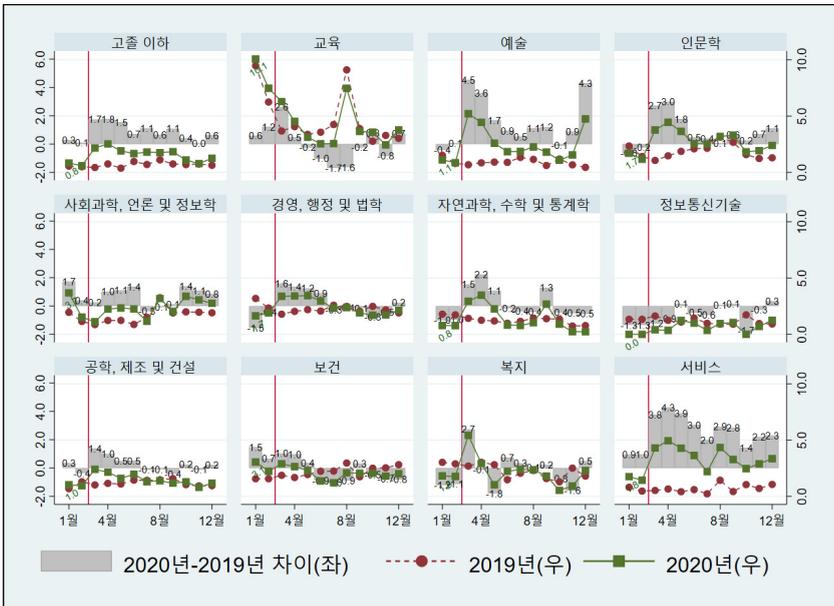
주2: 모든 값은 가중치 적용한 수치이며, 빈도는 각 월별 빈도의 해당 기간 합계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주3: 연령집단을 제외한 세부 집단 분석은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했다. 교육계열의 경우 초대졸 재학 이상 청년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을 마친 청년들 중에서 교육계열별로 코로나19로 인한 일시휴직률 증가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자(그림 4-16). 우선 전년 동월 대비 증감 수준을 살펴보면,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집단에서 예술 분야와 인문학, 서비스 분야에서 일시휴직자의 증가가 두드러져 보인다. 교육 전공 졸업자들의 경우 겨울과 여름에 일시휴직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교육기관의 경우 방학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계절적 패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6] 교육계열별 일시휴직자 비율

(%포인트, 청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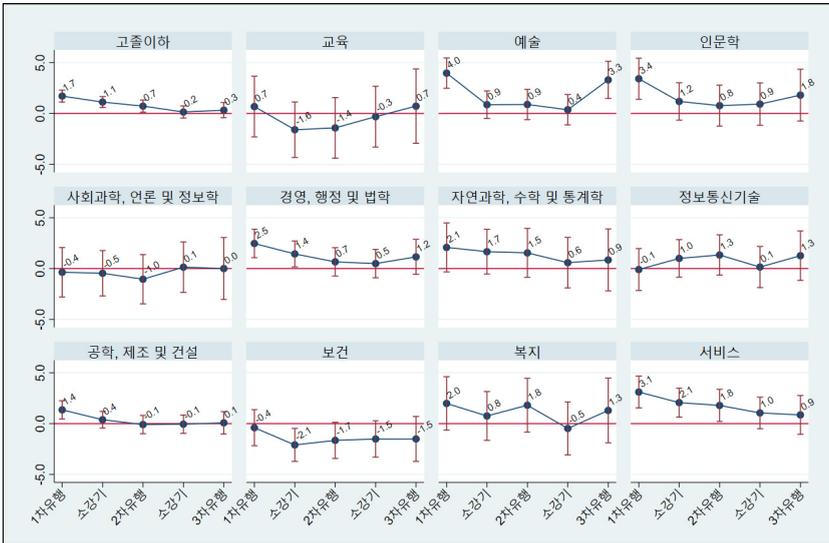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회귀분석의 결과 역시 기술통계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그림 4-17). 예술 분야와 서비스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

휴직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집단인데, 1차 유행 당시 예술 분야는 4.0% 포인트가 증가, 서비스 분야는 3.1%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예술 분야의 경우 12월 3차 유행 당시에도 일시휴직자가 다시 3.3%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인문학 분야와 경영, 행정 및 법학 분야 졸업자들 역시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일시휴직자 수가 유의하게 늘어나, 이들 전공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률 감소뿐만 아니라 일시휴직 증가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건 전공자들의 경우 일시휴직자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림 4-17] 일시휴직에 대한 교육계열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19 국면에서 대부분의 일시휴직자가 사업부진이나 조업중단과 같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휴직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들이 무급 휴직을 하는지, 아니면 유급 휴직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유급 휴직 기간이 길게 이어지지 않으며, 코로나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휴직 역시 소득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앞서 살펴보았듯,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휴직은 청년층 내에서도 집단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일시휴직은 학생인 청년보다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이들에게서 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은 일시휴직자의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통상 이러한 남녀 차이가 여성의 가정 내 역할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사업부진 같은 사업장 요인으로 일시휴직을 하는 청년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즉, 여성의 돌봄 역할보다는 여성이 일하는 일자리의 문제인 것이다. 한편, 전체 졸업자 중에서 졸업한 이후 2~5년 경과한 집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휴직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청년층 내에서도 예술, 서비스 부문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분야와 인문학 분야에서 일시휴직자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주요 고용지표라 할 수 있는 고용률을 토대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주로 어떠한 인구사회적 집단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 고용 중이더라도 코로나19 시국에서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일시적 휴직을 겪은 이들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연령집단별로는 노년층이 가장 큰 고용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년층은 노년층 다음으로 큰 영향을 받은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노동시장에 안착한 중장년층에 비하여 노동시장 내에서 주로 주변적 (marginal)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노년층과 노동시장 내 주된 일자리로 이행 및 교육과 부업을 병행하는 등의 상황에 있는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요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세부 집단별 양상을 살펴보면 특히 학교를 졸업한 이후 2~4년 경과한, 노동시장으로 이행기에 있는 남성 청년들이 받은 영향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고용률 감소는 코로나19 직후의 영향 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더욱 커지는 양상을 그린다. 가령, 12월 당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률이 5.9%포인트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 노동시장 내에서 주로 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을 하면서 경기 변동에 따라 빠르게 노동시장을 드나드는 학생인 청년들과는 다른 양상이다.

더불어 청년층 내에서도 특히 인문·사회과학 계열 전공자들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이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 1~2월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과학 분야의 고용률 감소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한 12월경 10%포인트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층 내에서도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술과 서비스 전공자들보다도 큰 수치이다. 청년층 내에서도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공자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예상되는 예술과 서비스 부문 전공자들 역시 주요한 영향을 받은 집단이었다. 이들의 경우 고용률

감소도 관측되지만, 일시휴직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학교를 마친 청년 중 일시휴직을 경험하는 이들은 특히 예술과 서비스 전공에 몰려 있었으며, 본래 이들의 취업률이 다른 전공에 비하여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취업자들 중 일시휴직 중인 비율이 여타 전공에 비해서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 예술과 서비스 전공 졸업자들은 임시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여타 전공에 비하여 상당히 높았다. 이는 이들이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휴직 상태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급휴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즉,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집단으로 보인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5장

### 코로나19 시기, 일하는 청년은 왜 줄어들었는가?

제1절 최근 실직 경험

제2절 최근 입직 경험

제3절 소결



## 제 5 장

# 코로나19 시기, 일하는 청년은 왜 줄어들었는가?

본 장에서는 제4장에서 살펴본 청년층 고용률의 감소가 노동시장의 유출과 유입 중 어떠한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청년층의 경우 경제위기 시 실직보다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지 못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동시장 유입과 유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각 연월)에서 “일을 그만둔 시기”와 “직장 시작 시기”를 토대로 지난달이나 이달에 일을 그만두거나, 일을 시작한 경우를 각각 노동시장 유출과 노동시장 유입으로 파악하였다.

이런 방식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우선 알려둔다. 일을 그만둔 시기의 경우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는 반면, 직장을 시작한 시기는 임금근로자만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는 제외되었다. 고용원이 없는 프리랜서 형태의 자영업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입직이 전체 노동시장의 유입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개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사가 아닌 만큼, 최근 한 달 이내에 노동시장에 얼마나 자주 드나 들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최근 한 달 이내에 실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실직자로 파악되지 않았다. 본 장의 결과는 이러한 측정상의 한계에 주의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제1절 최근 실직 경험

본 절에서는 지난달이나 이번 달에 일을 그만둔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청년층의 세부 집단별로 최근 실직을 경험한 이들의 비율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청년 세부 집단별 최근 실직자 수의 경우 이전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최근 실직 경험을 1, 미경험을 0으로 보고 최근 실직자 비율의 변동폭을 살펴보았다. 다만, 최근 실직한 청년의 노동시장 특성의 경우 범주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확률로 파악할 경우 의미의 해석과 결과의 보고가 어려우며, 최근 실직을 경험한 비율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비율이 아닌 최근 실직자의 수(천 명)를 토대로 값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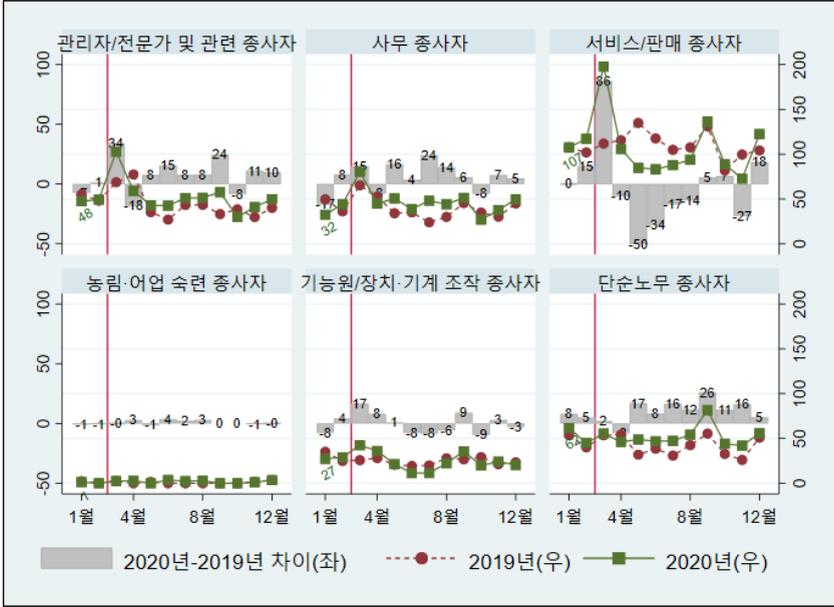
### 1. 최근 실직 청년의 노동시장 특성

우선 최근 실직 청년의 노동시장 특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최근 한 달 이내에 실직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이들의 이전 일자리가 어떠한 직업, 산업, 종사상 지위, 기업 규모에 속하였는지를 확인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주로 어떠한 청년 일자리에서 실직이 늘었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직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따라 실직자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직종은 서비스/판매 종사자였다(그림 5-1). 이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예상 가능하며,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된 결과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서비스 직종의 실직자 수 증가가 두드러진 것이다.

[그림 5-1] 전직 직업별 최근 실직 청년의 수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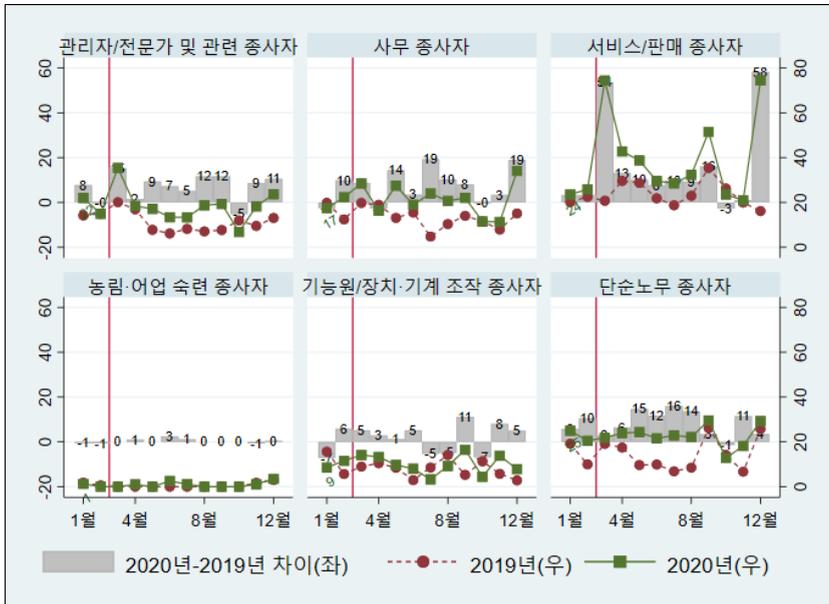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만, 이들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경우 3월에 최근 실직자 수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들었다가 12월경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경우 본래 이직률이 높은 직업이므로, 이 시기에 실직한 이유가 작업 여건에 대한 불만족과 같은 자발적 성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의 영향을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실직, 즉, 직장의 휴업과 폐업, 명예·조기 퇴직, 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사업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비자발적인 실직” 경험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림 5-2]와 같이 비자발적인 최근 실직 경험을 직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비스 판매 종사자는 1차 유행기인 3월 이후에도 연중 내내 지속해서 최근 실직자 수가 증가하며, 12월경 다시 그 수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이후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 사업장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관측된다. 즉, 서비스/판매 종사자를 비롯한 이들 일자리는 본래 이직이 잦은 일자리로, 코로나19에 따라서 오히려 자발적 이직의 수가 감소하면서, 전체 실직 규모는 코로나19 소강기인 전년 동월 대비 2020년에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5-2] 전직 직업별 최근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청년의 수

(단위: 천 명)



주: 비자발적인 실직이란 실직의 사유가 직장의 휴업과 폐업, 명예·조기 퇴직, 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경영의 악화로 인한 실직일 경우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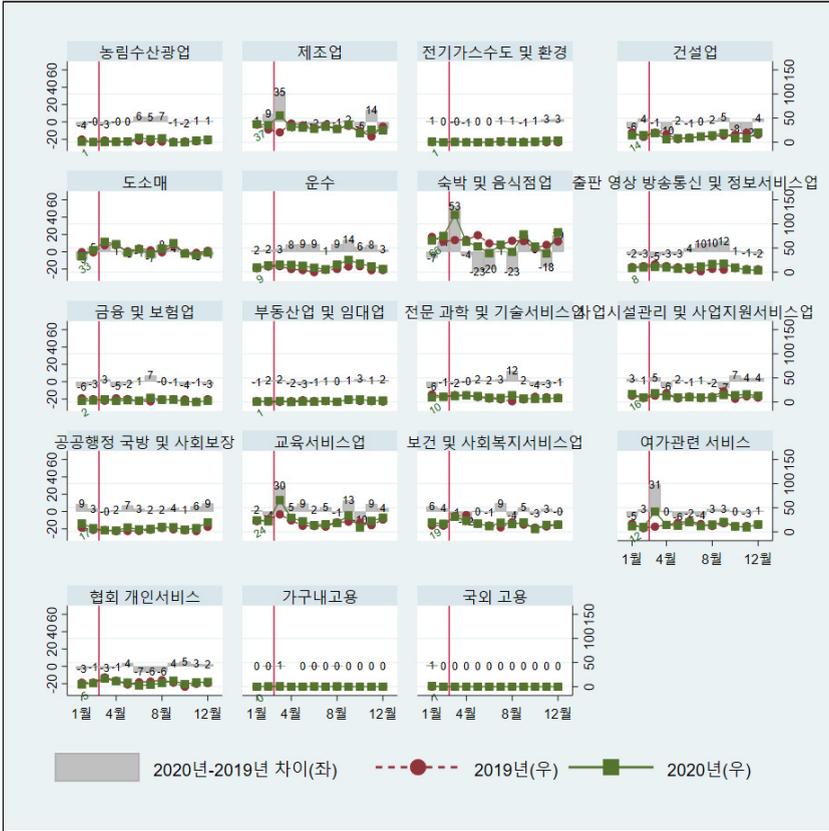
그러나 비자발적인 실직만을 고려했을 때는 실직자의 수가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를 그린다. 이는 경제가 호황일 때는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 이직이 늘어나는 반면, 불황에는 이직이 줄고, 비자발적인 실직이 증가한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에서 살펴보는 최근 이직 사례의 증감은 자발적 실직의 감소와 비자발적 실직의 증가가 모두 영향을 미친 결과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비자발적인 이직에 관한 자료는 부록의 [부도 5-1]부터 [부도5-3]에 별도로 수록하였다.

한편,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들의 경우 최근 실직자의 수가 코로나19의 유행기와 관련 없이 꾸준히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5-1). 특히 코로나19의 유행 이전인 2020년 1~2월에도 그 수가 일부 증가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은 주로 대면서비스 관련 직종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그림 5-3]의 업종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실직 청년의 수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코로나19가 유행한 3월과 9월, 12월에 큰 폭으로 비자발적인 실직자 수가 증가하여(부록, 부도5-1), 코로나19의 유행 국면마다 실직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교육서비스업 역시 대면서비스가 필요한 업종으로 코로나19 이후 연중 내내 높은 비자발적인 실직자 수 증가를 나타냈으며, 역시 대면서비스 업종이라 할 수 있는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최근 실직자 수 증가가 코로나19 1차 유행기인 3월에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5-3] 전직 산업별 최근 실직한 청년의 수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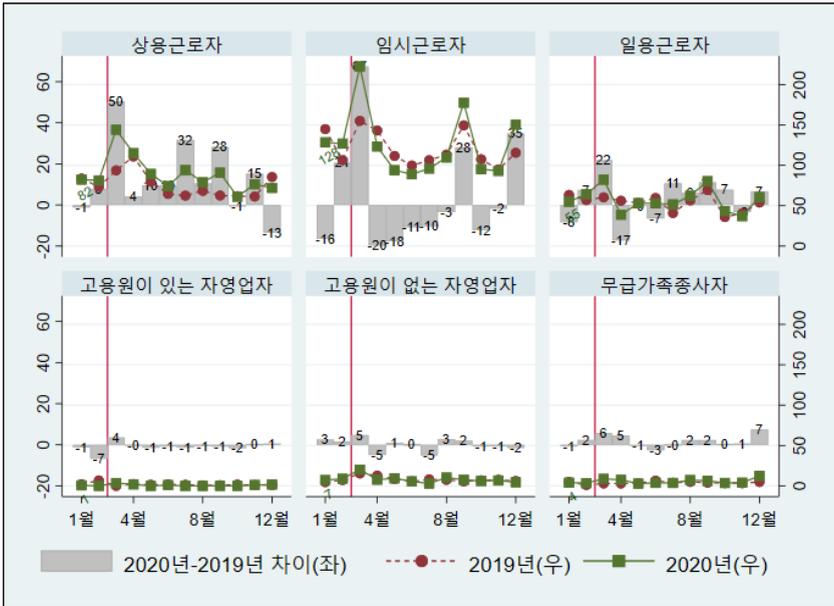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종사상 지위별 양상을 살펴보면, 청년 실직자 수는 주로 임시직 근로자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그림 5-4). 특히 부록의 [부도 5-2]를 보면 임시직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의 수는 연중 내내 늘어난다. 본래 임시직의 경우 이직이 잦은 직종으로 자발적 이직의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면서, 코로나19 소강기에는 실직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상용직 근로자들 역시 코로나19 이후 실직자의 수가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의 증가가 임시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4] 전직 종사상 지위별 최근 실직 청년의 수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사업장 규모별 양상을 살펴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코로나 19 확산 시기마다 최근 실직 청년의 수가 급증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5-5). 이들 역시 이직이 잦은 일자리로 평년 동월 대비 코로나19 소강기에는 실직자의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는 부록의 [부도 5-3]에서 비자발적 실직 청년의 수가 코로나19 이후 내내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한편,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 유행기에도 실직자의 수가 늘어나지는 않았다.

[그림 5-5] 전직 사업장 규모별 최근 실직 청년의 수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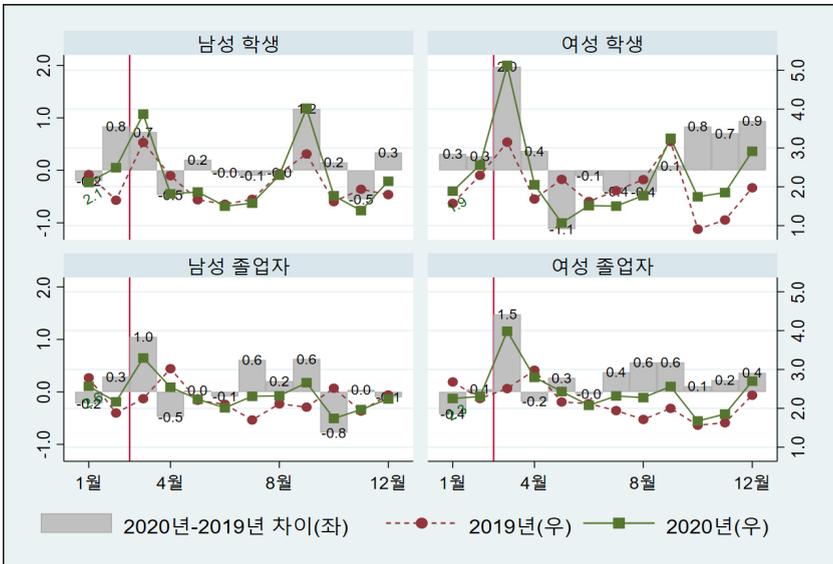
앞선 결과를 종합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은 주로 감염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비스와 판매직,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영세 사업체와 임시직 근로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일자리는 코로나19의 주요 유행기에 실직자 수가 많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 역시 주목해볼 만한 지점이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청년층 내에서도 주로 정규교육 과정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 졸업 후 1년 이내인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 있는 이들과 청년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라는 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비자발적인 실직 경험은 이들 집단에서 주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2. 코로나19의 확산과 청년층의 최근 실직 경험

그렇다면 청년층 내에서도 주로 실직을 경험한 이들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그림 5-6]에서 졸업 여부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하여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3월에 최근 실직 경험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후에는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가 연말에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은 여성 중에서도 학생인 여성들에게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확인 하였듯, 학생 청년일지라도 여성들은 주로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코로나19에 따른 즉각적인 영향을 받아 일자리를 잃는 비율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5-6] 성·졸업 여부별 최근 실직자 비율

(단위: %,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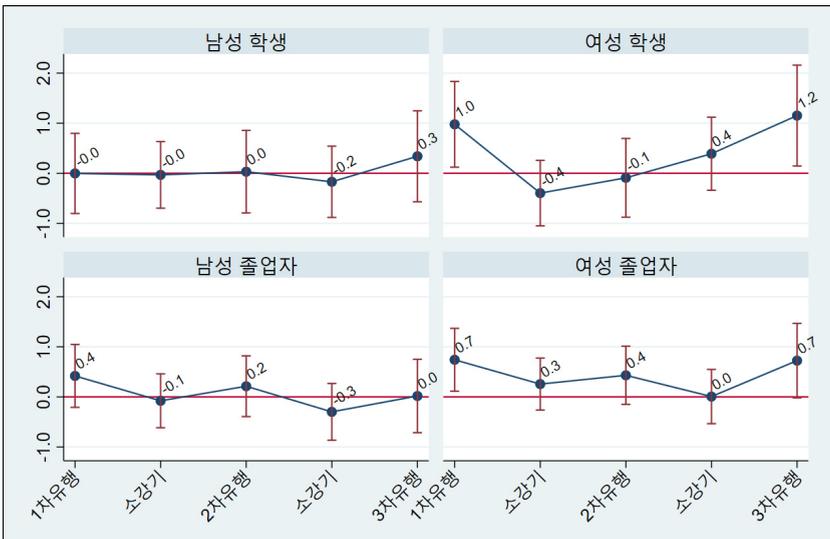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5-7]은 최근 실직 경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졸업 청년과 학생인 청년 모두 남성에게서는 유의한 최근 실직비율 증가가 관측되지 않는 반면 여성의 경우 최근 실직 비율이 유의하게 늘어났다. 특히 여성들은 1차 유행기에 학생이 1.0%포인트, 졸업자가 0.7%포인트가량 증가하였으며, 여성 학생들의 경우 3차 유행에 그 수치가 다시 증가하여, 1.2%포인트를 기록하였다.

[그림 5-7] 최근 실직 경험에 대한 성·졸업 여부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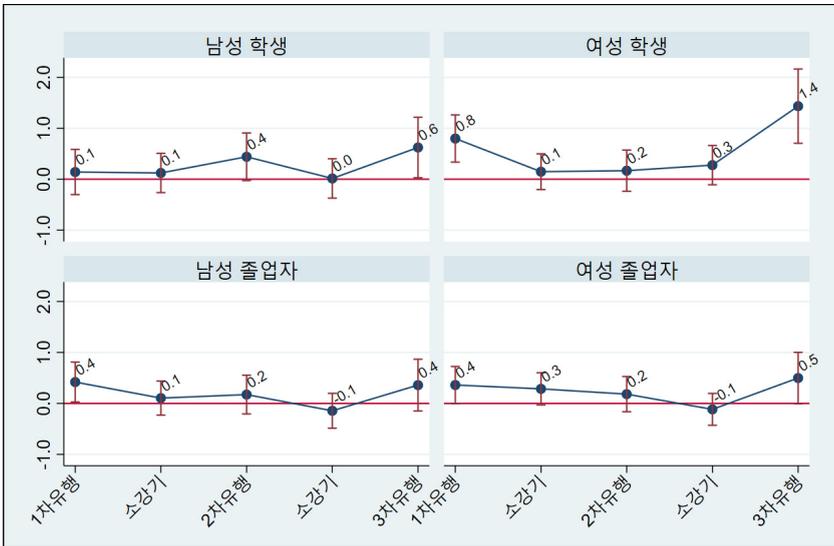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한편 이러한 실직 경험은 앞서 살펴보았듯, 코로나19에 따른 이직 감소(자발적 실직 감소)와 실직 증가(비자발적 실직의 증가)의 영향이 모두 섞여 있으며, 둘은 반대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자발적 실직을 따로 살펴보면 [그림 5-8]과 같이 코로나19 기간에 최근 실직 경험이 감소 없이

증가한다. 특히, 학생인 여성은, 1차 유행 당시 0.8%포인트, 3차 유행 당시 1.4%포인트 최근 실적 비율이 증가하였다. 남학생 역시 자발적 이직의 감소를 빼고 보면, 12월경 비자발적 이직이 0.6%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남성 졸업자들 역시 1차 유행기 당시 0.4%포인트 비자발적 실직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그림 5-7]에서 남성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이들의 비자발적 실직이 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탐색적인 이직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둘의 혼합 효과로 실직의 수가 작아진 데 따른 결과였던 것과 같은 양상이다.

[그림 5-8] 최근 비자발적 실직 경험에 대한 성·졸업 여부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주1: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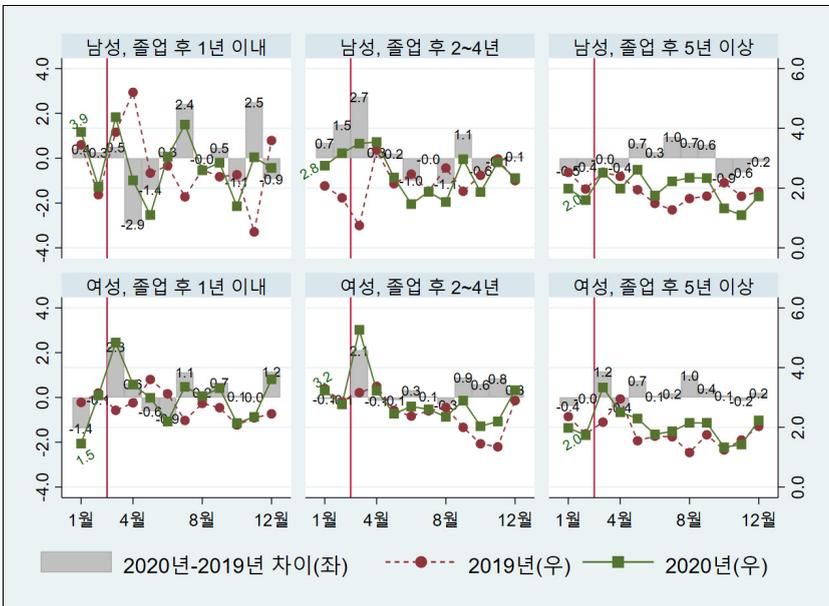
주2: 비자발적인 실직이란 실직의 사유가 직장의 휴업과 폐업, 명예·조기 퇴직, 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경영의 악화로 인한 실직일 경우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졸업 이후 경과 시점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보면, 졸업시점이 4년 이내인 이들의 경우 노동시장 내 최근 실직률이 기본적으로 코로나 19 발생 이전부터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9). 가령, 졸업 후 1년 이내인 이들은 2020년 1월에 남성은 3.9%, 여성은 1.5%가, 졸업 후 2~4년 경과한 청년들은 남성은 2.8%, 여성은 3.2%, 졸업 후 5년 이상 경과한 청년들은 남녀 모두 2.0%가 지난달이나 이달에 실직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청년들의 첫 일자리 근속 기간이 평균 19개월에 불과하며, 1년 유지율로 보더라도 62%에 불과하다는 점(김유빈, 최충, 2017)에서 졸업 후 4년 이내인 청년들은 여전히 이직을 통하여 일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9] 남녀 청년의 졸업 후 경과 연수별 최근 실직 경험률

(단위: %포인트, 청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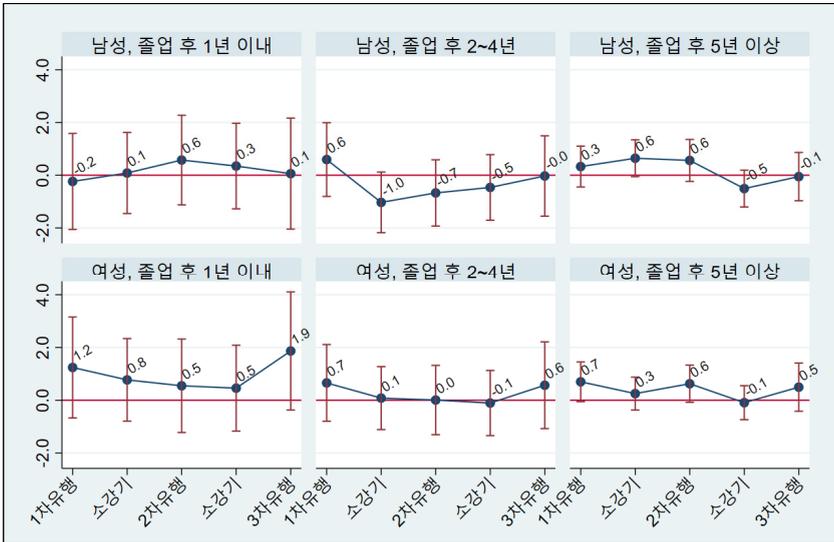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교육을 마친 뒤 노동시장에 진입한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자리 잡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5-9). 코로나19 이후의 증감 폭을 보아도 졸업 후 1년 이내는 최근 실업자의 비율이 전년 동월 대비 8월에는 남성 2.4%포인트, 여성 1.1%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졸업 후 2~4년 경과한 이들은 3월 남성 2.7%포인트, 여성 2.1%포인트 증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전년 동월 대비 차이는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해본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유의한 영향으로 보기는 어려웠다(그림5-10). 모든 집단에서 코로나19 이후 최근 실직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그림 5-10] 최근 실직 경험에 대한 성별, 졸업 후 경과 연수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청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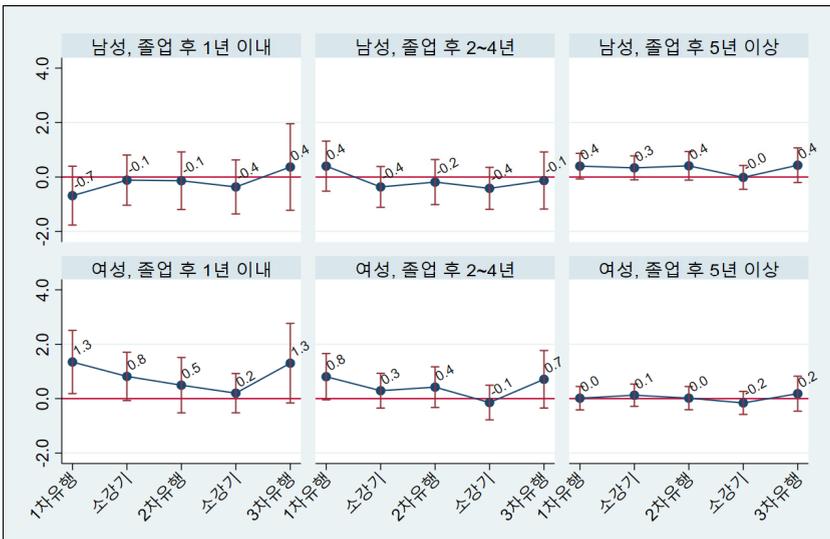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만, 여기서도 최근 실직 경험은 자발적인 실직의 감소가 섞여 있으므로, 이를 비자발적인 실직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그 결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5-11]을 보면, 졸업 후 1년 이내인 여성의 경우 사업 부진 등에 따른 비자발적인 실직은 코로나19 1차 유행기 당시에 1.3%포인트 가장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주로 대면서비스와 관련한 일자리에 실직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일에 주로 종사하는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여성들이 주로 실직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1] 최근 비자발적 실직 경험에 대한 성별, 졸업 후 경과 연수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청년 대상)



주1: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주2: 비자발적인 실직이란 실직의 사유가 직장의 휴업과 폐업, 명예·조기 퇴직, 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경영의 악화로 인한 실직일 경우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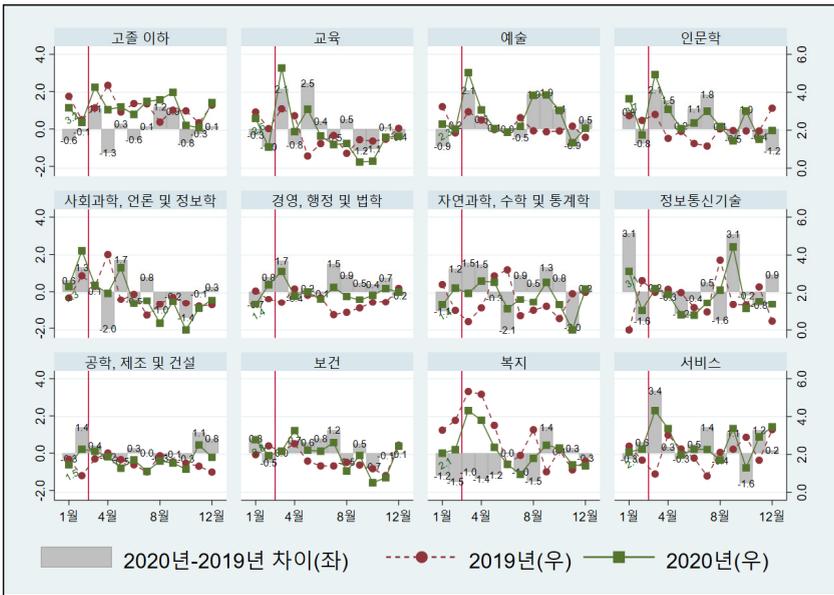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그림 5-12]는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학업을 마친 청년들의 전공계열별 최근 실직자 수를 살펴보았다. 최근 실직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나타내는 집단은 예술, 인문학, 경제, 행정

및 법학, 교육 등이 있다. 교육 전공은 주로 3~5월 상반기의 최근 실직자 비율 증가가 두드러지며 예술 전공은 3~4월과 8~10월의 증가가 두드러져 보인다. 이처럼 최근 실직자 수의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고용률이 감소한 집단에서 주로 관측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2] 교육계열별 최근 실직 경험률

(단위: %포인트, 청년 대상)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만 기술통계를 통하여 확인한 양상과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소 달랐다 (그림 5-13). 전년 동월 대비 최근 실직자 수가 늘어난, 예술과 인문학 분야에서 계수의 값이 크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예술 분야에서만 1차 유형 당시 최근 실직자 수가 2.0%포인트 증가하는 식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의 졸업자들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차 유형 당시 최근 실직을 경험한 비율이 1.1%포인트가량 올랐다. 여타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주로 주변부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고졸 이하 청년들과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예술계 전공 청년들의 실직 경험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비자발적인 실직만을 분리해 살펴보아도 유사했다.

[그림 5-13] 최근 실직 경험에 대한 교육계열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청년 대상)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년층 내에서도 특히 큰 규모로 고용률이 하락하였던 정규교육을 마친 남성 청년, 졸업 후 2~4년가량 경과한 청년, 인문사회과학 계열을 전공한 청년들에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최근 실직자의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 보이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직종과 업종을 중심으로 최근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증가하였다. 이들 일자리가 주로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인 여성 청년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기에, 학생인 여성 청년들과 졸업 후 1년 이내인 여성 청년들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고졸 이하의 상대적으로 저학력인 이들과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예술계의 실직 경험도 눈에 띈다. 이러한 결과는 김창환, 오병돈(2019)과 유정미(2017)의 논의처럼 본격적인 육아 및 가정생활에 들어가기 이전인 청년층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직업적 특성이 다르며, 이러한 직업적 분절은 특히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여성 청년들의 실직 경험을 증가시켜, 그들을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제2절 최근 입직 경험

그렇다면 청년층에서 최근 입직의 경험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자. 우선 최근 입직자의 직업, 산업, 종사상 지위, 사업장 규모, 전일제 여부와 같은 일자리의 특성을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여기서도 앞서 살펴본 최근 실직 경험과 마찬가지로 각 범주의 입직 경험률이 아닌, 실제 입직자의 수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입직자의 특성을 검토한 뒤 청년 내 집단별 입직 경험률이 코로나19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검토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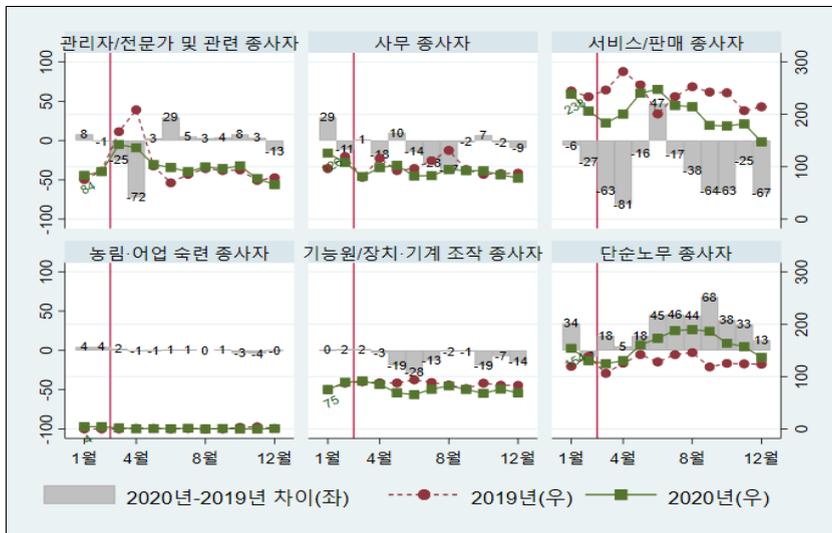
### 1. 최근 입직자의 특성

직업별로 전년 동월 대비 2020년의 최근 입직자 수 증감을 살펴보면,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입직자 수 감소가 가장 눈에 띈다.(그림 5-14).

이들은 앞서 살펴보았듯 비자발적인 실직자의 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직자 수가 감소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고용률 하락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별 입직자 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노무자의 증가다. 코로나19 이후 하반기에 이르러 청년 신규 입직자 중 단순노무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 8천 명이 증가할 정도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청년노동시장 내 여타 직종의 일자리가 줄어든 대신 주변화된 일자리로 볼 수 있는 단순노무직의 유입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주로 교육서비스업 등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들 역시 4월경 입직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코로나 19라는 전염병과는 관련성이 낮은 사무 종사자와 기계 조작 종사자들의 입직자 수가 코로나 소강기에 들어 감소하였다.

[그림 5-14] 직업별 최근 입직자 수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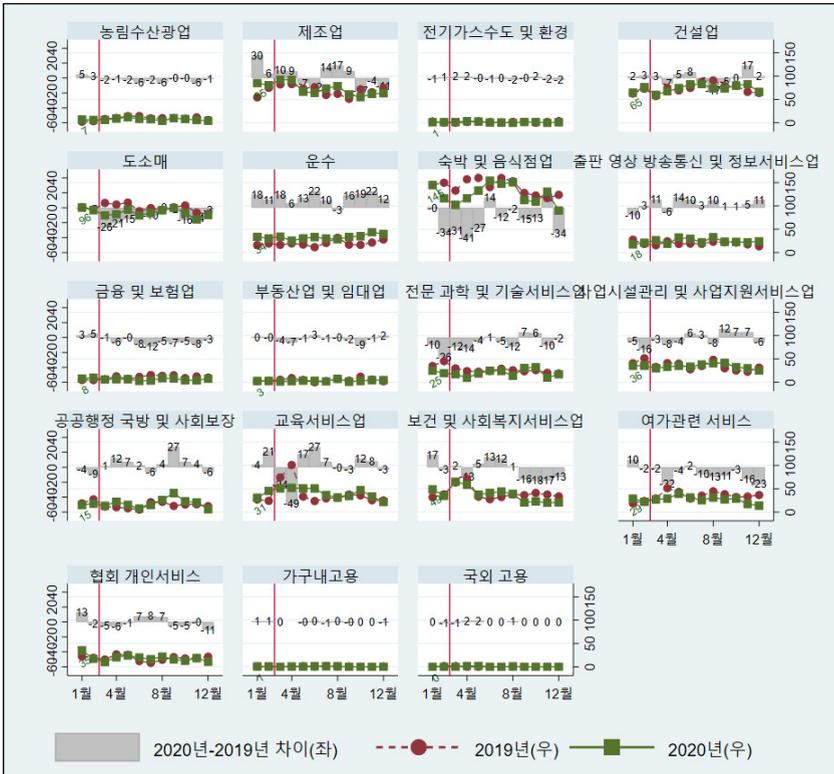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산업별 양상을 살펴보면, 여기서도 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여가 관련 서비스, 교육서비스업의 입직자 수 감소가 두드러진다(그림 5-15).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연중 내내 큰 감소폭을 나타내며, 특히 주요 유행기에 감소폭이 더 컸다. 교육서비스업은 주로 3~4월 입직자 수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체육 시설 등을 포함하는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1차 유행기와 3차 유행기에 입직자 수 감소가 두드러진다. 한편 공공행정 부분의 입직자 수 증가도 두드러지는데 이는 아래에서 별도로 다루었다.

[그림 5-15] 산업별 최근 입직자 수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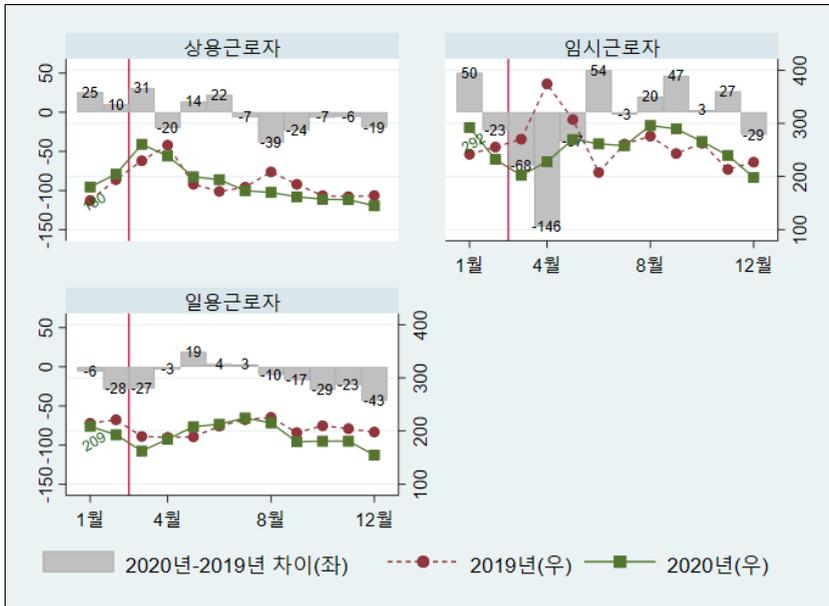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의 최근 입직자 감소세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그림 5-16). 일용근로자들의 경우 연말로 갈수록 최근 입직자 수가 증가하였다. 한편, 상용근로자들의 경우 2019년 3월과 8월에 각각 최근 입직자가 증가하는 쌍봉형 양상을 나타내는데, 2020년 3월에는 2019년과 유사하였으나, 하반기 채용이 전년처럼 이뤄지지 않으면서 8월과 9월에 각각 전년 동월 대비 최근 입직자 수가 3만 9천 명과 2만 4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을 임시근로자는 즉각적으로 경험하나,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불안정성이 더욱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하반기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입직자 수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그림 5-16] 종사상 지위별 최근 입직자 수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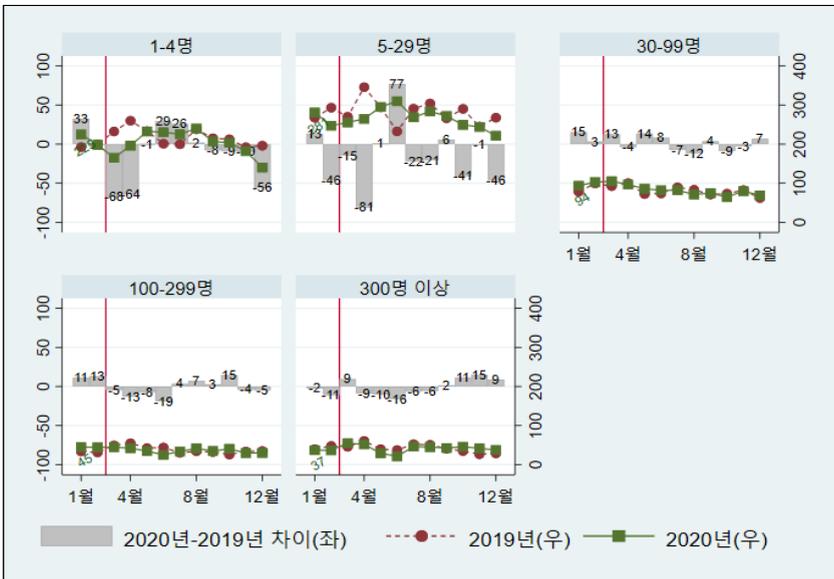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사업장 규모를 살펴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근 입직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그림 5-17).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규모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실직자 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직자 수가 줄어들면서 고용률 감소가 큰 폭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상반기에는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나, 하반기, 특히 10월 이후 최근 입직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앞서 살펴보았듯 상용근로자보다는 임시 근로자나 단순노무자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좋은 일자리일지는 미지수다.

[그림 5-17] 사업장 규모별 최근 입직자 수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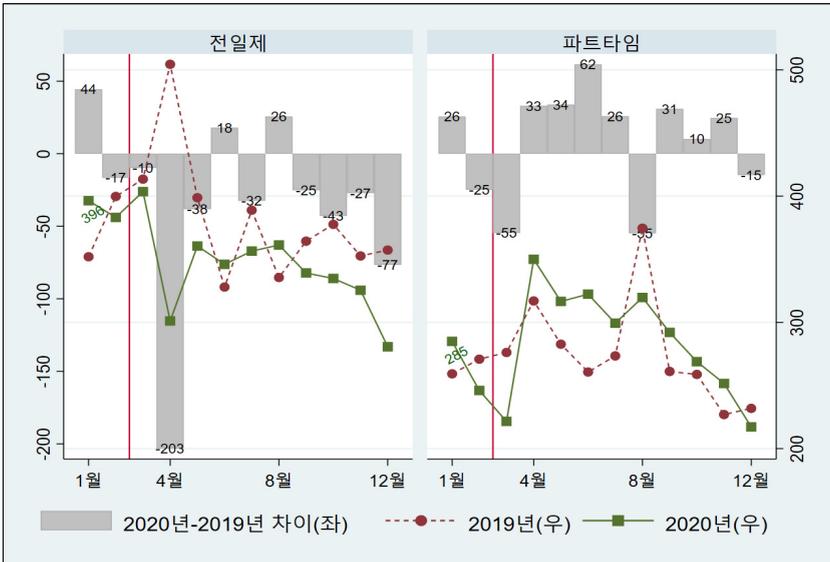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그림 5-18]은 최근 입직자들의 근로시간을 살펴보았다.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이들을 전일제로 보았을 때, 코로나19 이후 주로 줄어든 일자리는 전일제였다. 반면, 파트타임 일자리 역시 1차, 2차, 3차 유행기마다 입직자 수가 일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그 감소폭이 전일제 일자리에 비하여 크지 않았으며, 소강기에는 이들 일자리의 최근 입직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전일제 일자리는 줄어들고, 파트타임 일자리만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림 5-18] 전일제 여부별 최근 입직자 수

(단위: 천 명)



주: 주당 실제 근로시간이 36시간이상일 경우 전일제로, 미만일 경우 파트타임으로 구분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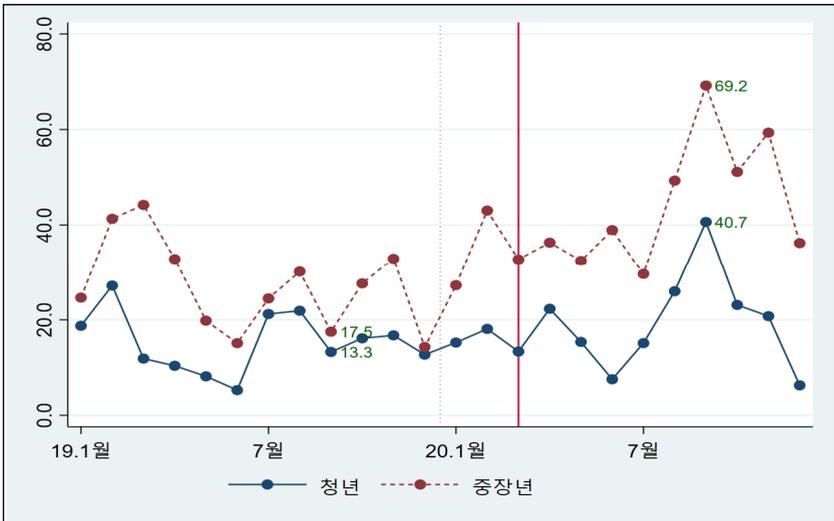
이는 코로나19의 1차 유행기 이후에 청년의 고용지표가 일부 회복 되기는 하지만, 실제 새로 들어가는 일자리들이 주로 파트타임이며, 단순 노무직, 임시직이라는 점에서 일자리의 실질적인 질 저하를 예상케 한다.

## 2. 공공행정 부문 최근 입직자 특성

앞서 [그림 5-15]에서 살펴보았듯,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의 최근 입직자 수 증가가 눈에 띈다. 이들은 2020년 9월경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데, 당시 2만 7천여 명이 추가로 입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는 청년뿐만 아니라 여타 연령층에서도 관측된다. [그림 5-19]를 살펴보면, 같은 시기 증장년층 역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의 입직자 수가 9월 당시 최고점을 찍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대책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가 확대된 결과 신규 채용이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9월 당시 전년 동월 대비 증장년층의 신규 고용은 4.0배, 청년층은 3.1배 증가하여 증장년층의 증가폭과 규모가 더 컸다.

[그림 5-1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의 최근 입직자 수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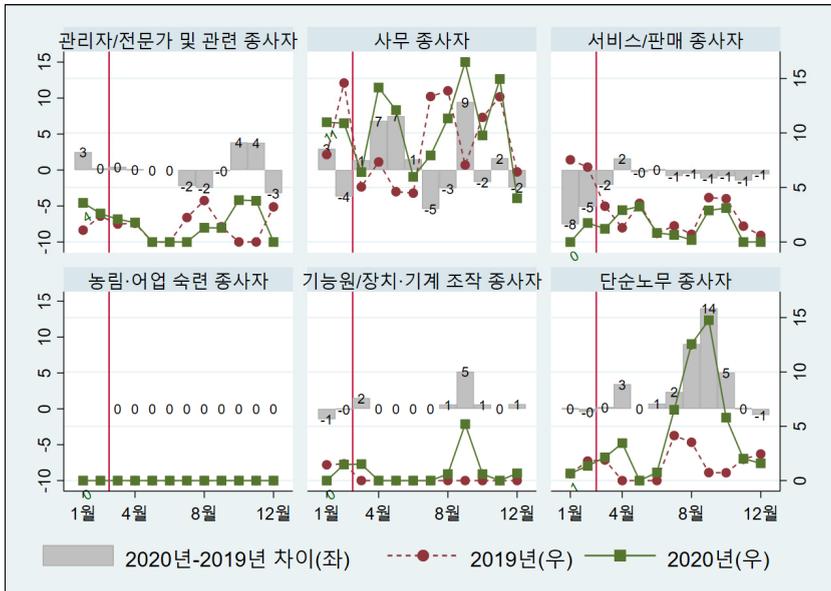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난 재정지원 일자리는 주로 어떤 일자리일까? 이들의 직업과 종사상 지위, 파트타임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늘어난 공공행정 부문의 청년 일자리가 대부분 단순노무직이며(그림 5-20), 파트타임(그림 5-22), 임시근로자(그림 5-21)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9월 전년 동월 대비 늘어난 전체 2만 7천 개 청년 일자리 중에서 단순노무 종사자가 1만 4천 명으로 나타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사무 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각각 33%와 15%가량을 차지하였다.

[그림 5-2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의 직종별 최근 입직자 수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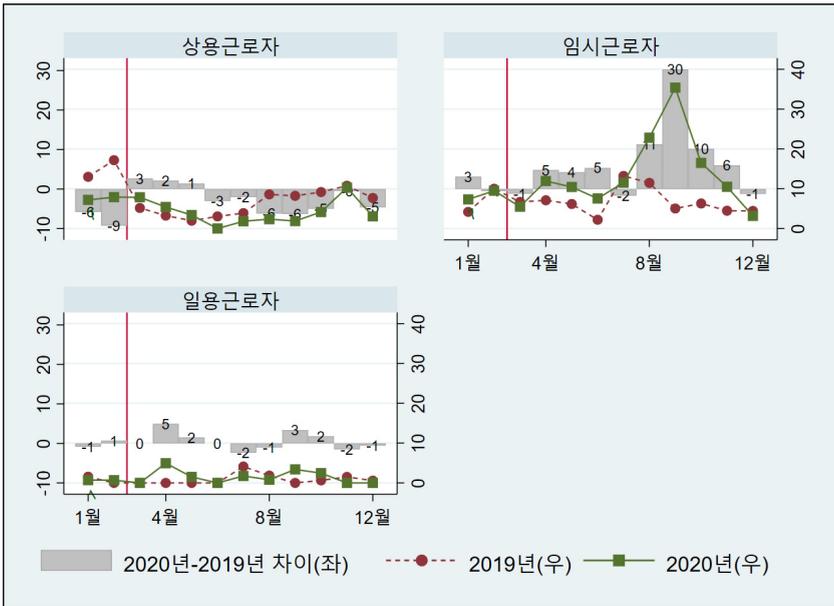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임시근로자였는데, 임시근로자의 숫자가 3만 명 정도 증가하였다(그림 5-20). 상용근로자의

경우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6천 명가량 감소하였다. 위기 상황에서 상용직 근로자보다는 임시근로자 위주로 일자리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의 종사상 지위별 최근 입직자 수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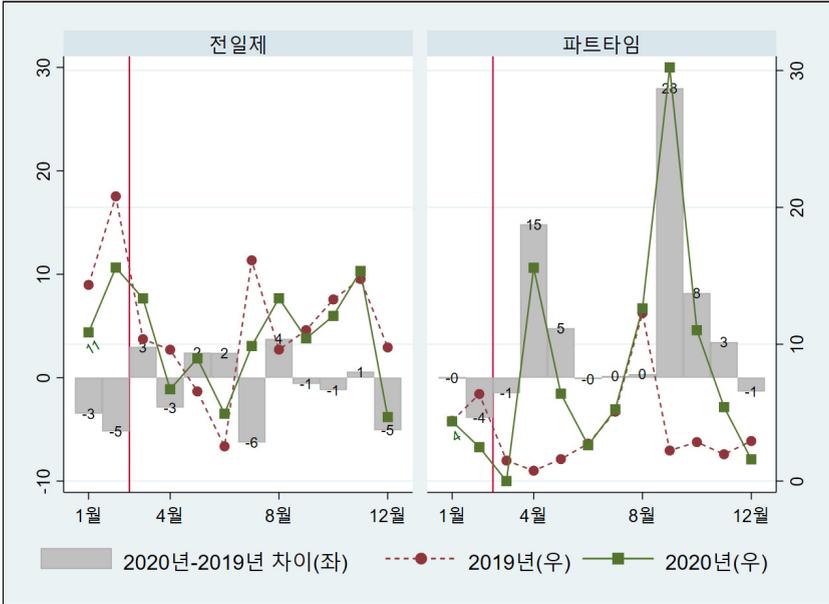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전일제 여부와 관련한 내용 역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그림 5-21). 실제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가 2020년 9월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감소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발 빠르게 재정지원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나, 이들 일자리가 대부분 단순노무직, 임시근로자이며 전일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입장에서 지속 가능하거나 향후 경력직으로 이동하는 데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니었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림 5-2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의 전일제 여부별 최근 입직자 수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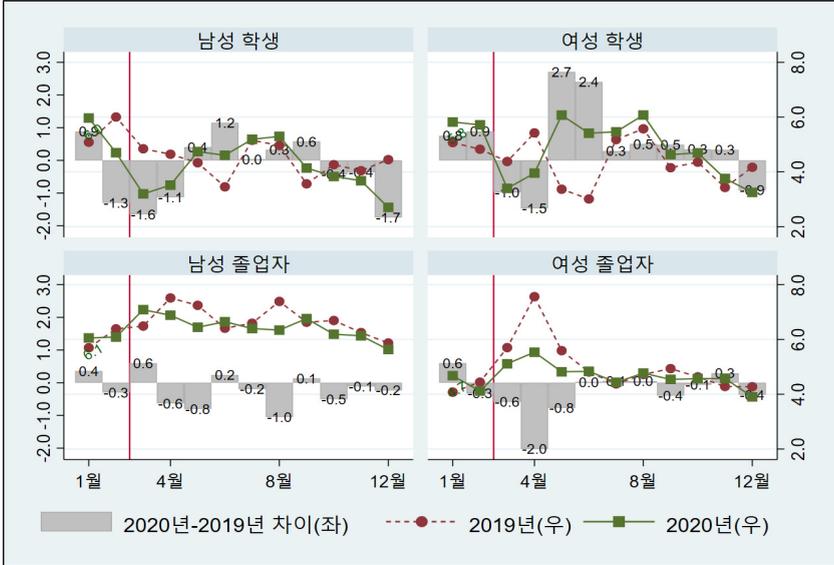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3. 코로나19의 확산과 청년층의 최근 입직 경험

다음으로 청년층 내에서 세부 집단별로 코로나19 이후 입직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림 5-23]을 살펴보면, 역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눈에 띈다. 여성 청년의 경우 학생과 졸업자 모두 코로나 19 확산 직후 전년 동월 대비 최근 입직을 경험한 이들의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 다만, 여학생들의 경우 그 직후 소강기인 5~6월에 신규 입직자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입직 규모가 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3] 성·졸업 여부별 최근 입직 경험률

(단위: %포인트, %)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반면, 여성 졸업자들은 3~5월 이후 신규 입직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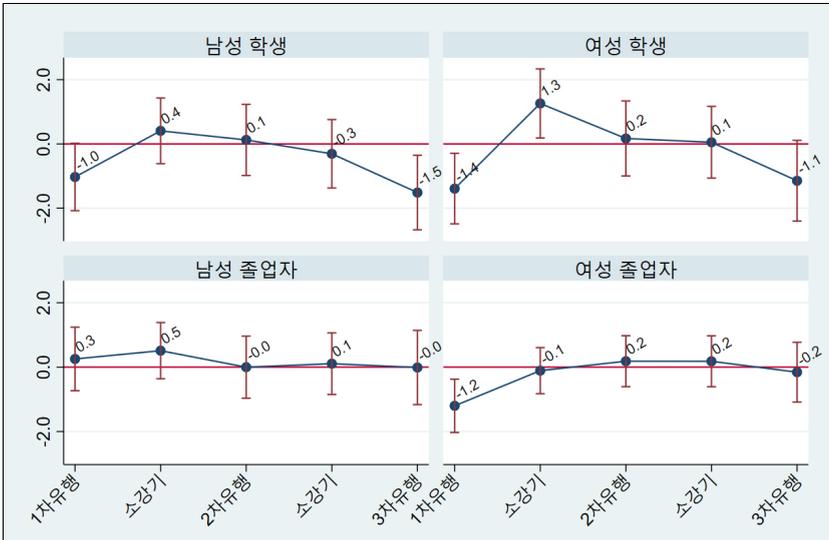
청년 남성의 경우 학생들은 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3월과 12월에 최근 입직을 경험한 이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한다. 다만 여학생만큼 그 후 입직자 수가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학교를 졸업한 남성 청년들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신규 입직이 다소간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2019년 남성 졸업자의 신규 입직 패턴을 보면, 앞서 상용직의 신규 입직자 수 증감 양상과 유사하게 4~5월과 8~10월에 두 번 신규 입직자 수가 증가하여 공채 시즌과 채용이 연동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이러한 특정한 월의 증가 추세가 관측되지 않았다. 여성 졸업자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평년이라 할 수 있는 2019년에

쌍봉형이 아닌 단봉형 양상을 나타낸다. 여성 졸업자들은 주로 3~4월 상반기 채용시즌이 주요 입직 기간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성별, 졸업 여부별 신규 입직 패턴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그림 5-24). 다만 학생인 여성의 경우 코로나19의 1차 유행기에 급격히 감소한 이후 즉각 회복되는 양상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 졸업자들의 1차 유행 시 관측된 입직자 수 감소 역시 유의한 차이로, 코로나19로 인하여 1차 유행 시에 1.2%포인트가량 신규 입직자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남성 졸업자들의 경우 2020년에 2019년과 대비하여 신규 고용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입직 경험률의 유의한 감소도 관측되지 않았다.

[그림 5-24] 최근 입직 경험에 대한 성·졸업 여부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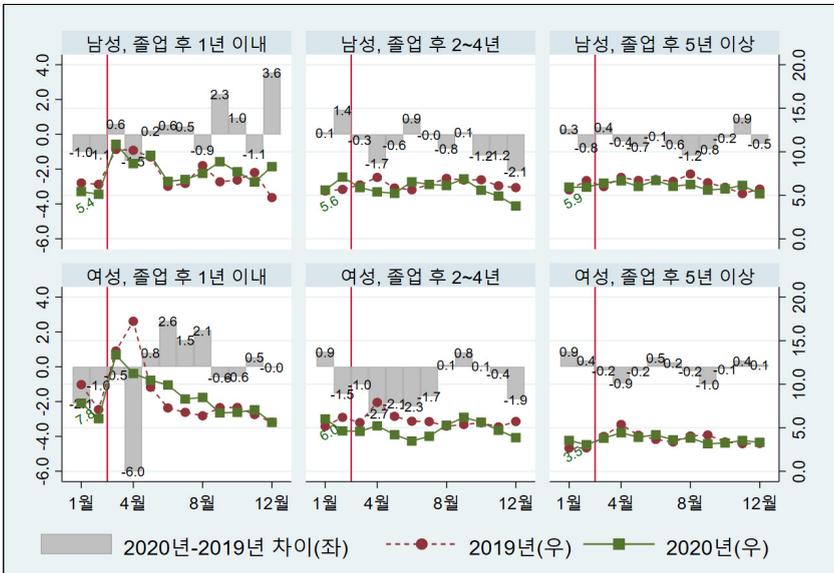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졸업 이후 경과 기간에 따른 최근 입직자 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림 5-25). 여기서도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졸업 이후 1년 이내인 청년 여성들은 4월경 최근 입직 경험률이 급감하는 반면, 청년 남성은 동일한 감소폭을 그리지 않았다. 다만 졸업 후 1년 이내인 남녀 청년 모두 1차 유행기 이후에는 신규 입직이 다소 증가하였다. 한편, 졸업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들의 경우 신규 입직이 코로나19 이후 졸업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들었을 뿐, 늘어나지 않았다. 특히 졸업 후 2~4년 경과한 여성들의 경우 코로나19 초기에, 남성은 주로 하반기에 신규 고용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주로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고, 남성은 하반기 상용직 신규 채용 축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5] 졸업 후 경과 기간별 최근 입직 경험률

(단위: %포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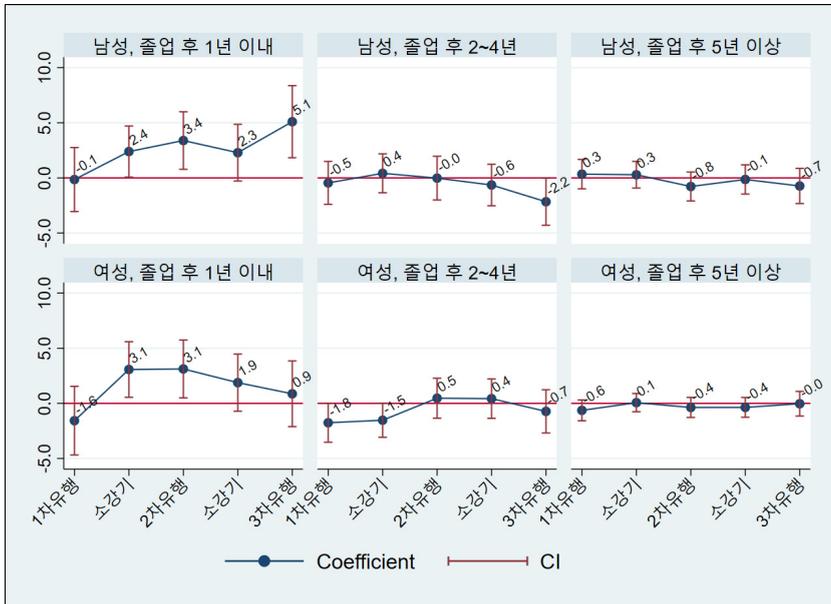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이러한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은 대체로 회귀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그림 5-26). 졸업 후 1년 이내인 이들은 코로나19 1차 유행 이후 신규 고용이 오히려 늘어났다. 물론 이 시기 늘어난 신규 고용이 주로 파트타임, 임시직, 단순노무직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신규 고용 증가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졸업 후 2~4년인 여성의 경우 1차 유행기 당시에, 졸업 후 2~4년의 남성은 3차 유행기인 12월에 신규 고용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패턴이 다르며, 졸업 후 경과 시점에 따른 영향 역시 상이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림 5-26] 최근 입직 경험에 대한 졸업 후 경과 기간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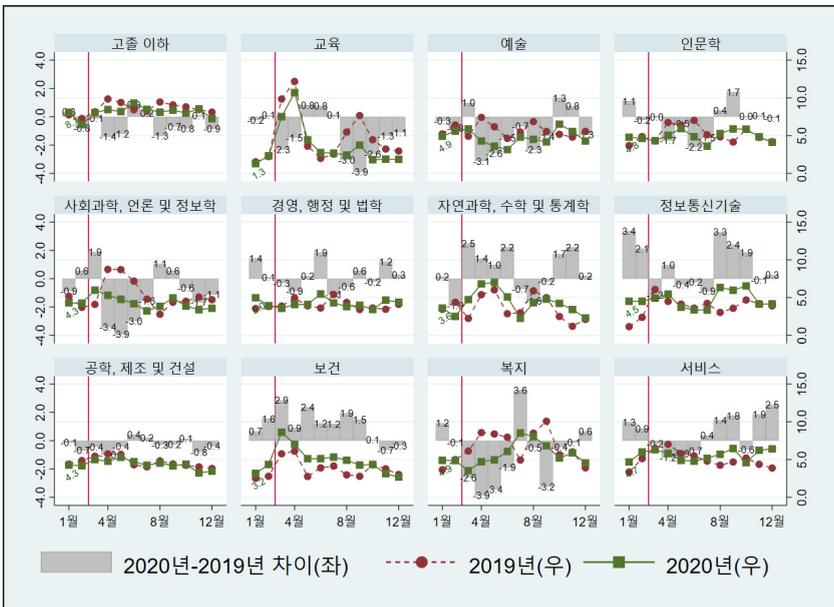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교육을 마친 청년들 중 교육계열별로 최근 입직 비율이 다른지를 살펴보았다(그림5-27). 우선 최근 입직자를 규모 면에서 살펴보면, 고졸 이하 청년은 2020년 1월 8.1%포인트가량이었으며, 이러한 수준은 평년에도 연중 내내 유지되어 입직률이 가장 높았다. 전문대학 중퇴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이들의 세부 전공별 양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공에서 봄과 가을에 신규 입직률이 높아져, 해당 시기에 채용이 집중되는 계절적인 패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7] 교육계열별 최근 입직 경험률

(단위: %포인트, %)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코로나19 이후 월별 증감폭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하반기 채용이 줄어든 양상이고, 예술과 사회과학, 복지 분야는 주로 상반기 감소폭이

두드러져 보인다. 한편, 보건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에도 신규 입직자 수가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내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인력 채용 증가와 같은 맥락이 관측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전년 동월 대비 증감 양상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림5-28).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계열에서 2차 유행 당시 최근 입직 경험률이 4.8%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최근 입직 경험이 감소하는 집단은 없었다.

[그림 5-28] 최근 입직 경험에 대한 교육계열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률 감소가 노동시장 유출과 유입이라는 유량(flow)의 관점에서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실직자들이 일을 그만둔 시점을 토대로 최근 실직자의 수를 파악하고, 임금근로자들이 일을 시작한 시점을 토대로 최근 입직자의 수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주로 학생과 여성 청년을 중심으로 최근 실직을 경험한 이들의 비율과 최근 입직을 경험한 이들의 비율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 단순히 계수의 크기만으로 보면 실직의 증가보다 입직 제한의 영향이 더 커 보인다.

청년층 내에서도 남녀 간에 코로나19 이후 최근 실직자 수의 규모와 양상의 차이가 두드러져 보인다. 여성 청년들의 경우 코로나19가 1차 확산한 시점에 실직자 수의 증가와 입직자 수의 감소가 컸다. 즉, 최근 실직자 수는 3~4월 1차 유행 당시 여학생은 1.0%포인트, 여성 졸업자는 0.7%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최근 입직자 수는 각각 1.4%포인트, 1.2%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여성 청년들에게 최근 입직자 수 감소와 실직자 수 증가가 두드러지는 까닭은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직과 전문직,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이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한편, 남성 청년들의 경우 실직자의 증가는 두드러지지 않는 반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한 시점에 입직자 수 감소가 두드러진다. 2020년 3월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용직, 중견급 이상 신규 고용이 하반기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졸업 후 2~4년 경과한 남성 청년은 12월 3차 유행 당시 최근 입직자 수가 2.2%가량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정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상용직과 전일제의 고용 감소가 안정적 일자리를 찾는 이행기 남성 청년들에게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 내에서도 남녀는 종사하는 직업, 산업이 다르며, 노동시장 이행 경험 역시 상이하기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 역시 다소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 제6장

### 코로나19로 일하지 않는 청년은 무엇을 하나?

제1절 적극적 구직자

제2절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

제3절 비경제활동인구의 평소 활동상태

제4절 소결



## 제 6 장

# 코로나19로 일하지 않는 청년은 무엇을 하나?

본 장에서는 앞서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자의 수가 줄어든 사이, 미취업자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미취업자는 크게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눌 수 있다. 실업자는 현재 미취업 중이나 활발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서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이때 실업자를 정하는 기준은 지난 4주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일자리가 주어질 경우 즉시 취업 가능한지 여부이기 때문에(통계청, 2020, p.5), 취업준비를 하고는 있으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지는 않는 소극적 구직자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통계청, 2020, p.5).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로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하는 주부나,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및 심신장애인,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 단체에 관여하고 있는 이들이 해당한다.

경제위기 시에는 적당한 일거리가 없거나, 일거리를 찾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구직을 단념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줄어든 취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 실업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인 만큼, 소극적인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층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비율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 변화를 살펴보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단념자의 규모와 평소 활동상태 등을 살펴본다.

본 장에서는 청년과 여타 연령층의 고용률을 대비하여 살펴본 방식으로

연령집단별 실업자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함께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미취업자의 양상이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본다. 그 후 청년층 내에서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세부 집단별 양상을 살펴본다.

## 제1절 적극적 구직자

본 절에서는 실업자, 즉 적극적 구직자의 양상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실업자란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은 하지 않았으나,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이들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이들”을 의미한다(통계청, 2020, p.5). 또한 실업률은 취업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나타내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고자 하므로, 전체 청년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실업률이라는 용어와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실업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적극적 구직자’로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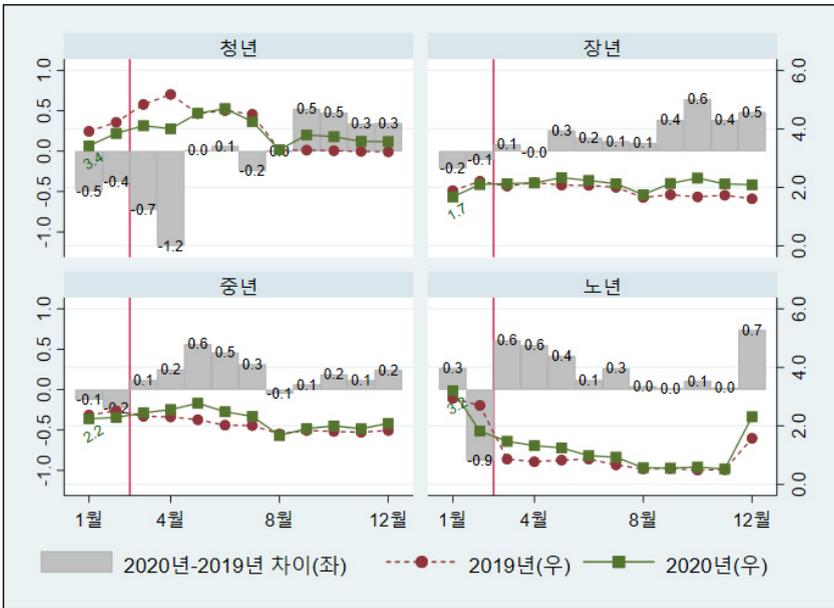
### 1. 연령집단별 적극적 구직자 비율의 변화

우선 연령집단별 적극적 구직자의 비율 양상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월 당시 이 비율은 3.4%로, 장년층(1.7%), 중년층(2.2%), 노년층(3.2%)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그림 6-1). 이러한 적극적 구직자 비율은 코로나19 이후 고용률만큼 변동폭이 크지는 않았다. 장년층의 경우

코로나 1차 유행과 2차 유행 당시 전년 동월 대비 구직자 비율이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다가 하반기 들어서 0.5%포인트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년층 역시 코로나19 이후에도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이내로 구직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층의 경우 코로나 19 1차 유행 당시 전년 동월 대비 실업률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가, 9월 이후 실업률이 0.5%포인트가량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림 6-1] 연령집단별 적극적 구직자 비율

(단위: %포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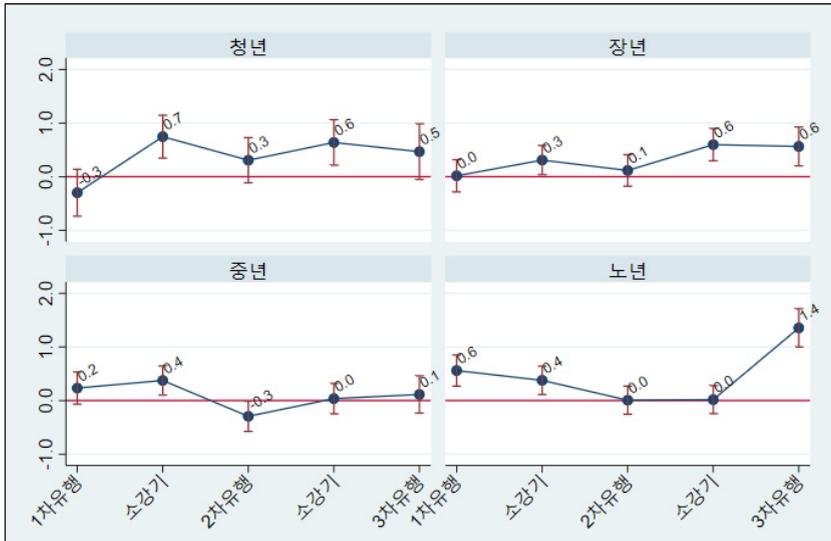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이러한 2019년 대비 2020년 실업률의 양상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체로 유지된다(그림 6-2). 가령, 청년층의 경우 1차 유행 당시 실업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1차 유행과

2차 유행 후 소강기에 들어서 각각 0.7%포인트와 0.6%포인트가량 구직자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노년층의 경우 여타 연령계층에 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구직자 비율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차 유행에 해당하는 12월경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구직자 비율이 1.4%포인트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림 6-2] 적극적 구직에 대한 연령집단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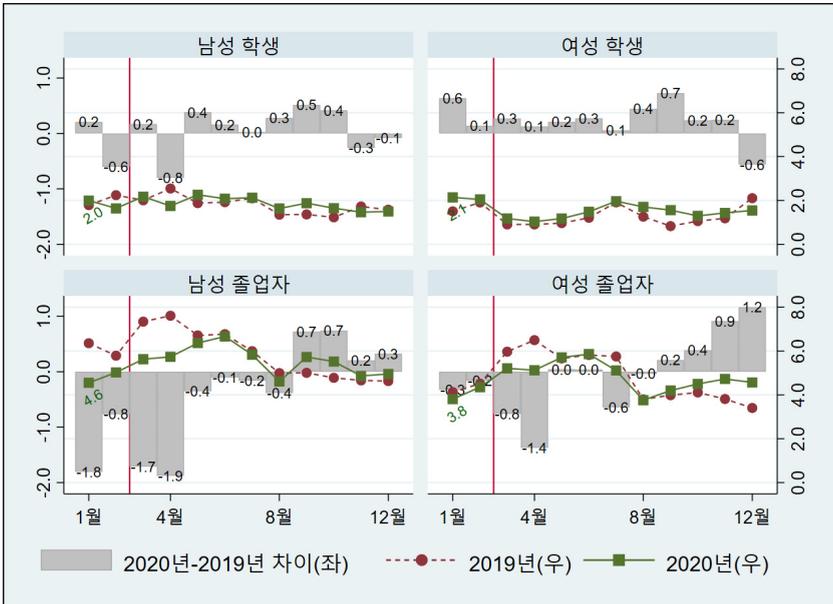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 감소가 2.2~2.9%에 이를 정도로 높았으나, 구직자 비율 증가세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 까닭은 코로나19 유행 시점에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층이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이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2. 청년층 내 세부 집단별 적극적 구직자 분석

청년층 내에서도 우선 성, 졸업 여부별 구직자 비율을 살펴보면, 코로나 19 이전인 2020년 1월 당시 학생은 2% 내외로, 학교를 마친 청년들은 남성이 4.6%, 여성이 3.8%로 나타난다(그림 6-3).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이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경 실직자, 즉 구직니트의 비율이 늘어났다가 연말로 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림 6-3] 성·졸업 여부별 적극적 구직자 비율

(단위: %포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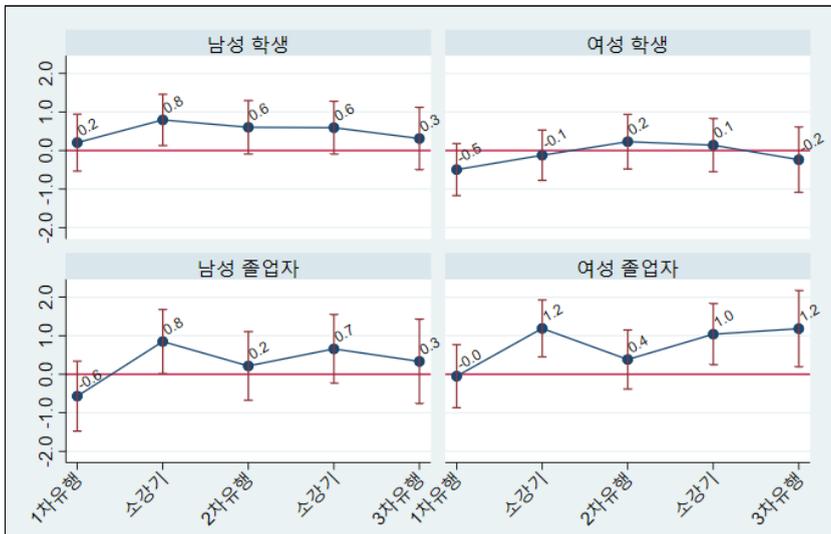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그러나 2020년 3~4월경 평년에 비하여 실직자가 줄어드는 양상이 확인된다(그림 6-3). 당시 청년 졸업자들, 특히 남성의 경우 고용률이 하락한 시점은 아니었다. 이는 이후 비경제활동인구의 양상과 견주어 살펴볼아야 하지만, 청년 졸업자에게는 경기변동이 신규 구직이나 입직 자체의 변화보다 적극적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인 남학생들의 경우 코로나19의 1차 소강기 당시에 구직 중인 이들의 비율이 0.8%포인트가량 증가하였다(그림 6-4). 반면, 학업을 마친 남성 청년들의 경우 계수의 크기는 학생들과 비슷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여학생의 경우 유의한 실업자 증가가 관측되지 않았으며, 여성 졸업자들만 주요 유행기를 제외하고 적극적 구직자의 규모가 늘어났다.

[그림 6-4] 적극적 구직에 대한 성·졸업 여부별 회귀분석 계수 (경제활동인구 대상)  
(단위: %포인트)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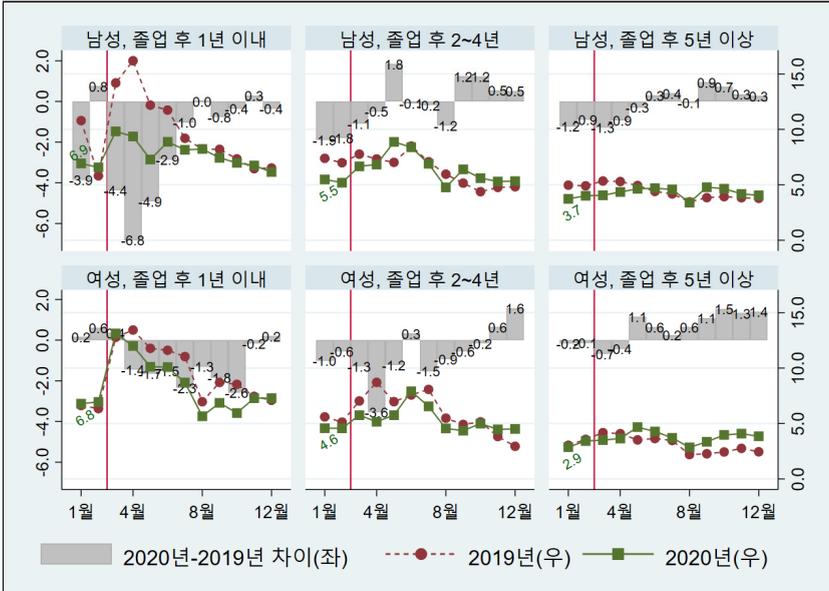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학업을 마친 남성과 여성 청년들의 공통점은 코로나19 1차 유행기와 2차 유행기에 구직자의 수가 줄어들었다가 소강기에 들어서 구직 중인 이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마지막 3차 유행기에 여성 청년들은 남성과 달리 코로나19의 확산에도 구직자의 규모가 늘어났다(그림 6-4). 이는 여성의 경우 장기화한 미취업 상황에서 노동시장 밖에서 이 기간을 견디기보다는 구직활동에 뛰어들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이상직 외, 2018)와 동일한 맥락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규교육을 졸업한 청년들 중에서 졸업 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적극적 구직자의 비율이 다른지를 살펴보았다(그림 6-5). 우선 코로나19 이전 2020년 1월 평균을 살펴보면 졸업 후 1년 이내인 이들이 6.9%, 졸업 후 2~4년 경과한 이들은 5% 내외, 졸업 후 5년 이상 경과한 이들은 3% 정도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이들 집단 간 고용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의 양상을 살펴보면 졸업 이후 기간별로 상이한 양상을 나타낸다. 졸업 후 1년 이내인 청년들은 구직자의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졸업 후 시간이 경과한 이들은 3~4월에는 구직자가 감소하다가 하반기 들어서 전년 동월 대비 구직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림 6-5] 졸업 후 경과 기간별 적극적 구직자 비율

(단위: %포인트, %)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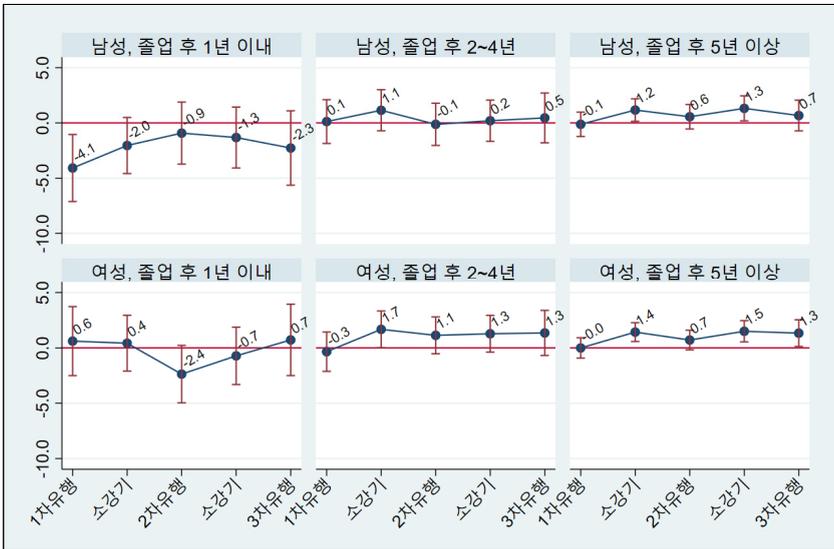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졸업 후 경과 기간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적극적 구직자의 증가폭이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난다(그림 6-6). 우선 졸업 후 1년 이내인 남성들이 적극적 구직률 감소가 눈에 띈다. 이들은 1차 유행기인 3~4월 당시 적극적 구직률 감소가 4.1%포인트가량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한편, 졸업 후 1년 이내인 여성들의 경우 3~4월경 실직자 수 증가와 구직 가능성이 매우 감소하였음에도 적극적 구직자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

한편, 청년 졸업자들은 졸업 시점이 경과할수록 코로나19로 인한 구직자 증가폭이 크고, 유의하게 나타난다(그림 6-6). 졸업 후 1년이 경과한 집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의한 구직자 비율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졸업 후 2~4년이 경과한 집단은 1차 유행 이후 소강기에 구직자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모두 양수로 나타났다. 졸업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이들은 1차 유행 후 소강기에 남성 1.2%포인트, 여성 1.4%포인트가량 적극적 구직자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2차 유행 후 소강기에 남녀 각각 1.3%포인트, 1.4%포인트가량 구직자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를 마친 이들도 졸업 이후 경과 시점에 따라서 경제 위기 시에 노동시장 내 더 나은 일자리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인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음에 의미한다. 특히 졸업 후 1년 이내인 남성 청년들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이 시기를 보내는 비율이 여성이나 졸업 후 수년이 지난 이들에 비하여 높아 보인다.

[그림 6-6] 적극적 구직에 대한 졸업 후 경과 기간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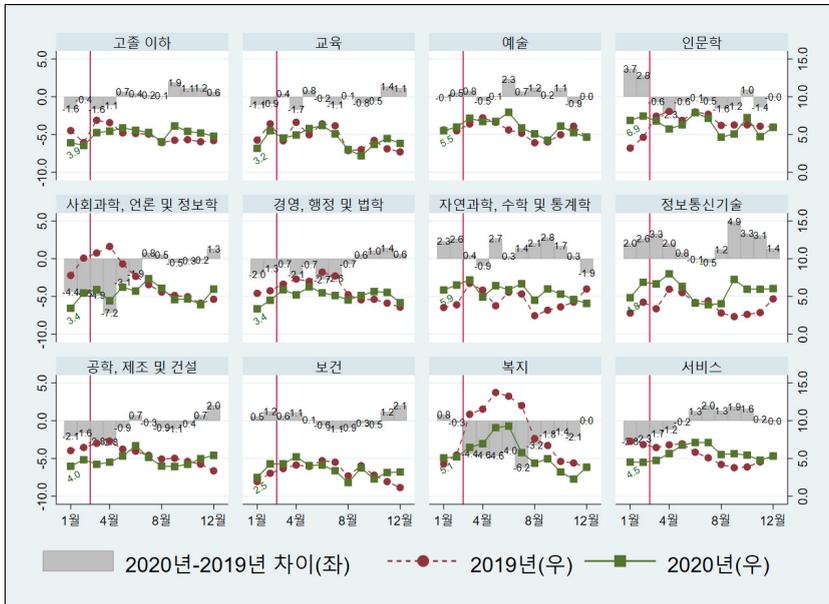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교육과정을 마친 이들, 즉 청년층의 구직 니트의 규모가 교육 계열별로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그림 6-7). 우선 2020년 1월 당시 구직 중인 미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전공은 인문학(6.9%), 자연과학(5.9%)으로 순수학문 분야의 구직자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 19 이후 양상을 살펴보면, 복지 부문의 실업자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서비스 부문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구직자 비율이 2020년 하반기에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 전공자들 중 구직 중인 이들의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들었으나, 코로나19 이전인 1~2월부터 유사한 감소 양상이 나타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림 6-7] 교육계열별 적극적 구직자 비율

(단위: %포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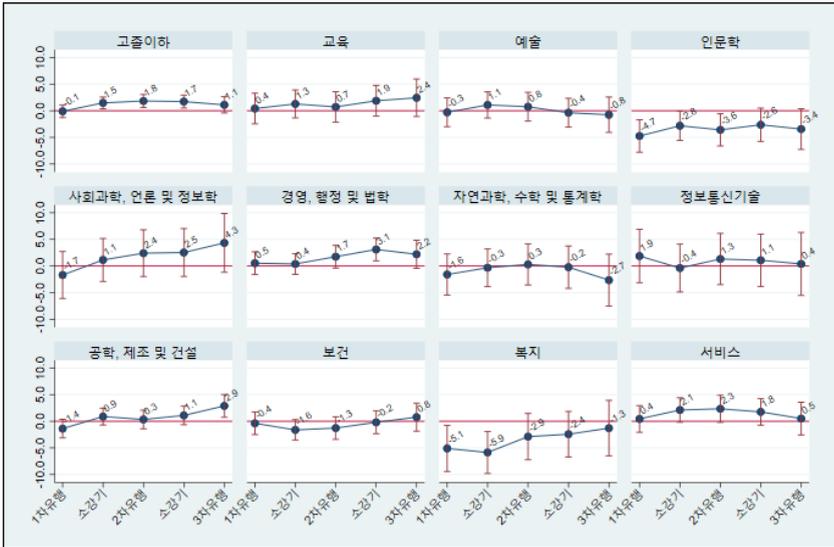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실제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유의한 구직자 비율 증감이 나타난 것은 인문학, 복지 전공으로, 이들은 구직자 비율이 유의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초기 유행 당시 오히려 그 비율이 유의하게 줄어들었다(그림 6-8). 이는 경제위기 시 구직을 단념하거나 소극적 구직자로 전환하는 비율이 증가함을 나타낸다.

[그림 6-8] 적극적 구직에 대한 교육계열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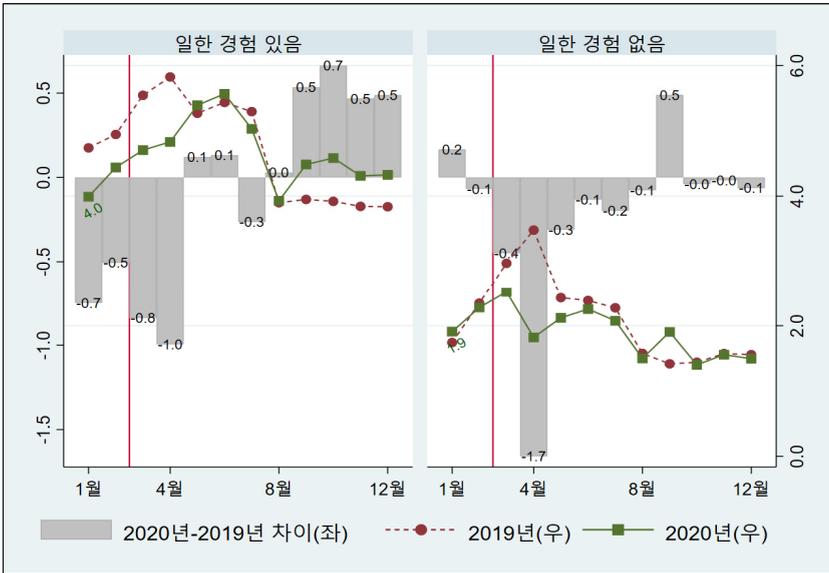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구직 중인 미취업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도 일부 나타나기는 하였다(그림 6-8). 경영, 행정, 법학 전공의 경우 소강기 당시 구직 니트의 비율이 3.1%포인트가량 증가하였다. 한편, 사회과학과 인문학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전공인데, 이들에게

서는 유의한 구직자 증가 추세가 나타나지 않으며, 인문학의 경우 오히려 그 비율이 줄어들어, 미취업자의 확대가 적극적 구직자 증가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취업자의 경우 이전에 노동 경험이 있는지가 코로나19 이후 구직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그림 6-9). 그 결과,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청년, 즉,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본 이들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평소에도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림 6-9] 노동 경험 여부별 실업자 비율

(단위: %포인트, %)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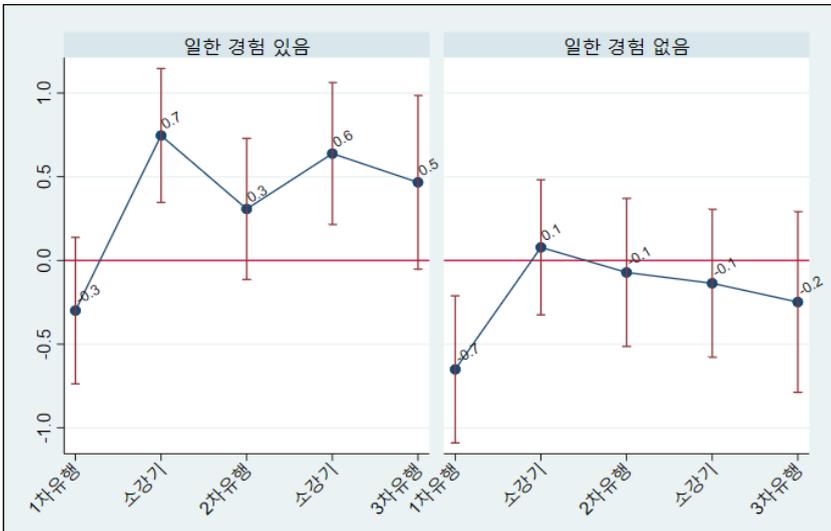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3~4월 구직자의 비율이 전년 동월 대비 1%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다(그림 6-9). 그러나 이러한 감소폭은 코로나19 이전인 1~2월에도 관측되어 코로나19

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2020년 하반기 들어서 구직자의 비율이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이상 증가하여, 구직자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한 경험이 없는 이들은 구직자의 비중이 2020년 하반기 내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회귀분석 결과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의 구직 규모만 각 소강기에 유의하게 높아지고, 일한 경험이 없는 이들은 1차 유행기에 구직 중인 비율이 줄어들었다(그림 6-10).

[그림 6-10] 실업에 대한 노동 경험 여부별 회귀분석 계수 (경제활동인구 대상)

(단위: %포인트)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경제위기 시 청년층은 미취업자의 증가가 적극적인 구직자의 증가로 이어지기보다는 구직 단념자로 이어지는 비중이 커 보인다. 특히 졸업 후 1년 이내인 청년이나 일해본 경험이 없는 청년,

본래 취업률이 낮고 구직률이 높았던 인문학 전공자들의 경우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진다.

## 제2절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

### 1. 연령집단별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월 연령집단별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를 [그림 6-11]에서 살펴보면, 우선 장년층과 중년층의 경우 각각 20.8%와 28.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노년층의 경우 67.7%, 청년층의 경우 43.8%가량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인 2020년 1~2월경 전년 동월 대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감을 살펴보면 장년층의 경우 2019년과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년층의 경우 0.4%포인트가량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다. 청년층과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폭이 컸는데, 노년층의 경우 2.5%포인트에서 3.1%포인트가량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으며, 청년층의 경우 0.3%포인트에서 0.9%포인트가량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이전에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고용률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었다는 점과 연결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3월 이후 청년과 장년, 중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전년 동월 대비 급격하게 늘어났다(그림 6-11). 청년층의 경우 3월과 4월 각각 1.9%포인트, 2.4%포인트가 늘어났으며, 1차 대유행 이후에도 0.8%포인트를 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관측되었다. 장년층 역시 코로나19 이후 전년 동월 대비 0.6~1.8%포인트가량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으며, 중년층 역시 0.5~1.3%포인트가량

증가폭을 나타냈다. 반면, 노년층의 경우 코로나 이후에도 전년 동월 대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가령, 3월의 경우 비경제 활동인구의 비중이 1.4%포인트 줄어들었으며, 연중 내내 2019년에 비해서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노년층의 경우 해당 기간 고용률이 늘어났던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다. 다만 노년층과 청년층의 경우 앞서 고용률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전에 개선되는 추세였던 점을 고려할 때 전년 동월 대비 증감 수준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은 더 크게 추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11] 연령집단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단위: %포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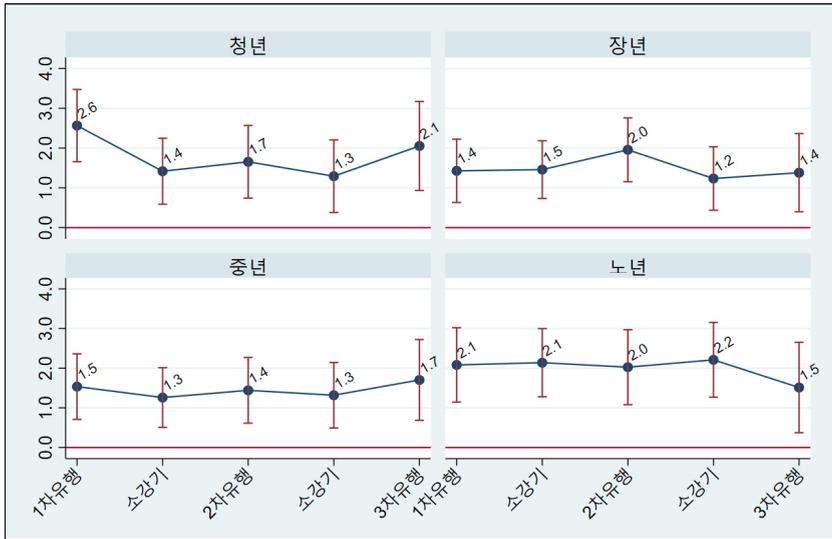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실제로 비경제활동 여부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추정된 결과를 [그림 6-12]에서 살펴보면, 청년층은 1차 유행 당시

비경제활동인구가 2.6%포인트, 노년층은 2.1%포인트가 증가하여, 장년(1.4%포인트)과 중년(1.5%포인트)에 비하여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제3장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에서 1차 유행 당시 고용률이 2.3%포인트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6-12] 비경제활동 여부에 대한 연령집단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여타 연령층의 경우 고용률 감소폭에 비하여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더 작다는 점에서 일자리가 줄더라도 여전히 일부는 노동시장에 남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 감소폭이 그대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연결되는 것과 동시에 기존에 구직활동 중이었던 실업자들도 구직을 단념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하면서 실업률은 증가하지

않았다. 결국 고용률 감소에 비하여 더 큰 폭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청년은 여타 연령계층에 비하여 노동 시장에서 구직활동을 할 것인지, 이탈할 것인지가 코로나 유행에 상당히 반응적인 것으로 보인다. 소강기에 높아지는 실업률과는 달리, 코로나19의 유행 시기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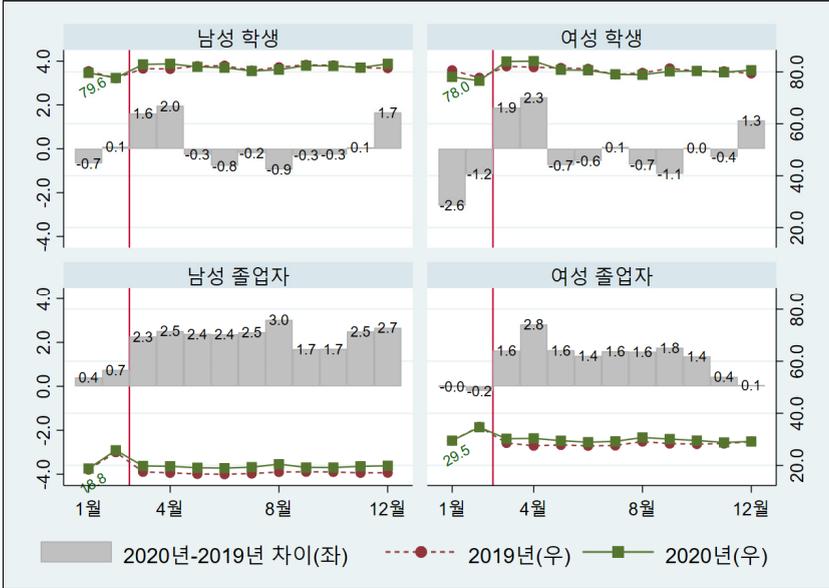
## 2. 청년층 내 세부 집단별 비경제활동인구 규모 분석

그렇다면 청년층 중에서 어떠한 하위 집단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부 집단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정규 교육기관 졸업 여부와 남녀 차이를 살펴보자(그림 6-13). 코로나 이전에도 학업을 마친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남성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졸업한 남성 청년의 경우 2020년 1월 비경제활동인구가 18.8% 정도로 29.5%인 여성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다. 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각각 78.0%, 79.6%로 여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다.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3~4월경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가, 다시 줄어들고, 12월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그림 6-13). 이는 고용률의 증감과도 유사한 패턴이다. 반면, 졸업자들의 경우 남성은 코로나 19 이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전년 동월 대비 2.3%포인트가량 증가한 이후 지속해서 그 폭이 유지 또는 증가하였다. 여성 졸업자들 역시 2020년 내내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으나, 12월경에 이르러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졸업한 남녀 청년들의 고용률 증감 양상과도 닮았다.

[그림 6-13] 성·졸업 여부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단위: %포인트, %)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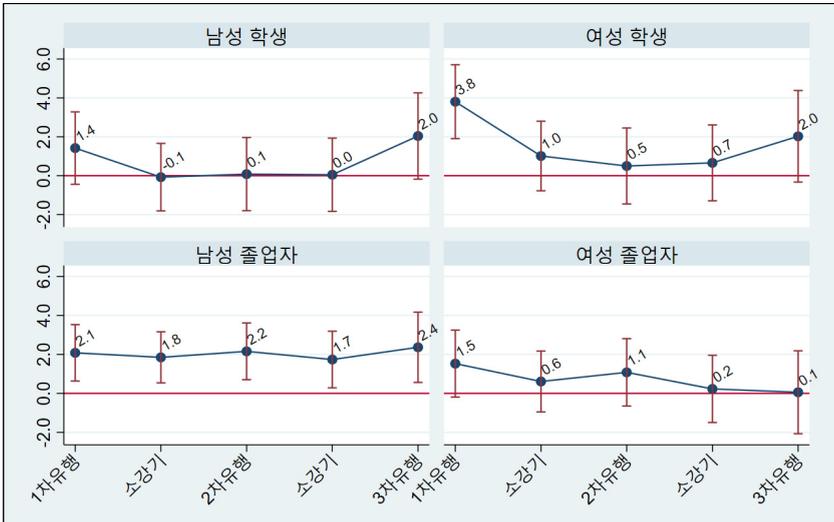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인 청년들은 여성과 남성의 그래프 양상이 유사하게 U자 형태를 띠고 있다(그림 6-14). 이는 코로나19 1차 확산기와 3차 확산기에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고, 중간 시기에는 증가하지 않는 양상이다. 다만, 남성과 여성의 계수 크기에 차이가 있는데, 여성 학생의 경우에만 1차 유행기 당시 비경제활동인구가 3.8%포인트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을 마친 청년층의 경우 남성 졸업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모든 시기에 1.7%포인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으며, 3차 유행기에는 그 크기가 2.4%포인트로 올라갔다(그림 6-14). 여성은 1차 유행기 당시에만 1.5%포인트가량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이마저도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이후 여성 졸업자는 계수의 크기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 여성에 비하여 청년 남성이 더 큰 고용률 감소를 경험하였지만, 여성은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고용률이 다소 회복하였으며, 적극적 구직자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남성 청년은 고용률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동시에 구직자의 비율은 거의 오르지 않으면서 줄어드는 취업자 수가 그대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경제위기 시 청년층 내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대응이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그림 6-14] 비경제활동 여부에 대한 성·졸업 여부별 회귀분의 계수

(단위: %포인트)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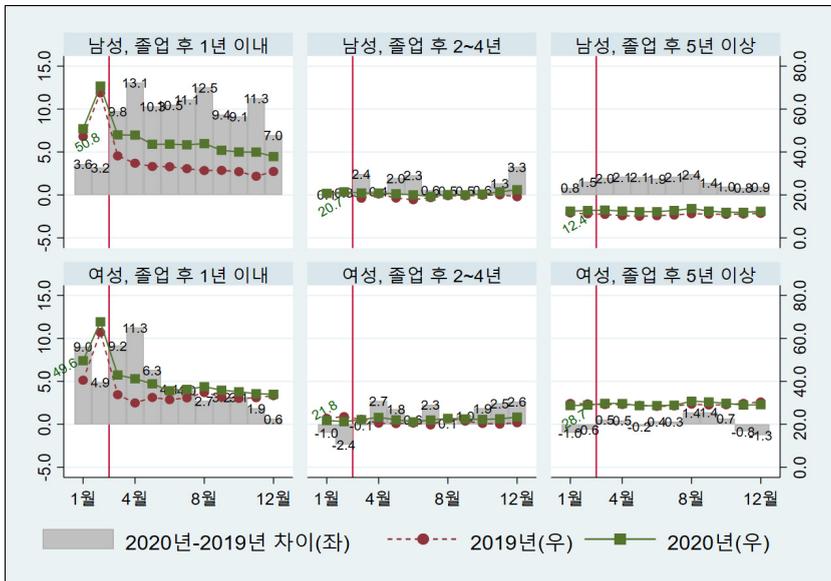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졸업한 청년층 중에서 졸업 후 경과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그림 6-15). 2020년 1월 당시 졸업 후 1년 이내인 청년의

50~60%, 2~4년 경과한 이들의 20% 내외, 졸업 후 5년 이상 경과한 청년 중 남성 12.4%, 여성 28.7% 정도가 비경제활동인구였다. 이는 구직자 비율과 마찬가지로 고용률의 차이와 관련 있어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살펴보면, 졸업 후 1년 이내인 이들은 전년 동월 대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졸업 후 2~4년 차인 청년들 역시 그 비율이 1.5% 내외로 연중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졸업 후 1년 이내인 청년들은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졸업 후 2~4년, 졸업 후 5년 이상에서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

[그림 6-15] 졸업 후 경과 기간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단위: %포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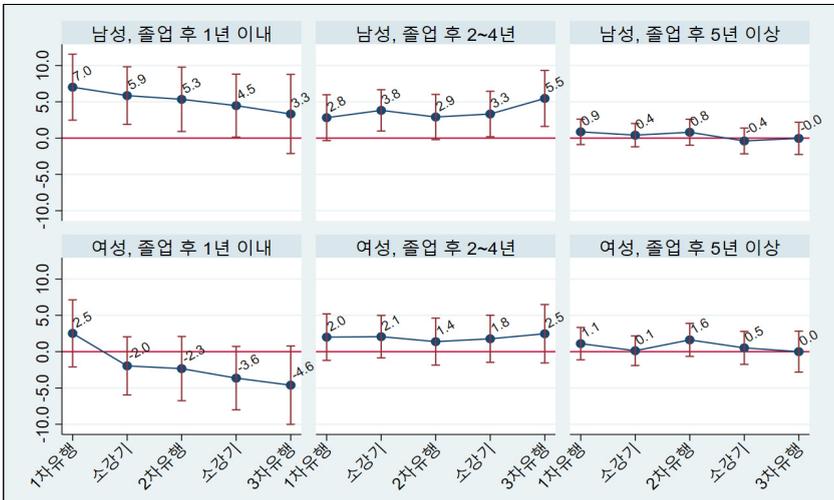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졸업 후 1년 이내인 남성 청년들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1차 유행기부터 2차 유행기까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7.0~5.3%포인트가량 증가하였다. 이후에는 그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그림 6-16). 졸업 후 5년 이상 경과한 이들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유의한 비경제활동인구 증감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졸업 후 2~4년이 경과한 청년들은 1차 유행기 이후 소강기에 3.8%포인트가량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으며, 2차 유행기 이후 소강기에 다시 3.3%, 12월에 5.5%가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가 고용률에 미친 영향과 거의 유사한 양상이다. 제3장에서 살펴본 결과, 졸업 후 2~4년 경과한 청년들의 경우 고용률이 12월경 5.9%포인트 감소하였는데, 그사이 적극적 구직자 비율은 유의하게 늘어나지 않았으며,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5.5%포인트 증가하여, 줄어든 고용률 대부분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16] 비경제활동 여부에 대한 졸업 후 경과 기간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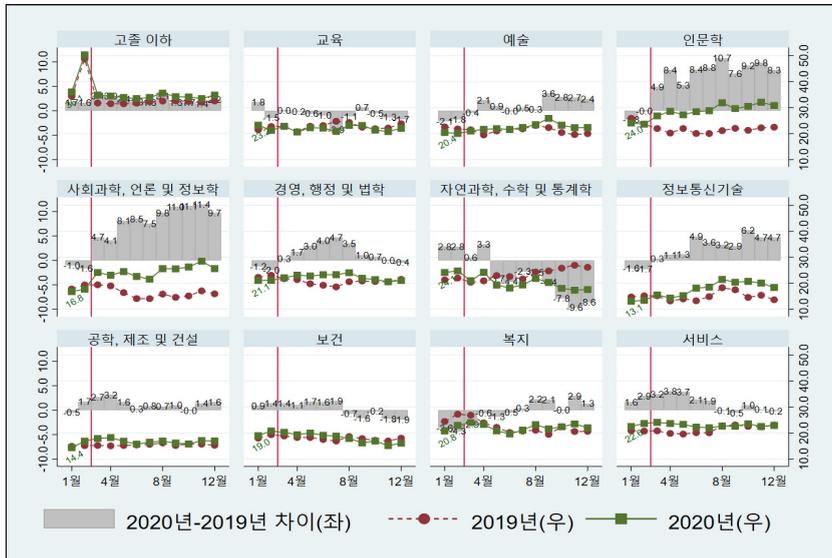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학업을 마친 청년들의 전공에 따른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펴 보자(그림 6-17). 기본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역시 인문학과 자연 과학 같은 순수학문 분야에서 24%를 넘어서 노동시장 밖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았다. 가장 낮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을 기록한 전공은 정보통신 기술과 공학, 제조 및 건설로 1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한편 고졸 이하 청년들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36.1%로 전문대 중퇴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에 비하여 높았다. 다만 이들은 재수 등 진학 준비 중인 비율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17] 교육계열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단위: %포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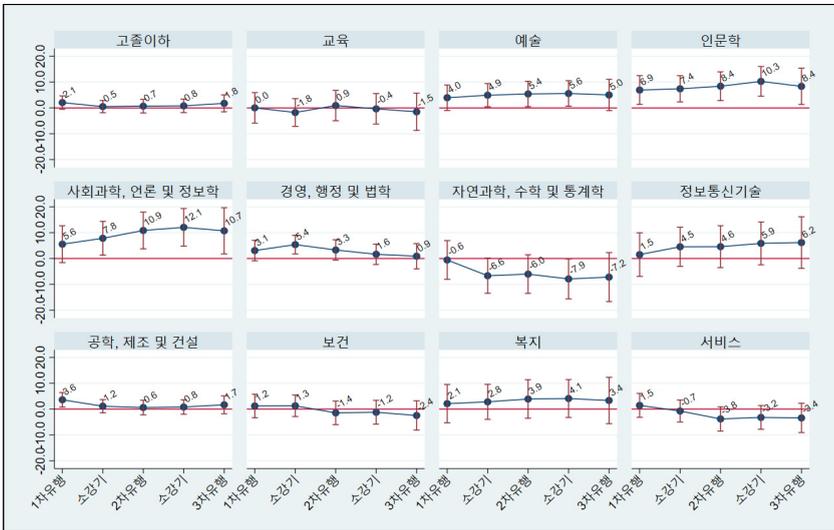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코로나19 이후의 양상을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는 인문학, 사회과학 전공자들에게서 큰 폭으로 늘어난다(그림 6-17). 이들은 2020년

하반기에 들어 전년 동월 대비 10% 내외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을 그려, 취업이나 학업, 구직을 이어나가지 않는 비구직 니트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고용률이 주로 인문, 사회과학 계열에서 줄어든 양상과 마찬가지로 인문학,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경영, 행정 및 법학 분야 전공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두드러진다(그림 6-18). 인문학 전공자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최대 10.3%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사회과학 전공자 역시 12.1%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예술계 역시 최대 5.6%포인트가량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줄어든 취업자의 대다수가 구직을 이어나가기 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6-18] 비경제활동 여부에 대한 교육계열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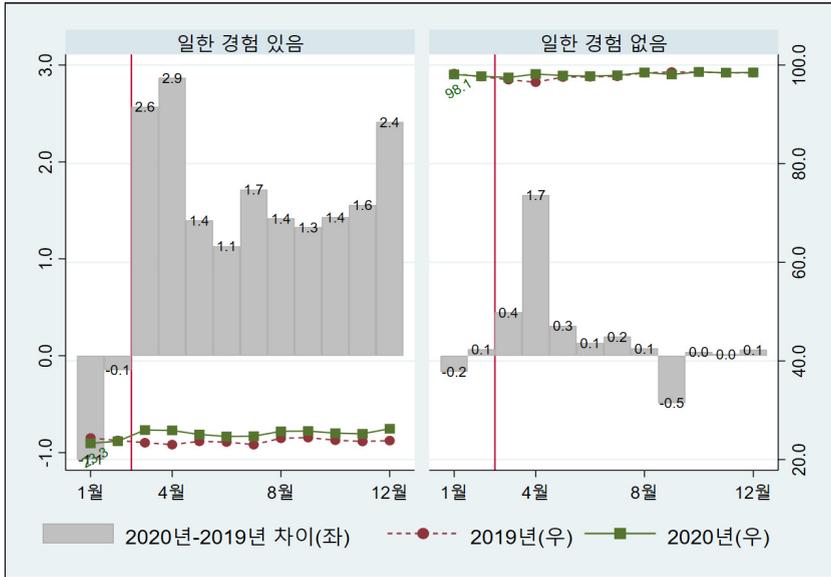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마지막으로 청년층 내에서도 노동 경험 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그림 6-19). 우선 청년층 내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이들은 98.1%가 본래 비경제활동인구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의 경우 본래 23.3% 정도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노동시장에 한 번이라도 진입한 이들은 대부분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19] 노동 경험 여부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단위: %포인트, %)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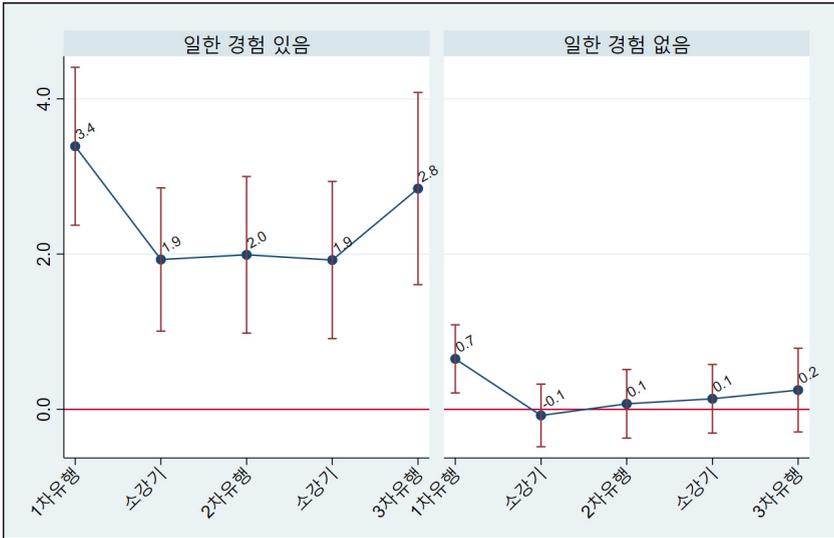
이처럼 다른 초기값에서 시작하여,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이후를 살펴보면,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의 비경제활동인구 규모가 상당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19). 이들은 3~4월 전년 같은 달에 대비하여 2.6~2.9%포인트가량 비경제활동인구 규모가 늘어났으며, 이후 다소 줄어들었다가 12월경 다시 2.4%포인트 증가한다. 반면, 일한 경험이 없는

이들의 경우 4월에 그 비율이 다소 높아졌을 뿐 대부분 전년 동월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역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그림 6-20). 이는 청년층 내에서도 주로 노동시장에 한 번이라도 진입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경제위기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6-20] 비경제활동 여부에 대한 노동 경험 여부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제3절 비경제활동인구의 평소 활동상태

본 절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평소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청년들 중 코로나19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이들이 주로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해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일자리가 생애 노동 경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남재량, 2008; OECD, 2015), 경제위기 시 낮은 일자리에 진입하기보다는 취업준비를 하며 인적 자본을 쌓으면서 괜찮은 일자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유휴인력이 증가하였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 1. 취업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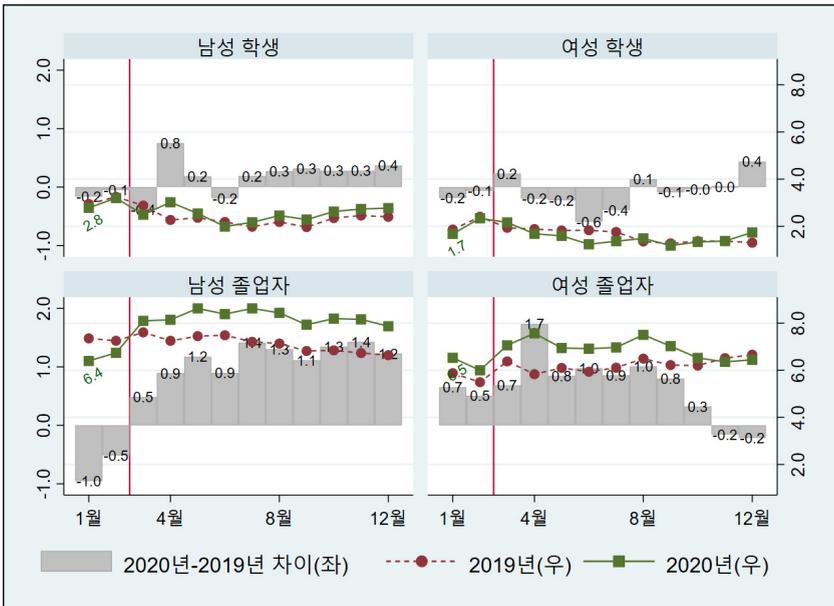
취업을 위한 교육 및 취업준비는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을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한 경우와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서 집이나 독서실에서 취업이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현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사 시험이나 자격증 준비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 해당한다. 이 항목은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은 그 비율이 1% 미만이므로 연령집단별 분석은 하지 않았다.

청년층 내의 이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차이를 확인해보았다. [그림 6-21]을 보면 코로나 이전인 2020년 1월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청년층 남성은 취업교육 및 취업준비 중인 비율이 6.4%이며, 여성은 6.5%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코로나 이후의 양상을 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대략 1%포인트 내외로 그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여성은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차이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남성은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이러한 전년 동월 대비 차이와 더불어 2020년 1~2월 당시 여성은 전년 동월 대비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남성은 줄어드는 추세였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남성은 사전 추세를 고려할 때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여성의 사전추세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증가폭이 다소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학생인 청년들은 취업준비 중인 비중이 작았으며, 코로나19 이후 증감도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림 6-21] 성·졸업 여부별 취업교육 및 취업준비 중인 비율

(단위: %포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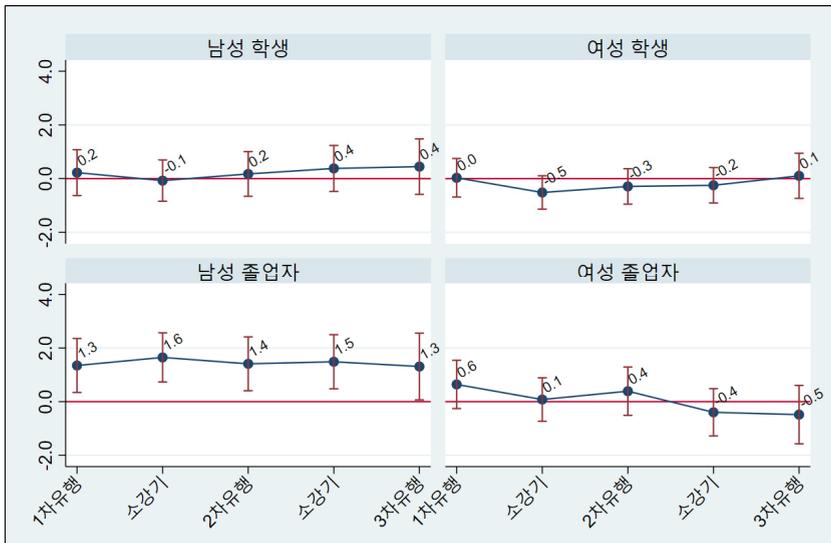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이러한 사전 차이를 고려하여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졸업한 남성 청년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기간에 취업준비 중인 이들의 비율이 1%포인트 이상 증가한 반면, 여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유의한 증가세가 관측되지 않았다(그림 6-22). 교육과정을 마친 남성 청년들의 경우 전체 비경제활동인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1.8%에서 2.4%포인트가량 증가

하였는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취업준비 중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경제위기 시에 청년층 남성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기보다는 상당수가 취업준비 등을 통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기다리거나 인적자본을 쌓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할 수록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더 괜찮은 일자리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기보다는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22] 취업교육 및 취업준비에 대한 성·졸업 여부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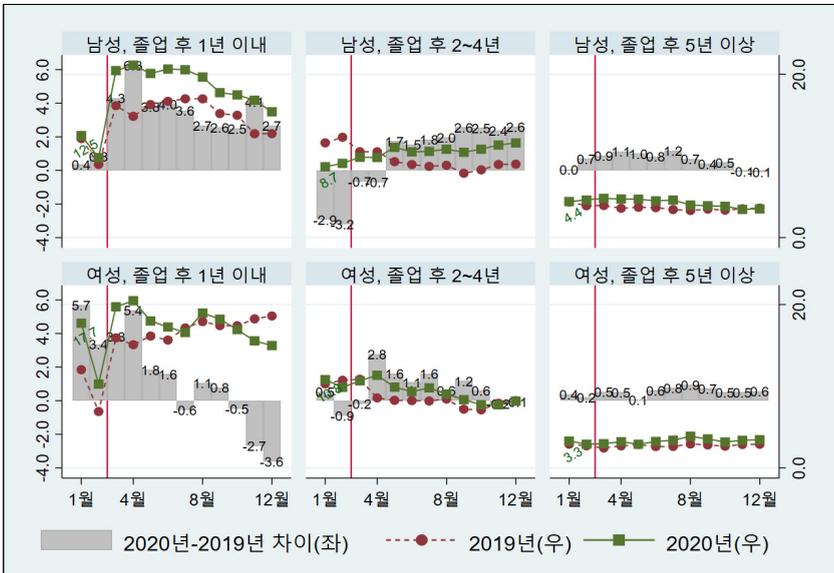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졸업 이후 경과 연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자(그림 6-23). 졸업 후 1년 이내인 이들은 12.5~17.7%가량이 취업준비 중이며, 통상 3월 졸업 시즌 이후 그 비율이 늘어났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졸업 후 2~4년 경과한 이들의 경우 대부분 1년 내내 계절성은

없으나, 1월에 남녀가 각각 8.7%, 10.8%로 시작하여 연간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졸업 후 5년 이상이 경과하면, 그 비율이 크게 줄어 남녀 각각 4.4%, 3.3%의 청년만이 평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채로 취업을 준비한다. 이 같은 일반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코로나19 이후의 양상을 살펴보면, 주로 졸업 후 경과 시점이 짧은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졸업 후 1년 이내 이들은 12월경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취업준비 비율을 나타낸 반면, 졸업 후 2~4년이 경과한 집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줄곧 전년 동월 대비 2%포인트 내외의 증가폭을 나타냈는데, 여성은 주로 유행 초기에, 남성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할 때 증가폭이 커졌다. 한편, 졸업 후 5년이 경과한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이 비율의 증감폭이 크지 않았다.

[그림 6-23] 졸업 후 경과 기간별 취업교육 및 취업준비 중인 비율

(단위: %포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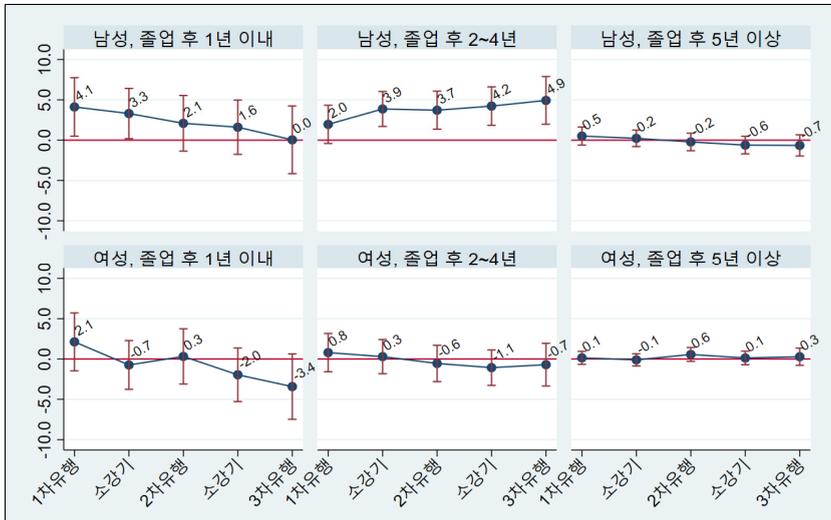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졸업 후 2~4년 경과한 이들에게 나타난 영향이 두드러진다(그림 6-24). 졸업 후 1년 이내인 남성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1차 유행기에 구직활동 없이 취업준비 중인 이들의 비율이 4.1%포인트가량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는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졸업 후 2~4년이 경과한 남성 청년들은 그 증가폭이 점차 증가하여, 12월경 4.9%포인트를 나타냈다. 이는 이들 집단에서 코로나19로 줄어든 고용률 대부분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으며, 그중 대부분이 취업준비 중으로 여전히 소극적인 형태의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졸업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이행기 청년들의 구직활동 규모가 커져서,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6-24] 취업교육 및 취업준비에 대한 졸업 후 경과 기간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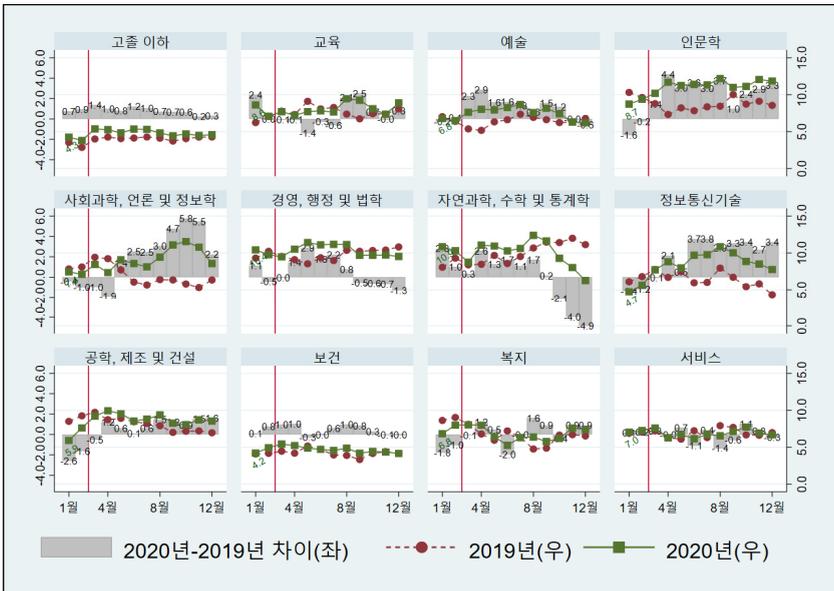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교육계열별 양상을 살펴보자(그림 6-25).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는 고졸자들의 비율이 가장 컸으나(그림 6-17 참고), 취업준비 중인 이들의 비율은 이들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들은 진학 준비 등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취업준비 중인 비율은 역시 자연과학과 인문학 같은 순수과학 학문과 사회과학, 경영 행정, 교육 분야등에서 높게 나타난다. 코로나19의 양상을 보아도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두드러져 보인다.

[그림 6-25] 교육계열별 취업교육 및 취업준비 중인 비율

(단위: %포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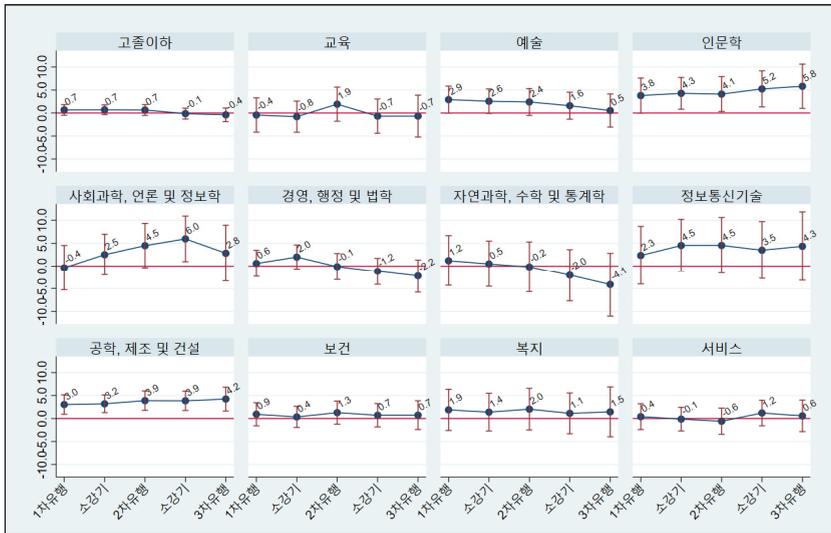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률의 감소폭이 크고,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폭이 컸던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준비 중인 청년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그림 6-26). 인문학 전공자들의 경우

취업준비 중인 청년의 비율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최대 5.8%포인트, 사회과학 전공자의 경우 최대 6.0%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공학, 제조 및 건설업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자체는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취업준비 중인 비율이 3%포인트 이상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 내에서도 진학 준비나 군입대 대기, 쉬었음 등 여타 활동의 비율은 줄고 취업준비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림 6-26] 취업교육 및 취업준비에 대한 교육계열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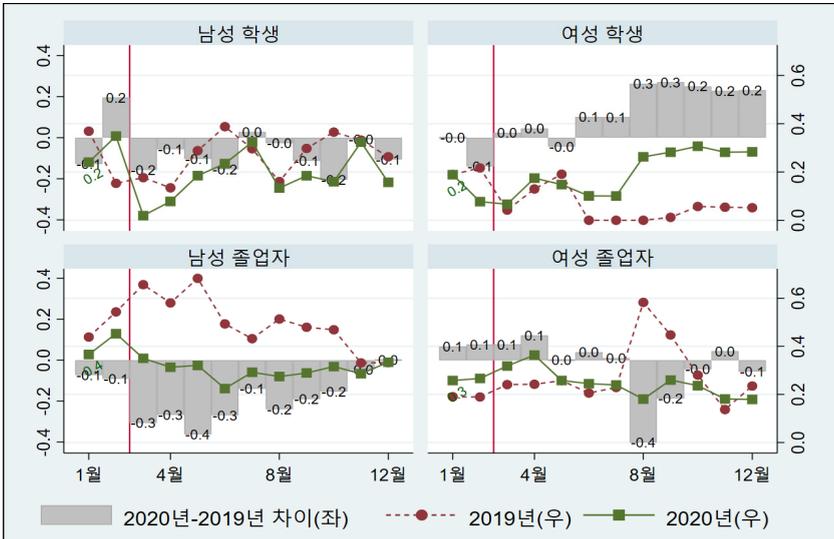
## 2. 쉬었음

마지막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평소 활동상태가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분포를 살펴보았다<sup>5)</sup>. 우선 청년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쉬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의 경우 남녀 모두 2020년 1월 당시 0.2%로 동일하게 나타났다(그림 6-27). 반면, 졸업자의 경우 남성은 0.4%, 여성은 0.3%로 나타나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다만, 이 비율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 해석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쉬었다고 응답한 이들의 코로나19 이후 양상을 살펴보면, 여학생은 2020년 하반기 들어 그 비율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남학생은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남성 졸업자들은 2020년 3월 이후 쉬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여성 졸업자는 8월에만 쉬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줄었다.

[그림 6-27] 성·졸업 여부별 유휴 인구 비율

(단위: %포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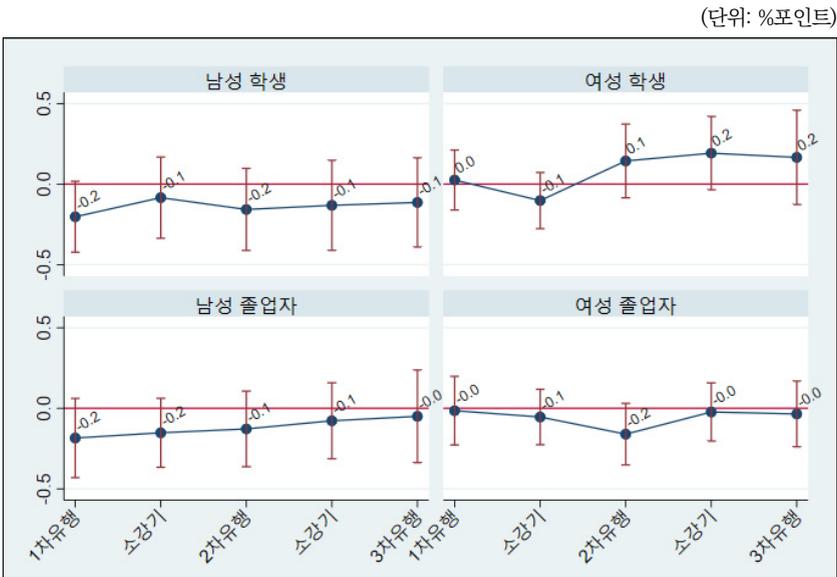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5) 여기서 “쉬었음”이라는 응답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하여 지난주 활동상태가 육아, 가사,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취업준비, 진학준비, 연로, 심신장애, 군입대, 쉬었음 중에서 “쉬었음”에 응답한 경우를 나타낸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쉬었다고 응답한 비율의 증가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그림 6-28). 여학생의 경우에만 하반기에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지만, 이 역시 유의한 수준의 증가는 아니었다.

[그림 6-28] “쉬었음”에 대한 성·졸업 여부별 회귀분석 계수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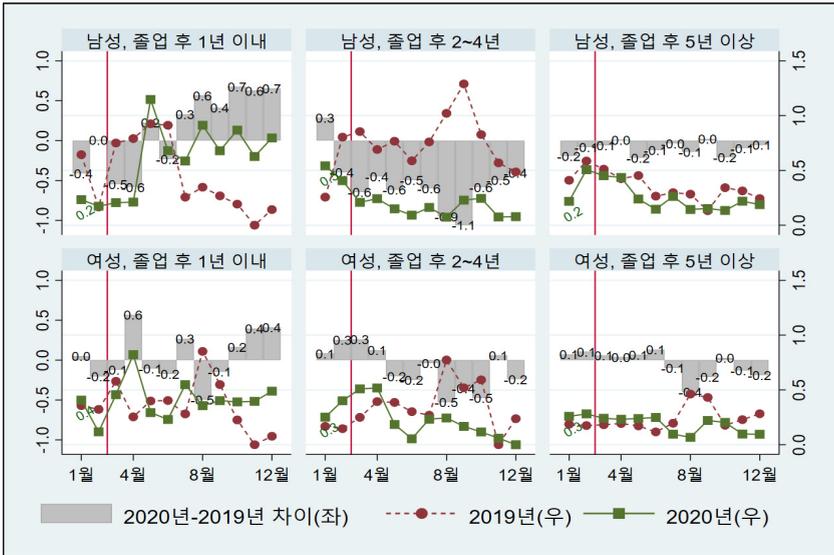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졸업한 청년들의 졸업 후 경과 기간별 양상을 살펴보면, 졸업 후 5년 이상 경과한 이들은 2020년 내내 전년 동월 대비 큰 차이가 관측되지는 않았다(그림 6-29). 최근 졸업자들의 경우 그 시기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가령, 졸업 후 1년 이내인 이들은 연말에 쉬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반면, 졸업 후 2~4년 경과한 이들은 그 비율이 연말에 오히려

감소하였다. 물론 이러한 증감 폭 역시 0.7%포인트에 그친다는 점에서 표본 오차범위 안에 있는 차이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 6-29] 졸업 후 경과 기간별 유휴 인구 비율

(단위: %포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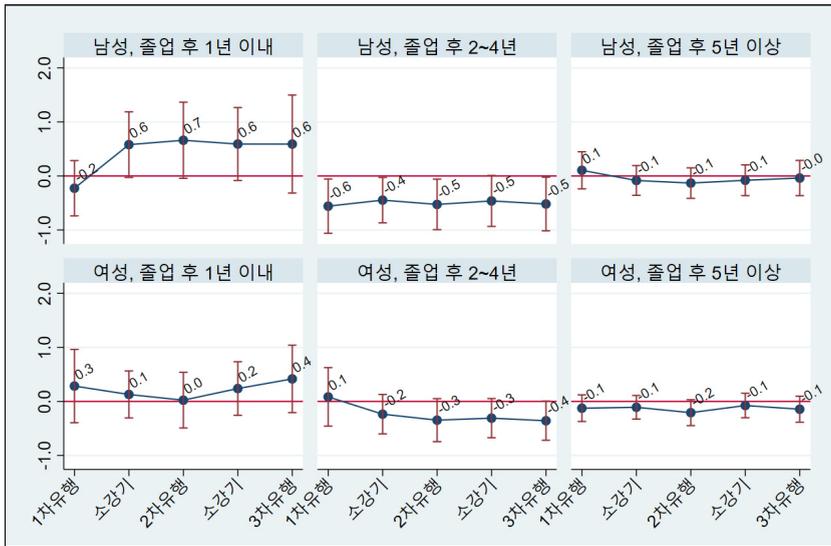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타 졸업 후 1년 이내인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쉬었다고 응답한 비율의 증가폭을 나타내는 계수가 점차 커지기는 하지만,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그림 6-30). 졸업 후 5년이 경과한 이들 역시 유의한 영향은 관측되지 않았다. 반면, 졸업 후 2~4년이 경과한 이들의 경우 쉬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쉬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왜 감소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늘어난 미취업자, 그중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가 쉬었

다고 응답한 비율의 증가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졸업 후 2~4년 경과한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큰 고용률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집단이다. 그러나 이들의 평소 활동상태는 그냥 쉬기보다는 취업준비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음을 의미한다.

[그림 6-30] “쉬었음”에 대한 졸업 후 경과 기간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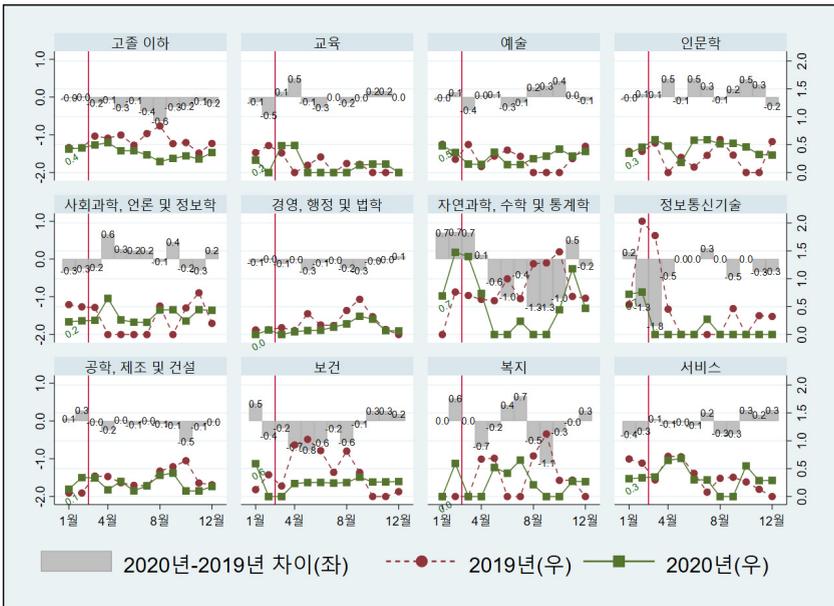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교육계열별로는 2020년 1월 당시 예술 계열이 0.5%, 자연과학이 0.7%로 나타나 청년 중에서도 쉬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그림 6-31). 다만, 유휴인력 비율이 모든 집단에서 1% 미만으로 작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계열 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양상을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 유휴인력의 비율이 대체로 줄어들었다. 다만,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의 경우 작게나마 증가 폭을 그렸다. 이들 전공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진 집단으로, 이들 중 소수는 유휴인력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6-31] 청년층 교육계열별 쉬고 있는 인구 비율

(단위: %포인트, %)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다만, 이러한 증가폭은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증가가 아니었다(그림 6-32).

[그림 6-32] “쉬었음”에 대한 교육계열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청년층에서 고용되지 않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들이 평소 무엇을 하면서 지냈는지, 코로나19 이후 그 양상이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용률이 줄어든 사이 상당 수가 적극적 구직자로 노동시장에 남아 있기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규교육을 마친 남성 청년, 졸업 후 2~4년이 경과한 남성 청년,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공 청년들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률이 상당히 줄어든 집단

이기도 하다.

이처럼 남성 청년들 사이에서 늘어난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은 취업 교육이나 취업준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는 하반기 상용직, 전일제 신규 입직자 감소가 있었다는 점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인적 자본을 쌓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안정적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간의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년 여성들의 경우 코로나19 직후에만 고용률이 감소한 뒤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며, 비경제활동인구와 취업을 준비 중인 비율 역시 유의하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이는 청년 남성이 향후 구직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년 여성들의 경우 청년 남성들처럼 경기 회복을 기다리기보다는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청년 여성들은 구직 대기기간이 짧으며 더 낮은 일자리에 빠르게 진입하는 양상을 나타낸다는 점과 일치하는 결과다(안주엽, 홍서연, 2002; 오유진, 김교성, 2019; 이상직 외, 2019). 이러한 양상은 실제로 여성 청년들이 고용률이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등 주요 지표에서는 양호한 것처럼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좋은 일자리를 기다릴 여력이 없거나, 그러한 기대가 높지 않음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 제7장

## 결론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함의

제3절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언



## 제 7 장 결론

###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년노동시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학교를 나와 노동시장으로 가는 이행기에 경험하는 경제위기는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Bell & Blanchflower, 2011; Raaum & Røed, 2006; Schmillen & Umkehrer, 2017).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을 19~34세로 구분되는 단일한 연령집단이 아니라, 청년 내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기에 있는 상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청년을 정규교육을 마친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 그리고 졸업 이후 1년이 지난 청년, 2~4년이 지난 청년, 5년 이상 지난 청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더불어 성별에 따라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 패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안주엽, 홍서연, 2002; 오유진, 김교성, 2019; 이상직 외, 2018)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매달 15일 이후 일주일간 반복해서 실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직업이나 산업, 임금 등 일자리의 세부적인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여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전 연도 같은 달과 차이에서 코로나19 이전인 1~2월의 사전 차이를 빼는 이중차분법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률은 코로나19

직후 크게 낮아졌으며, 이후 그 영향이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내내 지속하는 양상을 보인다. 청년층은 여타 연령층과 달리 3월에 큰 폭의 고용률 감소를 겪은 뒤 12월경 다시 큰 폭으로 고용률이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를 비롯한 경제위기는 청년층에게 즉각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다만, 월별 효과는 청년층 내에서도 서로 다른 세부 집단에 따른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을 세부 집단별로 살펴보면, 정규교육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코로나19의 주요 유행기에만 고용률 감소가 나타난다. 이는 학생인 청년들이 주로 대면서비스와 관련한 직업과 산업, 그리고 파트타임 일자리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으로 코로나19 이전부터 쉽게 드나드는 노동시장이자, 경기변동에 따라 더 빠르게 드나들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정규교육을 마친 청년의 경우 이야기가 다르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직후보다도 장기화 국면에서 고용률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 학교를 떠난 남성 청년, 그중에서도 졸업 후 2~4년이 경과한 청년들은 연말의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청년들이 졸업 후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데까지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며, 첫 일자리의 유지 기간이 평균 16개월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졸업 후 2~4년이 경과한 이들은 노동시장에 아직 안착하지 못한 이행기에 있는 청년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률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인다.

한편,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예상되는 예술과 서비스 전공자들의 경우 고용률 감소뿐만 아니라 일시휴직자가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술과 서비스 전공자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의 특성이 임시직이었으며,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여타 전공에 비하여 상당히 높았다.

다음으로 제5장에서는 이 같은 코로나19 이후 고용률의 감소가 노동 시장으로부터 이탈(실직)에 의하여 주로 발생하는지, 아니면 신규로 노동 시장에 진입(입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최근 실직, 그중에서도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한 실직은 코로나19의 1차와 3차 유행기에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대면 서비스 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곧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학생인 청년들과 여성 청년들의 높은 실직률과 연결되었다. 특히 1차 유행기에 감소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최근 입직의 제약 역시 코로나 19의 타격을 직접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면서비스 관련 업종에서 1차 유행기 당시 크게 나타났다. 다만, 하반기에 상용직의 가을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하반기에 여타 일자리에 비하여 단순노무직과 임시근로자의 입직이 전년 동월 대비에 늘어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일자리일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 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운수업의 하반기 최근 입직 증가도 눈에 띈다.

이처럼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 실직과 입직의 제약이 크다 보니 청년층 내에서도 입직과 실직의 양상이 다르다. 청년 여성들의 경우 특히 1차 유행기 당시 최근 실직의 증가와 입직의 제약 모두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 남성들, 특히 졸업 후 2~4년이 경과한 이들의 경우 최근 실직의 증가는 관측되지 않으나 하반기 입직 제약이 관측되며, 특히 2020년 12월 당시 신규 입직이 2.2%가량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직과 입직 제약 모두가 고용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나, 특히 입직 제약의 영향이 컸으며, 그중에서도 고용률의 큰 하락을 나타내는 졸업 후

2~4년이 경과한 청년 남성들의 입직 제약의 영향이 커 보인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늘어난 미취업자는 평소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을까? 제6장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극적 구직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았다. 청년층에서 코로나19로 고용률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실제 구직자의 비중은 해당 기간에 유의하게 높아지지 않았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계속하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고용률이 줄어든 사이,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 역시 상당히 늘어났다. 특히 졸업 후 2~4년가량 경과한 남성 청년,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공 청년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고용률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집단이기도 하다. 특히 졸업 후 2~4년 경과한 청년들의 경우 2020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률이 5.9% 감소하였는데, 같은 기간 비경제활동인구는 5.5%, 그중에서도 취업준비 중인 이들은 4.9%가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줄어든 고용률 대부분이 비경제활동인구, 그중에서도 취업준비 중인 이들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으나,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인적자본을 쌓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한편, 학교를 마친 여성 청년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늘어난 비경제활동인구가 이후 점차 줄어들었으며, 반대로 구직자의 비율은 점차 늘어났다. 이들은 고용률의 감소가 연말에 더 큰 폭으로 커지지 않았다. 이는 학교를 마친 여성 청년들이 경제위기 시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더 나은 일자리를 기다리기보다는 바로 구직활동에 뛰어들어 노동시장으로 복귀한다는 점에서 청년 남성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여성 청년은 동일한 학교, 동일한 전공을 졸업하고도 임금격차가 19.8%가량 발생

하는 등 여학생에게 구조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김창환, 오병돈, 2019), 괜찮은 일자리와 장기근속의 기대가 낮은 여성들은 노동시장 내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기다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빨리 들어가거나, 들어갔다 나오게 된다는 이상직, 김이선, 권현지(2018)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거에 관측되어 온 청년층 내에서의 남녀의 차이가 경제위기 시에도 유지 또는 더욱 강고해진다는 점을 나타낸다.

## 제2절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가 코로나19에 따른 청년노동시장 관련 정책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로 인하여 줄어든 청년층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주로 고용률 감소를 경험한 졸업 후 2~4년 사이의 남성 청년들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주로 대면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한 실직 및 입직 제약의 영향보다, 하반기 상용직의 공채가 이전처럼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고용률 감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적극적 구직자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취업준비 등 소극적 구직자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들은 청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코로나 19 관련 지원 중 가장 시급한 분야로 고용지원 등 일자리 정책을 꼽았다(남재욱 외, 2020). 이는 주거지원이나 소득지원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현재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 청년 일자리와는 다소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9월 이례적으로 늘어난 공공

부문의 신규 입직자가 주로 코로나19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일 것으로 보고<sup>6)</sup>, 이들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늘어난 이 분야 일자리가 대부분 단순노무직이며, 임시직, 파트타임이었다. 이는 취업준비라는 인적자본 투자를 이어가면서 괜찮은 일자리를 기다리는 청년들의 욕구에는 부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ICT 분야의 일자리를 8,950명의 청년에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ICT 분야 전문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률 감소가 두드러진 청년들의 전공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계열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과 실제 취약 집단 사이의 불일치 문제가 있다는 점이 아쉽다. 다른 어느 경제위기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의 신규 채용이 위축되고 있다. 정부의 취지처럼 청년들이 아르바이트가 아닌 괜찮은 일자리로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고용보험 밖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내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예술 전공자와 서비스 전공자들에게서 일시휴직자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전공 졸업자들은 임시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여타 전공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예술 전공자들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3.9%로 전체 청년의 4.62%에 비하여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일자리 특성을 토대로 볼 때 이들은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6) 행정안전부. (2020. 7. 6.).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및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추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8](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8)에서 2021.4.28. 인출.

그 외에도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와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서비스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학생과 여성 청년들 역시 코로나19 직후 고용률이 급감하였다. 이들은 주로 파트타임 종사자이며 고용형태는 임시직이었다.

이처럼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은 이들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2021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이 제공되었다<sup>7)</sup>. 다만, 이러한 지원금은 일부 특수고용 직종을 제외하고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청년들의 경우 신규 창업 시 매출증빙을 하기 어려워 관련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보고도 있다(김종진 외, 2020, p.143). 또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역시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1회 5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sup>8)</sup>,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관련 지원금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 일감의 부족으로 수입이 줄어든 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기능할 수 있도록 향후 고용보험의 대상 확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년층 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일자리 분절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청년층에서 같은 이행과정에 있더라도 여성 청년과 남성 청년의 위기 시 받게 되는 주요한 영향의 경로와 대응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졸업한 남성 청년의 경우 코로나19에

7) 고용노동부. (2021. 3. 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List.do>에서 2021.4.28. 인출.

8) 고용노동부. (2020. 9. 2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List.do>에서 2021.4.28. 인출.

다른 즉각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에 신규 진입을 못 하면서 주로 고용률 하락이 발생한다. 반면 여성 청년들은 코로나19의 피해를 직접 받은 전공에 주로 종사하면서 즉각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남성 청년들처럼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서 취업을 준비하며 괜찮은 일자리를 기다리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인 구직자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청년층 내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일자리의 질이 다르고, 이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된 차이로 보인다. 이는 통상 돌봄 등 관련 정책의 미비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남녀 간 임금격차가 크다는 논의와는 배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청년층 내에서도 남녀 간 일자리의 질과 기대가 다르다는 점은 향후 돌봄 관련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남녀 간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남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노동시장 진입기에 있는 청년층 내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수립 시 청년층 내의 이질적인 속성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청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19~34세 연령집단을 포괄하는 청년층을 주요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청년층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에 더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도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 청년층은 그 안에서도 학교를 졸업하였는지, 졸업 후 경과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층을 단일한 연령집단으로 보는 접근은 청년층의 욕구에 더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청년 정책 수립과 시행 시에 청년층 내의 이질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3절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는 자료 및 연구방법론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가 사용하는 방법론은 앞서 제3장에서 설명하였듯 연도 내 월별 추세가 동일할 것이라는 다소 강한 가정에 기반한다. 같은 연도 내에서도 점진적으로, 혹은 극적으로 경기가 개선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2017~2019년을 비교집단으로 삼은 본 연구는 이들 연도의 특정한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실제로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 2019년만을 대조 연도로 삼았을 때 청년층과 노년층의 하반기 코로나19의 영향은 과도하게 추정된다. 만약 일부 선행연구처럼 지역별 감염률의 격차나 직업별로 대면서비스업의 영향 정도, 지역별 정책의 차이 등을 토대로 한다면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직업과 산업을 대분류 수준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변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비록 반기마다 조사되나, 세부적인 직업 정보와 지역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 결과를 비교,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보고서를 작성한 2021년 4월 시점에는 2020년 10월 조사자료가 공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청년층 내 다양한 이질성을 더 폭넓게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가령, 청년층 내에서도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이행경로가 다르다는 점이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변금선, 2018).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한계로 청년층이 실제로 얼마나 자원을 가졌는지에 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실제로 청년들이 경제위기 시 노동시장에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취업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낼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측정상의 한계로 노동시장 내 입직 및 이탈의 양상을 더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노동시장에서 청년노동시장의 특성상 한 달 내에도 입직과 이직을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최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항목으로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형태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신규 고용에서 이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업 등 관련 특수고용이 큰 폭으로 늘어났을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측정 결과에서 최근 입직 변수는 실제를 과소 추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들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라는 점에서 청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을 지나치게 왜곡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는 이후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세부 직업 이력을 확인하는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많은 부분 더 정확히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2020년에 조사된 패널자료 중에서 아직 결과가 공표된 자료는 본 보고서를 작성한 현재까지는 없었다. 향후 축적된 관련 패널조사 자료로 활용하여 후속연구를 수행해 가도록 하겠다.



- 고용노동부. (2020. 9. 2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List.do> 에서 2021.4.28. 인출.
- 고용노동부. (2021. 3. 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List.do> 에서 2021.4.28. 인출.
- 공공데이터 포털.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감염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43376/openapi.do> 에서 2021.4.7. 추출.
- 김난주 (2017). 세대별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 이화젠더법학, 9(2): 69-124.
- 김문정. (2021).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노동조정. 재정포럼, 제295호, 10-31.
- 김수현. (2021.3.16.). 작년 서울 초등학교 42일만 학교 갔다... 전남의 1/3수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5158700530?input=1195m>에서 추출.
- 김유빈, 최충. (2017). 청년층 노동시장 실태와 정책 과제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정아. (2021.4.9.). 671명 추가, 총108,269명! 4월 9일 '코로나19'국내 발생 현황. 디지털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1/04/09/2021040980023.html](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1/04/09/2021040980023.html) 에서 추출.
- 김종욱. (2017). 최근 청년층 니트(NEET)의 특징과 변화. 월간노동리뷰, 2017년 4월호, 97-110.
- 김종진, 김영민, 김영록, 연시영, 임아현, 장지혜, 최경은. (2020). 코로나19와 청년노동실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유니온센터.

- 김창환, 오병돈. (2019).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격차 분석. 한국사회학, 53(1), 167-204.
- 남재량. (2008).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남재량, 이철인. (2012). 경기변동과 청년실업: 실직구직의 경기변동상 특성분석.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23(4), 312-338.
- 남재욱, 서복경, 김영빈, 황효진. (2020).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청년층 이행 경로 영향 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문혜진. (2013). 외환위기 전후 청년 코호트의 노동경력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5(1), 201-226.
- 문혜진, 구인회, 김진석, 손병돈, 우석진, 함선유, 양다연. (2020).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 성과평가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박미희 (2017). OECD국가의 청년NEET 결정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변금선. (2018).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1970-80년대 출생코호트의 청년기 노동궤적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70(3), 113-137.
- 성재민. (2020).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제18차 동북아 노동포럼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33-50.
- 안주엽, 홍서연. (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勞動經濟論集, 25(1), 47-74.
- 오유진, 김교성. (2019). 성별·학력별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궤적과 유형 비교. 노동정책연구, 19(3), 1-35.
- 유정미 (2017).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단계의 성별임금격차 분석. 한국여성학 33(1), 107-155.
- 이상직, 김이선, 권현지. (2018).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남녀 대졸자 노동이력으로 본 위기 전후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경제와 사회, 118, 139-181.
- 이승호. (2020). 코로나19 확산과 가구의 소득, 지출 변화. 노동리뷰 2020년 12월호(통권 제 189호), 7-20.

- 통계청. (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confmNo=101004&inputYear=2020> 에서 2021.4.10. 인출.
-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인구총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2)에서 2021.4.12. 인출.
-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에서 2021.2.25. 인출.
- 한요섭. (2017).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시사점.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한요섭. (2020).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KDI 경제전망, 2020 상반기. 39-46.
- 행정안전부. (2020. 7. 6.).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및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추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8](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8)에서 2021.4.28. 인출.
- 홍민기. (2020).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노동리뷰 2020년 12월호(통권 제 189호), 21-40.
- 황수경, 윤윤규, 조성재, 전병유, 박경로, 안주엽. (2010). 경제위기와 고용.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Ai, C., & Norton, E. C. (2003). Interaction terms in logit and probit models. *Economics letters*, 80(1), 123-129.
- Aum, S., Lee, S. & Shin, Y. (2020). *COVID-19 Doesn't Need Lockdowns to Destroy Jobs: The Effect of Local Outbreaks in Korea*. NBER Working Papers 2726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Beland, L.-P., Brodeur, A., & Wright, T. (2020). *COVID-19, Stay-At-Home Orders and Employment: Evidence from CPS Data*, IZA Discussion Papers 13282,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IZA).
- Bell, D., & Blanchflower, D. (2011) Young people and the great recession.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7(2), pp. 241-267. <https://doi.org/10.1093/oxrep/grr011>
- Borio, C. (2020). The Covid-19 economic crisis: Dangerously unique. *Business Economics* 55(4), pp.181-190.
- Carcillo, S., Fernández, R., Königs, S. & Minea, A. (2015). *NEET Youth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Challenges and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64. DOI: 10.1787/1815199X
- Casarico, A., & Lattanzio, S. (2020). The heterogeneous effects of COVID-19 on labor market flows: Evidence from administrative data. *Covid Economics*, 52, 152-174.
- Cho, S. J., & Winters, J. V. (2020). *The Distributional Impacts of Early Employment Losses from COVID-19*. Economics Working Papers: Department of Economics, Iowa State University. 20011.
- Coates, B., Cowgill, M., Chen, T., & Mackey, W. (2020). *Shutdown: estimating the COVID-19 employment shock*. Grattan Institute.
- Collins, C., Landivar, L. C., Ruppanner, L., & Scarborough, W. J. (2021). COVID-19 and the gender gap in work hours. *Gender, Work & Organization*, 28, pp. 101-112. DOI:10.1111/gwao.12506
- Cowan, B. W. (2020). *Short-run Effects of COVID-19 on U.S. Worker Transitions*, NBER Working Papers 2731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Fairlie, R. W., Couch, K., & Xu, H. (2020). *The impacts of covid-19 on minority unemployment: First evidence from april 2020 cps microdata* (0898-2937). DOI: 10.3386/w27246
- Ham, S. (2021). Explaining Gender Gaps in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eminist Economics* 27(1-2), pp. 133-151.
- Hill, R. C., Griffiths, W. E., & Lim, G. C. (2018). *Principles of Econometrics*. John Wiley & Sons.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20).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The Great Lockdown*. Retrieved from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0/04/14/weoapril-2020>.
- Landivar, L. C., Ruppanner, L., Scarborough, W. J., Collins, C. (2020). Early Signs Indicate That COVID-19 Is Exacerbating Gender Inequality in the Labor Force. *Socius*. January 2020. doi:10.1177/2378023120947997
- Lee, S., Park, M., & Shin, Y. (2021). *Hit Harder, Recover Slower? Unequal Employment Effects of the Covid-19 Shock*. NBER Working Papers 2835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Lemieux, T., Milligan, K., Schirle, T., & Skuterud, M. (2020). Initial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Canadian labour market. *Canadian Public Policy*, 46(S1), S55-S65. DOI: 10.3138/cpp.2020-049
- Montenovo, L., Jiang, X., Rojas, F., Schmutte, I. M., Simon, K.I. & Weinberg, B.A., & Wing, W. (2020). *Determinants of disparities in COVID-19 job losses*, NBER Working Papers 2713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OECD. (2015). Non-standard work, job polarisation and inequality. In OECD,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Paris: OECD Publishing, pp. 135-208.
- OECD (2016).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Paris, OECD Publishing. <https://www.oecd.org/employment-outlook/2016/> 2021년 6월 17일 인출.
- OECD. (2020).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WORKER SECURITY AND THE COVID-19 CRISIS*. Paris: OECD Publishing. DOI: 10.1787/19991266
- Raaum, O., & Røed, K. (2006). Do business cycle conditions at the time of labor market entry affect future employment prospect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2), 193-210.
- Schmillen, A., & Umkehrer, M. (2017). The scars of youth: Effects of early-career unemployment on future unemployment experience.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56(3-4), 465-494.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0). *Frequently asked questions: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on the employment situation for april 2020*. <https://www.bls.gov/cps/employment-situation-covid19-faq-april-2020.pdf> 에서 2021.6.17. 인출
- World bank. (2021). *Global Economic Prospects, A World Bank Group Flagship Report*,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bitstream/handle/10986/35647/9781464816659.pdf> 에서 2021.6.18. 인출



## [부록 1] 주요 기술 통계 및 분석 결과

〈부표 3-1〉 정규교육기관 졸업 청년의 전공계열 분포

(단위: %, 명)

		가중치를 적용한 연평균 비율		비가중 빈도		
		2019	2020	2019	2020	
학력 및 교육 계열	고졸 이하	27.30	26.39	26,990	25,899	
	전문대 졸업 이상	교육	4.57	4.62	4,629	4,625
		예술	7.68	7.89	6,760	6,599
		인문학	6.22	6.17	5,755	5,507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3.32	3.19	2,993	2,754
		경영, 행정 및 법학	11.42	11.28	10,348	10,042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3.01	2.84	2,884	2,608
		정보통신기술	2.07	2.65	1,766	2,249
		공학, 제조 및 건설	16.75	16.42	15,475	14,941
		농림어업 및 수의학	0.56	0.58	579	608
		보건	6.49	7.02	6,726	7,001
		복지	2.92	3.09	2,970	3,115
		서비스	7.68	7.87	7,450	7,464
전체		100.00	100.00	95,325	93,412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3-2〉 정규교육기관 졸업 청년의 졸업 후 경과 기간 분포

(단위: %, 명)

		가중치를 적용한 연평균 비율				비가중 빈도			
		2017	2018	2019	2020	2017	2018	2019	2020
졸업 후 경과 기간	1년 이내	16.45	16.23	15.57	14.71	15,366	14,737	14,065	13,606
	2~4년	25.00	25.32	26.17	26.36	22,456	22,496	22,318	22,107
	5년 이상	58.55	58.46	58.27	58.93	57,371	54,707	51,227	49,732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95,193	91,940	87,610	85,445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3-3) 분석대상 근로 청년의 일자리 특성

(단위: %, 명)

	가중치를 적용한 연평균 비율				비가중 빈도				
	2017	2018	2019	2020	2017	2018	2019	2020	
직업	관리자	0.2	0.3	0.3	0.2	184	198	193	19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9.4	29.0	28.9	29.3	23,379	22,291	21,302	20,699
	사무 종사자	24.6	24.8	23.6	23.4	20,180	19,546	17,672	16,754
	서비스 종사자	12.6	12.7	13.6	12.7	10,151	10,243	10,927	9,905
	판매 종사자	11.7	11.2	11.3	11.4	9,275	8,832	8,624	8,396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0.6	0.6	0.7	0.8	492	531	553	63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4	5.8	5.8	5.6	4,359	4,511	4,475	4,161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3	8.1	8.2	7.9	7,013	6,763	6,535	6,091
	단순노무 종사자	7.3	7.6	7.6	8.8	6,259	6,261	5,909	6,608
	농업, 임업 및 어업	0.7	0.8	0.9	0.9	666	718	747	789
산업	광업	0.1	0.0	0.0	0.0	55	45	37	33
	제조업	18.5	17.9	16.7	16.6	15,529	14,407	12,986	12,27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3	0.2	0.3	0.3	228	190	209	24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3	0.4	0.4	0.4	255	265	302	317
	건설업	3.7	4.1	4.1	4.5	3,073	3,163	3,163	3,251

	가중치를 적용한 연평균 비율					비가중 빈도			
	2017	2018	2019	2020		2017	2018	2019	2020
		15.1	15.0	14.5	14.4		11,972	11,427	10,463
	2.8	2.8	2.9	3.6		2,108	2,073	2,179	2,556
	11.4	11.3	12.2	11.3		9,077	9,052	9,729	8,922
	5.1	5.4	5.6	5.5		3,482	3,581	3,502	3,346
	3.5	3.6	3.2	3.2		2,759	2,781	2,338	2,176
	0.9	0.7	0.7	0.7		628	497	498	501
	6.3	6.1	6.4	6.6		4,502	4,370	4,514	4,355
	4.3	4.1	4.1	4.2		3,363	3,178	3,069	2,994
산업	2.9	3.6	3.4	3.6		2,876	3,268	2,879	3,059
	8.6	8.1	8.3	8.1		7,219	6,709	6,492	6,308
	9.5	9.8	9.7	9.7		8,203	8,295	7,852	7,469
	2.8	2.8	3.0	3.0		2,266	2,226	2,333	2,184
	3.6	3.6	3.6	3.4		3,015	2,908	2,865	2,520
	0.0	0.0	0.0	0.0		3	5	16	25
	0.0	0.0	0.0	0.0		13	18	17	20

	가중치를 적용한 연평균 비율				비가중 빈도				
	2017	2018	2019	2020	2017	2018	2019	2020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64.1	64.7	65.0	66.1	51,683	50,598	48,875	47,755
	임시근로자	23.5	22.9	22.1	20.9	19,258	18,371	17,467	16,143
	일용근로자	4.3	4.4	4.8	4.4	3,581	3,618	3,620	3,17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0	2.1	2.0	1.9	1,656	1,698	1,519	1,32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4	4.3	4.5	5.2	3,564	3,468	3,452	3,792
	무급 가족 종사자	1.8	1.6	1.5	1.5	1,550	1,423	1,257	1,252
사업장 규모	1~4명	22.7	22.8	23.8	23.3	18,860	18,694	18,652	17,876
	5~9명	17.2	17.1	17.2	16.7	13,980	13,704	13,249	12,269
	10~29명	20.8	20.6	19.8	19.6	16,736	16,128	14,848	14,404
	30~99명	17.0	17.0	16.6	17.1	14,023	13,358	12,549	12,396
	100~299명	9.8	9.3	9.5	9.2	7,869	7,381	7,218	6,666
	300명 이상	12.4	13.1	13.2	14.0	9,824	9,911	9,674	9,824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81,292	79,176	76,190	73,435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4-1〉 고용 여부에 대한 연령집단별·모형별 회귀분석 결과

구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모형1	모형2	모형3									
2020년 ×1차 유행	-0.022 <sup>***</sup> (0.007)	-0.022 <sup>***</sup> (0.006)	-0.023 <sup>***</sup> (0.005)	-0.014 <sup>*</sup> (0.005)	-0.015 <sup>***</sup> (0.005)	-0.014 <sup>***</sup> (0.004)	-0.016 <sup>***</sup> (0.006)	-0.018 <sup>***</sup> (0.005)	-0.018 <sup>***</sup> (0.004)	-0.027 <sup>***</sup> (0.006)	-0.027 <sup>***</sup> (0.005)	-0.026 <sup>***</sup> (0.005)
2020년 ×소강기	-0.020 <sup>***</sup> (0.006)	-0.020 <sup>***</sup> (0.005)	-0.022 <sup>***</sup> (0.004)	-0.016 <sup>***</sup> (0.005)	-0.018 <sup>***</sup> (0.004)	-0.018 <sup>***</sup> (0.004)	-0.018 <sup>***</sup> (0.005)	-0.016 <sup>***</sup> (0.004)	-0.016 <sup>***</sup> (0.004)	-0.024 <sup>***</sup> (0.006)	-0.024 <sup>***</sup> (0.005)	-0.025 <sup>***</sup> (0.004)
시기 (기준: 2020년 ×코로나 이전)	-0.022 <sup>***</sup> (0.007)	-0.018 <sup>***</sup> (0.006)	-0.020 <sup>***</sup> (0.005)	-0.021 <sup>***</sup> (0.006)	-0.021 <sup>***</sup> (0.005)	-0.021 <sup>***</sup> (0.004)	-0.013 <sup>*</sup> (0.006)	-0.011 <sup>*</sup> (0.005)	-0.012 <sup>*</sup> (0.004)	-0.019 <sup>***</sup> (0.006)	-0.018 <sup>***</sup> (0.005)	-0.021 <sup>***</sup> (0.005)
2020년 ×소강기	-0.024 <sup>***</sup> (0.007)	-0.018 <sup>***</sup> (0.006)	-0.020 <sup>***</sup> (0.005)	-0.018 <sup>***</sup> (0.006)	-0.019 <sup>***</sup> (0.005)	-0.018 <sup>***</sup> (0.004)	-0.013 <sup>*</sup> (0.006)	-0.013 <sup>***</sup> (0.005)	-0.014 <sup>***</sup> (0.004)	-0.022 <sup>***</sup> (0.006)	-0.019 <sup>***</sup> (0.005)	-0.022 <sup>***</sup> (0.005)
2020년 ×3차 유행	-0.029 <sup>***</sup> (0.008)	-0.023 <sup>***</sup> (0.007)	-0.026 <sup>***</sup> (0.006)	-0.022 <sup>***</sup> (0.007)	-0.020 <sup>***</sup> (0.006)	-0.019 <sup>***</sup> (0.005)	-0.020 <sup>***</sup> (0.007)	-0.017 <sup>***</sup> (0.006)	-0.018 <sup>***</sup> (0.005)	-0.031 <sup>***</sup> (0.007)	-0.025 <sup>***</sup> (0.006)	-0.029 <sup>***</sup> (0.006)
성별 (기준: 남성)			-0.052 <sup>***</sup> (0.001)		-0.015 <sup>***</sup> (0.001)	-0.015 <sup>***</sup> (0.001)			-0.028 <sup>***</sup> (0.001)			-0.155 <sup>***</sup> (0.001)
연령			0.036 <sup>***</sup> (0.000)			0.005 (0.000)			-0.017 <sup>***</sup> (0.000)			-0.019 <sup>***</sup> (0.000)

구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1	모델2	모델3
초대졸			0.206 <sup>***</sup> (0.002)			0.032 <sup>***</sup> (0.001)			0.026 <sup>***</sup> (0.002)			-0.028 <sup>***</sup> (0.006)
교육수준 (기준: 고졸 이하)			0.160 <sup>***</sup> (0.002)			0.032 <sup>***</sup> (0.001)			-0.016 <sup>***</sup> (0.001)			-0.113 <sup>***</sup> (0.003)
대학원졸			0.176 <sup>***</sup> (0.004)			0.097 <sup>***</sup> (0.002)			0.080 <sup>***</sup> (0.002)			-0.075 <sup>***</sup> (0.006)
상수	0.516 <sup>***</sup> (0.004)	0.505 <sup>***</sup> (0.003)	-0.432 <sup>***</sup> (0.004)	0.773 <sup>***</sup> (0.003)	0.780 <sup>***</sup> (0.002)	0.679 <sup>***</sup> (0.006)	0.692 <sup>***</sup> (0.003)	0.697 <sup>***</sup> (0.002)	1.761 <sup>***</sup> (0.008)	0.261 <sup>***</sup> (0.004)	0.244 <sup>***</sup> (0.003)	1.724 <sup>***</sup> (0.007)
연도, 월 고정효과	○	○	○	○	○	○	○	○	○	○	○	○
R제곱	0.000	0.000	0.279	0.000	0.000	0.119	0.000	0.000	0.090	0.003	0.004	0.109
사례 수(명)	313,128	648,443	648,443	355,960	743,381	743,381	418,214	828,557	828,557	349,710	675,450	675,450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주: 모델1은 2019~2020년을 대상으로, 모델 2와 모델3은 2017~2020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부도 4-1] 연령집단별 일시휴직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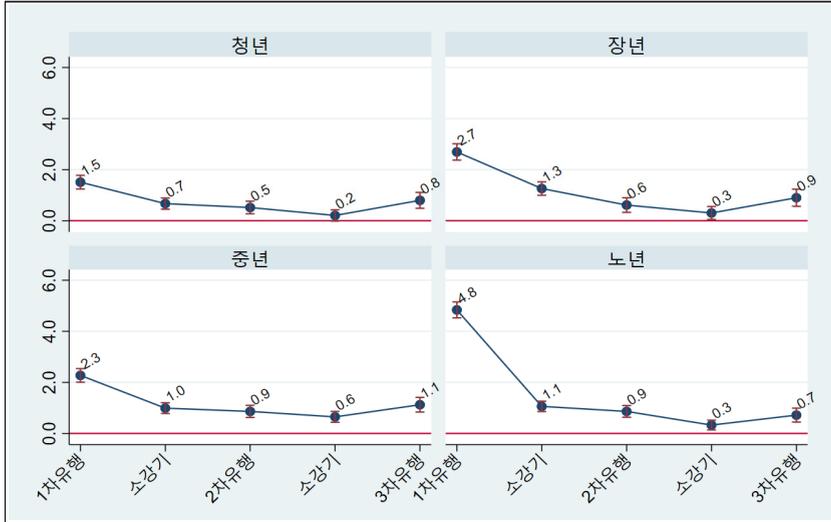
(단위: %포인트, %)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부도 4-2] 일시휴직에 대한 연령집단별 회귀분석 계수

(단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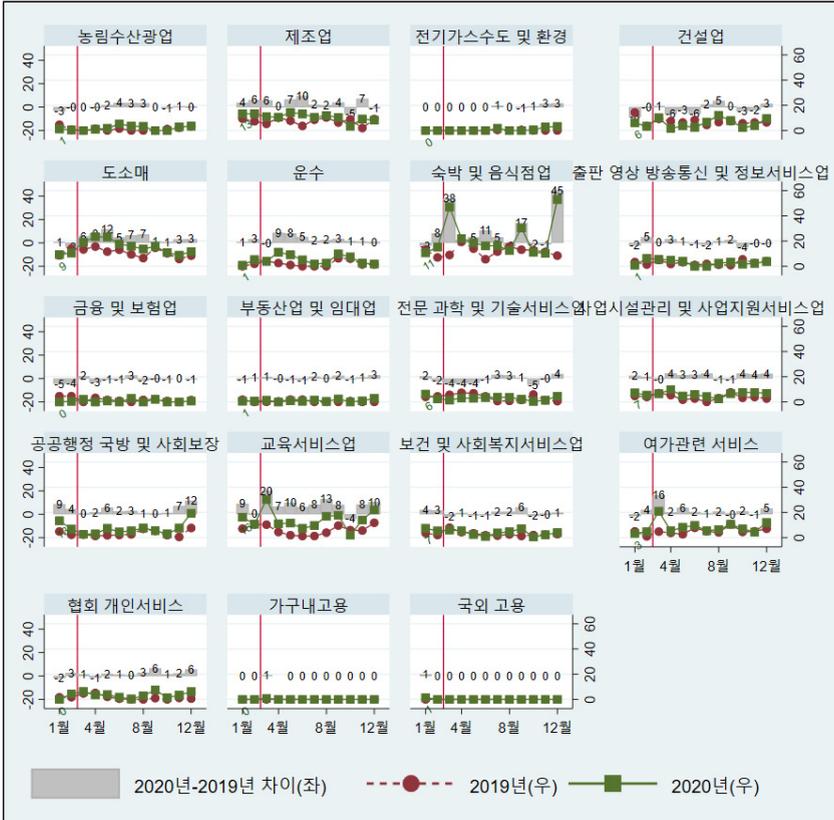


주: 1차 유행기는 3~4월, 2차 유행기는 8~9월, 3차 유행기는 12월을 나타내며 각 유행기 사이의 기간을 소강기로 표기하였다. 95%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부도 5-1] 전직 산업별 최근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청년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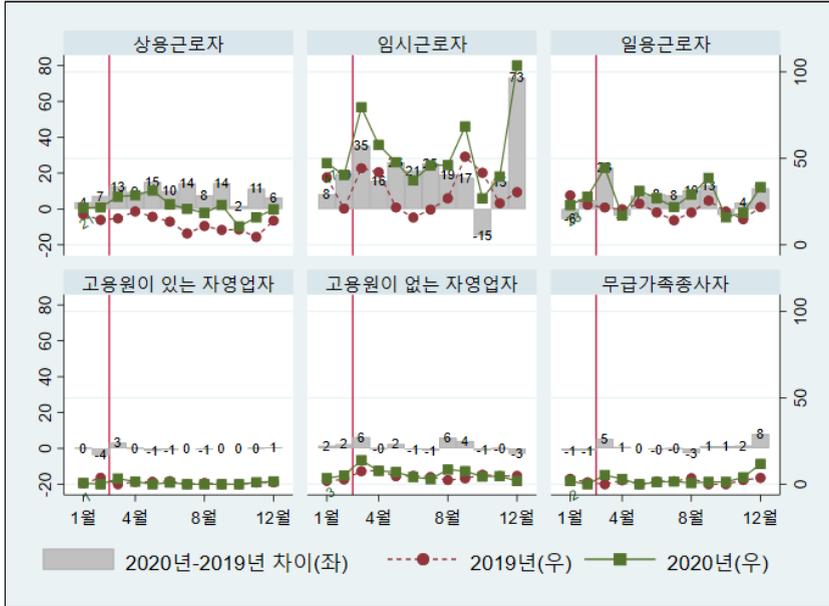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주: 비자발적인 실직이란 실직의 사유가 직장의 휴업과 폐업, 명예·조기 퇴직, 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경영의 악화로 인한 실직일 경우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부도 5-2] 전직 종사상 지위별 최근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청년의 수

(단위: 천 명)



주: 비자발적인 실직이란 실직의 사유가 직장의 휴업과 폐업, 명예·조기 퇴직, 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경영의 악화로 인한 실직일 경우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부도 5-3] 전직 기업 규모별 최근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청년의 수

(단위: 천 명)



주: 비자발적인 실직이란 실직의 사유가 직장의 휴업과 폐업, 명예·조기 퇴직, 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경영의 악화로 인한 실직일 경우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연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간행물 회원제 안내

###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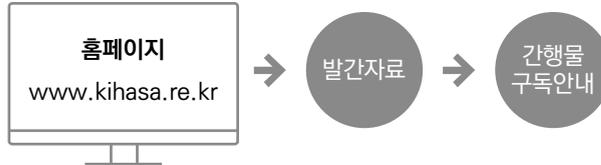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 가입방법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